



2026. 3.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6년 NABO 경제전망

NABO Economic Outlook for 2026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6년 NABO 경제전망

총괄 |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진솔 경제분석관
설경원 경제분석관

작성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소정 경제분석관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김윤희 경제분석관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경수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이두영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강은정 경제분석관	김상용 경제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천경록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한승룡 경제분석관
설경원 경제분석관	백기홍 경제분석관

지원 송재나 행정실무관	임현민 자료분석연구원
이인희 행정실무관	안소정 자료분석연구원
양희열 행정실무관	이아라 자료분석연구원
김희영 행정실무관	강태용 자료분석연구원

「2026년 NABO 경제전망」은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 02) 6788-3775 | macro@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6. 3.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6. 3. 24.)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세계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경제는 최근의 내수 회복 움직임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이 수출을 이끌며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대외 여건이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며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생겼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의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으나, 그 온기가 여타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적시에 반영하여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발간 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2026년 NABO 경제전망」을 발간하였습니다.

제I부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및 금융 동향을 담고 있으며, 제II부 「지출전망」은 실질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변수와 소비자물가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제III부 「생산전망」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총부가가치를 분석·전망하고 있으며, 제IV부 「소득전망」은 국민총소득을 비롯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전망을, 제V부 「지속성장」은 잠재성장률과 금리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NABO 2026년 지출 부문별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2.0	0.3	1.7	1.0	2.5	1.6	2.0
민간소비	1.1	0.7	1.9	1.3	2.1	1.2	1.7
정부소비	2.1	2.4	3.5	3.0	3.0	2.9	3.0
정부투자	0.8	1.2	0.2	0.7	2.2	1.8	2.0
건설투자	-3.3	-12.2	-7.3	-9.8	-1.0	2.5	0.8
설비투자	1.7	4.5	-0.4	2.0	1.9	2.6	2.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9	3.7	2.9	3.6	3.1	3.3
총수출	6.8	3.0	5.4	4.2	3.3	1.8	2.5
총수입	2.5	3.3	4.4	3.8	2.7	2.2	2.4
경상수지(억달러)	1,000	479	752	1,231	798	902	1,700
상품수출(통관)	8.1	0.0	7.4	3.8	16.7	7.6	11.9
상품수입(통관)	-1.7	-1.5	1.5	0.0	7.6	4.9	6.2
GDP디플레이터	4.1	2.6	3.6	3.1	4.6	3.4	4.0
명목 국내총생산(GDP)	6.2	2.9	5.4	4.2	7.2	5.0	6.0
소비자물가	2.3	2.1	2.2	2.1	2.3	2.2	2.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NABO 2026년 생산 부문별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RGDP)	2.0	0.3	1.6	1.0	2.5	1.7	2.0
총부가가치	2.1	0.5	1.8	1.2	2.6	1.7	2.1
제조업	4.3	1.3	2.7	2.0	4.3	2.5	3.3
서비스업	1.6	1.0	2.4	1.7	2.1	1.3	1.7
건설업	-3.8	-11.6	-7.9	-9.5	-1.3	2.0	0.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3	1.4	-2.8	-0.5	2.7	1.9	2.2
기타	0.2	2.4	-0.3	1.0	1.8	1.5	1.6
순생산물세	1.3	-2.4	-0.1	-1.1	1.2	1.0	1.0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은 기타로 통합

2.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NABO 2026년 소득 부문별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총소득(GNI)	6.2	4.4			6.1		
피용자보수	5.2	3.6			4.6		
영업잉여	9.3	5.5			10.8		
고정자본소모	5.6	4.8			4.6		
순생산및수입세	5.5	2.2			5.1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4	24.0			11.0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6.2	4.4			6.1		
가계총처분가능소득	5.5	3.6			4.6		
1인당 국민총소득(만원)	5,012	5,242			5,550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만원)	2,774	2,878			3,002		
총저축률(%)	34.8	35.3			36.5		
취업자 수 증감(만명) (증감률)	15.9 (0.6)	18.1 (0.6)	20.6 (0.7)	19.3 (0.7)	19.1 (0.7)	15.7 (0.5)	17.4 (0.6)
고용률	62.7	62.6	63.1	62.9	62.8	63.2	63.0
실업률	2.8	3.1	2.5	2.8	3.1	2.8	2.9
임금상승률	2.9	3.6	2.6	3.1	3.5	3.0	3.3

주: 1. 소득 부문 변수는 모두 명목 기준임
 2. 2025년 음영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3. 2026년 1인당 소득은 NABO인구전망을 이용하여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NABO 2026년 지속성장 부문별 전망]

(단위: 전년대비, %, %p)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2.0			1.0			2.0
노동의 성장기여도	-0.2			-0.1			-0.1
자본의 성장기여도	0.9			0.8			0.8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1.3			0.3			1.3
잠재성장률	2.0			1.9			1.8
국고채(3년) 금리	3.1	2.5	2.6	2.6	3.1	2.9	3.0
국고채(10년) 금리	3.2	2.8	3.0	2.9	3.5	3.1	3.3
회사채(3년, AA-) 금리	3.7	3.1	3.1	3.1	3.7	3.4	3.5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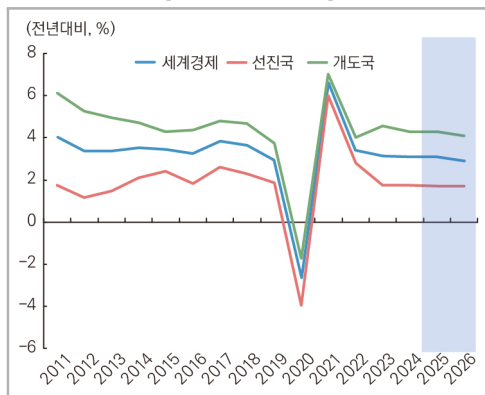
I. 동향

1. 세계 경제

□ 2026년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전년보다 소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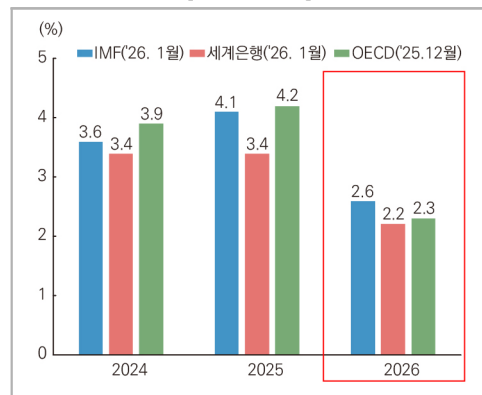
- 세계경제성장률은 2.9%, 세계교역량은 전년대비 2.4% 증가 예상
 - 세계 경제는 전년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나, 최근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
 - 선진국 경제는 유로존 등의 성장률 정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며 전년 수준(1.7%)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개도국 경제는 중국(5.0%→4.4%), 브라질(2.5%→1.6%) 등을 중심으로 전년(4.3%)보다 성장세가 둔화
 - 세계교역량은 무역장벽 강화 및 관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 가시화 등으로 증가세가 현저히 낮아질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자료: IMF('26.1월), 세계은행('26.1월), OECD 세계경제전망('25.12월)

[세계교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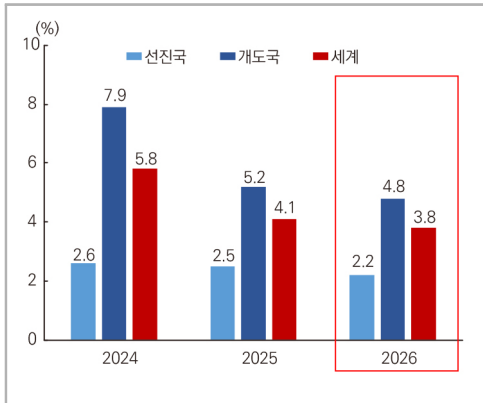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하락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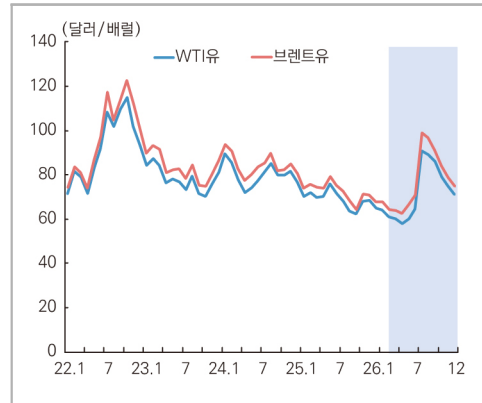
-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4.1%에서 2026년 3.8%로 둔화
 - 인플레이션 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전망이며, 중동사태의 상황 변화와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상방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
 - 선진국은 2025년 2.5%에서 2026년 2.2%로 주요국 중앙은행 목표치에 근접하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으로의 순조로운 진전이 예상
 - 개도국은 2025년 5.2%에서 2026년 4.8%로 하락할 전망이나,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
- 국제유가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배럴당 연평균 75달러 수준(전년(배럴당 69달러) 대비 9% 상승)으로 전제
 - 중동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 될 경우,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및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 존재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IMF('26.1월)

[국제유가]



자료: 미국 에너지관리청(EIA)

□ 글로벌 금융시장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단기 정책 금리 동결 상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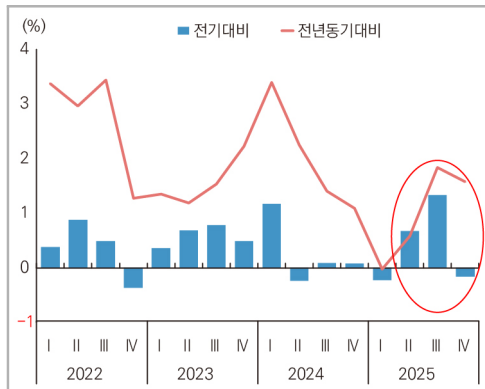
-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는 정부 지출 확대,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고, 각국 중앙은행의 단기 정책 금리는 동결 상태 지속
- 미국 달러화의 주요국 통화 대비 가치는 중동 지역 긴장 고도 등으로 최근 반등

2. 국내 경제

□ 2025년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수출도 증가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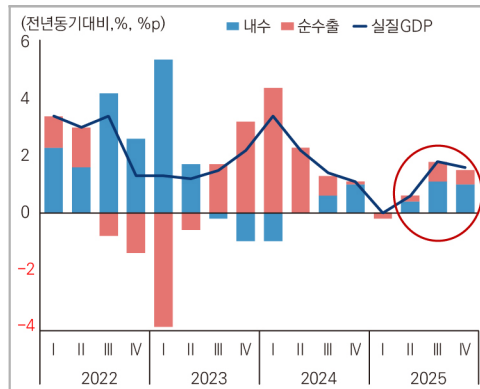
- 내수는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
 - 다만 건설투자는 부진이 장기화하며 내수경기 회복세를 제약
- 수출은 미국의 상호관세 등 세계교역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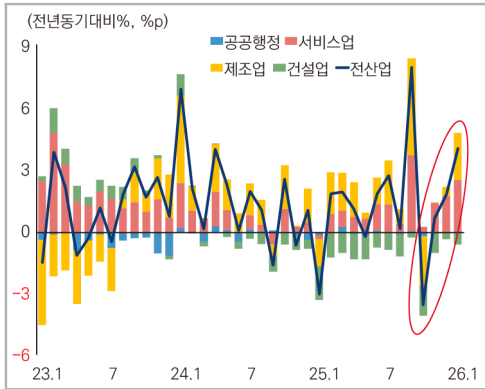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생산은 건설업의 부진에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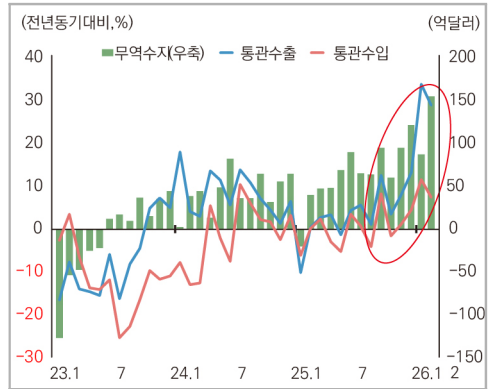
- 제조업은 반도체 등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
-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이 완화된 하반기 이후 상승 폭이 확대

[전산업 생산 증가율]



주: 전산업생산지수 구성항목에 2020년 명목 GDP 비중을 적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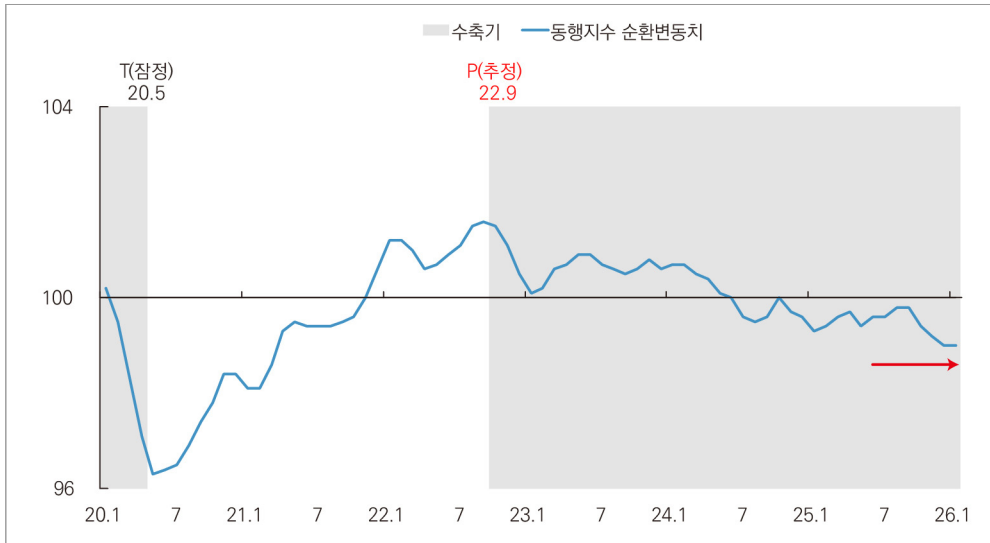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 경기는 서비스업과 수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며 상승 전환이 지연

- 다만 '26년 1월에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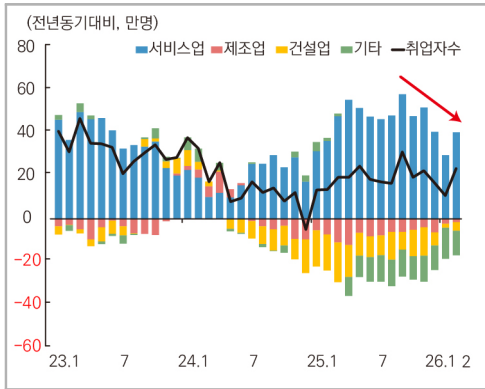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 물가는 물가안정목표 선을 중심으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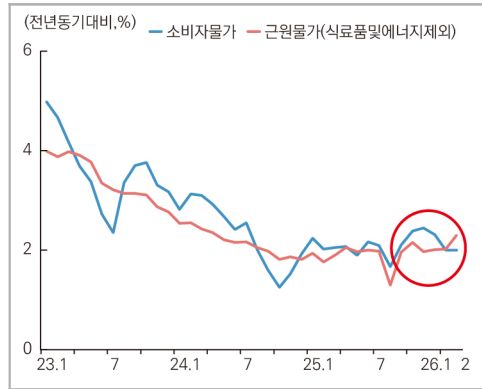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최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축소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 2% 선 위쪽에서 다소 불안한 움직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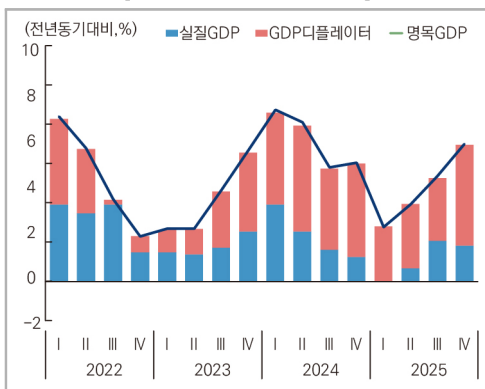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 명목GDP는 2025년 중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4.2%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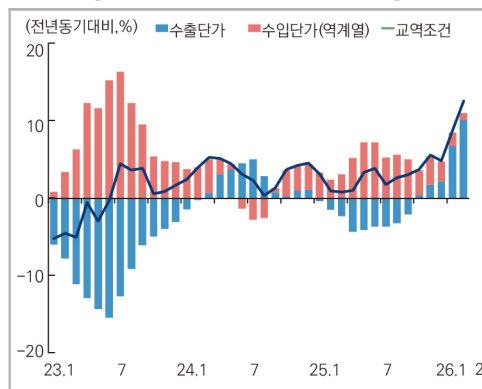
-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2025년 3.1% 증가
-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은 수입 원자재가격이 연중 하향 안정세를 보인 데다, 4분기 들어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개선 폭이 확대

[명목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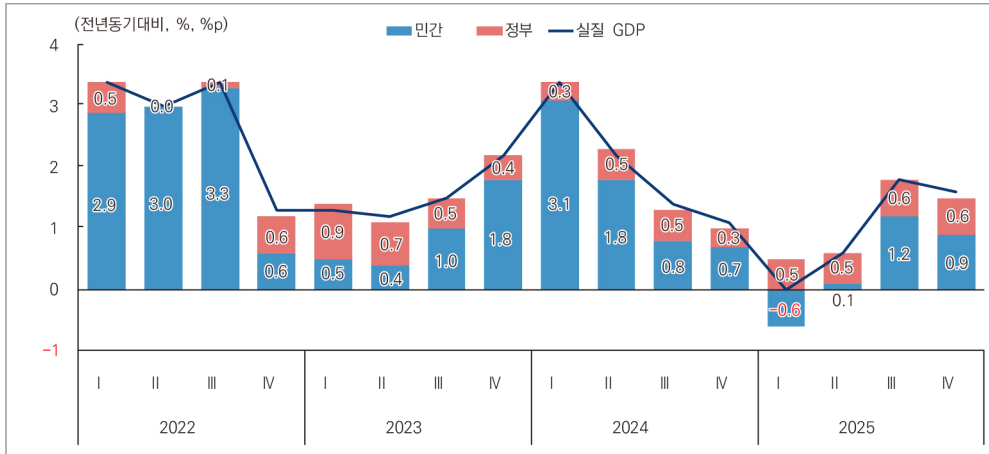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중 정부부문의 GDP성장률 기여도는 0.6%p로 상승

- 정부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 등에 힘입어 2024년 (0.4%p)에 비해 0.2%p 상승

[민간과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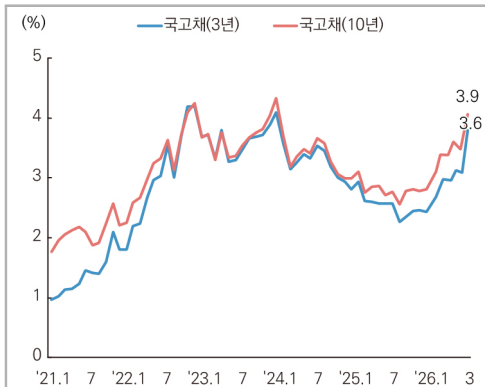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국고채 금리는 상승,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 중장기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와의 동조화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무역 불확실성 증가, 중동 지역 분쟁 확산 등으로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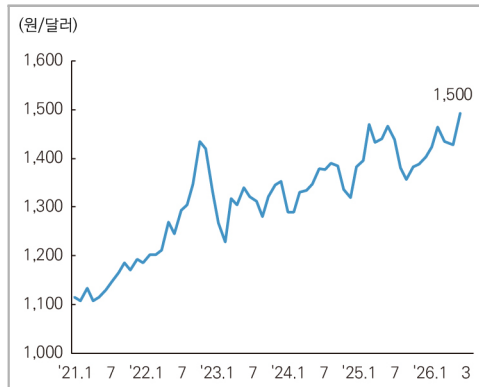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2026년 3월은 23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2026년 3월은 20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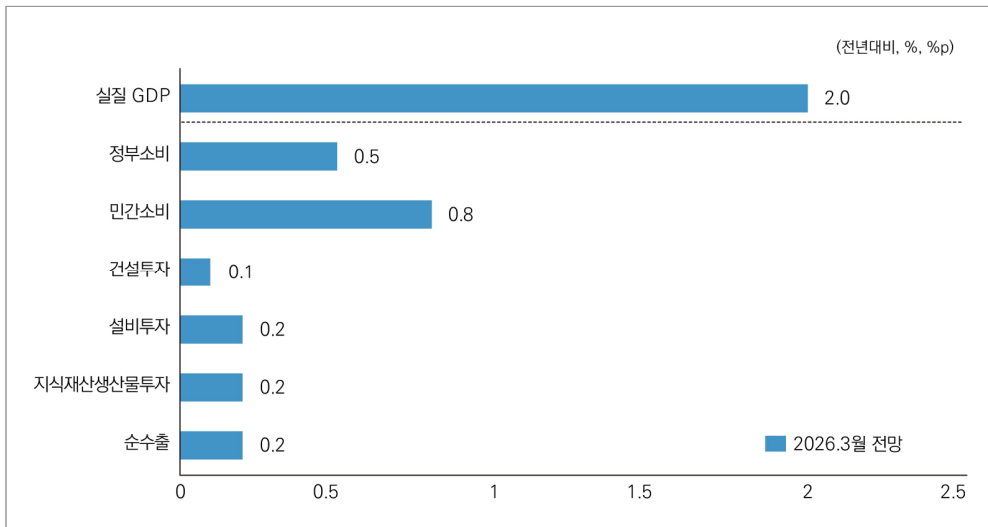
II. 지출전망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6년 실질GDP 성장률은 2.0%로 지난 전망(25.9월) 대비 0.1%p 상향

-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개선 효과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를 상쇄하여 직전 전망(1.7%) 수준을 유지
- 건설투자는 착공 부진, 미분양 누적 등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3.2%) 대비 2.4%p 하향 조정
- 설비투자는 AI 관련 반도체 수요 급증, 기계류 수입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1.7%) 대비 0.5%p 상향 조정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및 정부 R&D 예산의 확대 편성 등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3.1%) 대비 0.2%p 상향 조정
- 순수출은 AI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 효과를 반영하여 지난 전망 1.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고 순수입은 반도체 관련 자본재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 2.7%에서 2.4%로 하향 조정

[2026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부문별 전망

□ 2026년 국내 경제는 전년대비 2.0% 성장할 전망

- 2026년 실질GDP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
-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과 R&D 및 SOC 예산 확대 등으로 각각 3.0%, 2.0%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는 2025년 하반기 이후의 꾸준한 회복세가 이어지며 전년대비 1.7% 증가할 전망
- 민간투자는 1.9% 증가하여 2025년의 침체(-3.9%)에서 벗어날 전망
 - 유형별로는 건설투자가 0.8%, 설비투자가 2.2%,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3.3% 증가할 전망
- 총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불확실한 교역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에 힘입어 2.5% 증가할 전망
 - 총수입은 내수회복, 해외여행 증가 등의 요인으로 2.4% 증가할 전망
- 다만 증동 전쟁이 장기화하며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2~0.3%p 정도 하락할 가능성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며 원유수급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연중 지속될 가능성

□ 2026년 명목GDP는 전년대비 6.0% 성장할 전망

-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2025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실질GDP 1.0% → 2.0%, GDP디플레이터 3.1% → 4.0%)
- GDP디플레이터에 영향을 주는 교역조건(수출가격/수입가격)이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
 - 내수 디플레이터와 관련이 깊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2.3%로 전년에 비해 소폭 높아질 예상

[2026 국내경제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2.0	0.3	1.7	1.0	2.5	1.6	2.0
최종소비	1.4	1.2	2.3	1.8	2.4	1.6	2.0
민간소비	1.1	0.7	1.9	1.3	2.1	1.2	1.7
정부소비	2.1	2.4	3.5	3.0	3.0	2.9	3.0
총고정투자	-0.8	-3.9	-2.5	-3.2	1.1	2.7	1.9
주체별							
민간투자	-1.0	-4.9	-3.0	-3.9	0.9	2.8	1.9
정부투자	0.8	1.2	0.2	0.7	2.2	1.8	2.0
유형별							
건설투자	-3.3	-12.2	-7.3	-9.8	-1.0	2.5	0.8
설비투자	1.7	4.5	-0.4	2.0	1.9	2.6	2.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9	3.7	2.9	3.6	3.1	3.3
총수출	6.8	3.0	5.4	4.2	3.3	1.8	2.5
총수입	2.5	3.3	4.4	3.8	2.7	2.2	2.4
경상수지(억달러)	1,000	479	752	1,231	798	902	1,700
상품수출(통관)	8.1	0.0	7.4	3.8	16.7	7.6	11.9
상품수입(통관)	-1.7	-1.5	1.5	0.0	7.6	4.9	6.2
GDP디플레이터	4.1	2.6	3.6	3.1	4.6	3.4	4.0
소비자물가	2.3	2.1	2.2	2.1	2.3	2.2	2.3
명목 국내총생산	6.2	2.9	5.4	4.2	7.2	5.0	6.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6.2	2.9	5.4	4.2	7.2	5.0	6.0
실질국내총생산	2.0	0.3	1.7	1.0	2.5	1.6	2.0
GDP디플레이터	4.1	2.6	3.6	3.1	4.6	3.4	4.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026년 정부소비와 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3.0%, 2.0% 증가할 전망**

- 2026년 정부소비는 증가율이 2025년 수준을 유지하고, 정부투자는 전년(0.7%) 대비 1.3%p 높아질 전망
 -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년과 같은 증가세 지속
 - 정부투자는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와 철도부문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

□ **2026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할 전망**

- 2026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5년(1.3%)대비 0.4%p 증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개선이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며 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2026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8% 증가할 전망**

- 2026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5년(-9.8%) 대비 10.6%p 상승할 전망
 - 수주 대비 착공 지연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미분양 누적 등으로 증가세가 제한될 전망

□ **2026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2.2% 증가할 전망**

- 2026년 설비투자는 증가율이 2025년(2.0%) 대비 0.2%p 높아질 전망
 - AI 관련 반도체 수요 국내 자본재 수입액 및 기계 수주 등 주요 선행지표의 증가는 상방요인이나, 자본재 수입가격 상승 압력, 높은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

□ **2026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전년대비 3.3% 증가할 전망**

- 2026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증가율이 2025년(2.9%) 대비 0.4%p 높아질 전망
 - AI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와 정부 R&D 예산의 확대 편성은 전망의 상방요인이나, 연구개발 비용 상승과 콘텐츠 산업 성장세 약화는 하방요인으로 작용

□ **2026년 총수출(국민계정)은 전년대비 2.5% 증가할 전망**

- 2026년 총수출 증가율은 2025년(4.2%)대비 1.7%p 둔화될 전망
 - 반도체 수출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세계 교역량 증가율, 지정학적 위험 확대는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예상

□ **2026년 총수입(국민계정)은 전년대비 2.4% 증가할 전망**

- 2026년 총수입 증가율은 2025년(3.8%)대비 1.4%p 둔화될 전망
 -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상품수입이 증가할 예상이나 서비스 수입의 증가세가 완만해져 전년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

□ **2026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할 전망**

- 202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2.1%) 대비 0.2%p 상승할 전망
 -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글로벌 원유공급 안정 가능성,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 등으로 2%대 상승률 지속 전망

Ⅲ. 생산전망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6년 총부가가치(2.1%)는 지난 전망(1.9%)대비 0.2%p 상향 전망

-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3.3%)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 전망(1.5%) 대비 1.8%p 상향 조정
-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1.7%)는 2025년의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일부 개선되는 가운데 도소매업과 의료·보건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나, 지속되는 고환율과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중기 전망(2.0%)보다 0.3%p 하향 조정
-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0.3%)는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사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으로 인해 착공과 기성이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건설기업 체감경기(CBSI)도 크게 악화되면서 건설업 전반에서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 전망(0.6%)보다 0.3%p 하향 조정

[2026년 생산국민소득 수정 전망(전망 차이)]

(단위: %, %p)

	'25.9월 전망	'26.3월 전망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1.9	2.0	0.1
총부가가치	1.9	2.1	0.2
제조업	1.5	3.3	1.8
서비스업	2.0	1.7	-0.3
건설업	0.6	0.3	-0.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2	2.2	-2.0
기타	2.9	1.6	-1.3
순생산물세	1.8	1.0	-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부문별 전망

□ 2026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3% 증가할 전망

- 2025년 AI기반 고성능 반도체 수출의 급증을 기반으로 지난 9월 전망(1.5%) 대비 1.8%p 상향 조정
 -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AI 기반의 고부가가치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상방요인
 - 원가 상승,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장벽 강화, 중국발 공급과잉 및 기술 추격에 따른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는 하방요인
- 업종별 비교 시 양극화가 확대될 전망
 - (반도체) 2026년 세계 반도체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6.3% 성장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기(Structural Growth)에 진입
 - (자동차)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하고 친환경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은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자동차 시장 수요는 전년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화학) 세계 화학시장은 전년대비 1.9%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 침체 등에 따른 것으로 국내 석유화학 생산도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
 - (철강) 세계 철강 수요는 전년대비 1.3%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철강 수요는 건설·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0.6% 증가에 그치고 수출은 감소할 전망

□ 2026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7% 증가할 전망

- 반도체, AI 관련 등 설비 및 R&D 투자,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에 따른 도소매업의 수요 회복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 지속은 상방요인으로 작용
- 대출잔액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지속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의 누적, 높은 공사비 부담 등에 따른 착공 지연 등 하방요인으로 작용

□ 2026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3% 증가할 전망

- 2026년 SOC 예산이 확대되고 건설수주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누적된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인하여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의 증가세는 제약될 것으로 예상
- 건설수주가 증가함에도 건축착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두 지표 간 괴리의 확대는 건설기성과 건설투자 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서 개선이 더디게 진행

IV. 소득전망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6년 명목 국민총소득(GNI) 증가률은 6.1%로 지난전망(25.9월)에 비해 2.5%p 상향

-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영업잉여가 큰 폭 상향 조정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투자소득 증가에 따른 수지 흑자 확대가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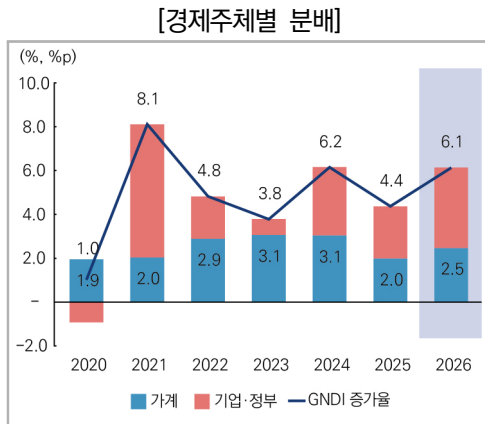
□ 2026년 고용 및 임금상승률은 최근 고용 동향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고용 동향 등을 반영하여 중기전망 대비 1.4만 명 상향 조정된 17.4만 명으로 전망
- 임금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하여 3.2%에서 3.3%로 0.1%p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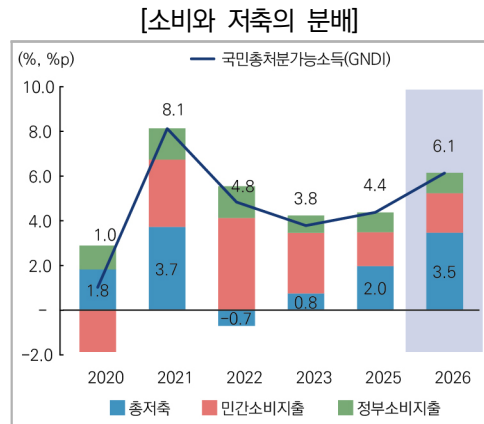
2. 부문별 전망

□ 2026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6.1% 증가할 전망

- 2026년 GNI 증가율은 2025년(4.4%)대비 큰 폭 증가할 전망으로 반도체 등 수출 산업의 수익여건 개선과 빠른 기업이익 회복이 반영된 결과임
 - 다만 이러한 영업잉여 확대는 장기적인 소득분배 구조의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최근 수익성 증가에 따른 단기 변동의 성격이 강함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도 6.1% 증가할 전망이나,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4.6% 증가에 그쳐 가계의 소득 개선 속도는 국민 전체에 비해 다소 완만할 전망
 - 2026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5,550만원,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3,002만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5.9%와 4.3% 증가할 전망
- 총저축률은 36.5%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하여 빠르게 증가한 소득이 가계 소비나 설비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저축으로 남아 분배에 시차가 예상됨
 - 총저축 확대는 향후 투자재원 확충과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향후 시차를 두고 임금배당소비 등으로 순환될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2026년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4.6% 증가할 전망

- 2025년 대비 높게 전망되는 2026년 명목임금상승률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

□ 2026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10.8% 증가할 전망

- 수출 회복 및 반도체 업황 개선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나 관세정책 및 환율 변동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 존재

□ 2026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대비 4.6% 증가할 전망

- 실질 건설투자 급감(-9.8%) 등 고정자산 형성 부진에 따라, 2026년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은 4.6% 수준으로 완만해질 전망

□ 2026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전년대비 5.1% 증가할 전망

- 2026년에는 내수 회복과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 여건이 개선되고 증권거래세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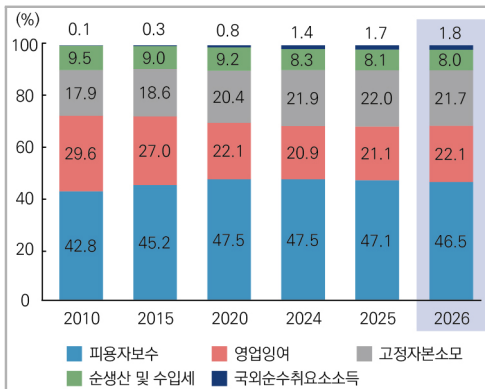
[2026 국민총소득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24	2025	2026
국민총소득(GNI)	6.2	4.4	6.1
피용자보수	5.2	3.6	4.6
영업잉여	9.3	5.5	10.8
고정자본소모	5.6	4.8	4.6
순생산및수입세	5.5	2.2	5.1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4	24.0	11.0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6.2	4.4	6.1
가계총처분가능소득	5.5	3.6	4.6
1인당 국민총소득(만원)	5,012	5,242	5,550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만원)	2,774	2,878	3,002
총저축률(%)	34.8	35.3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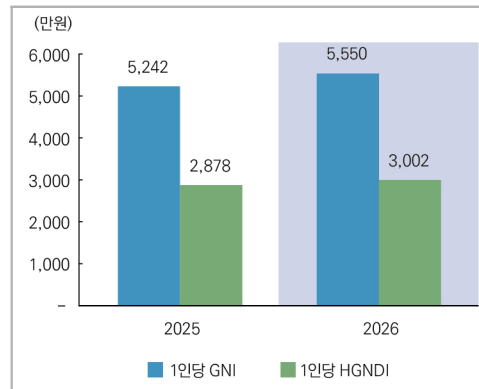
주: 1. 소득 부문 변수는 모두 명목 기준임
 2. 2025년 음영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민총소득의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1인당 국민소득(명목)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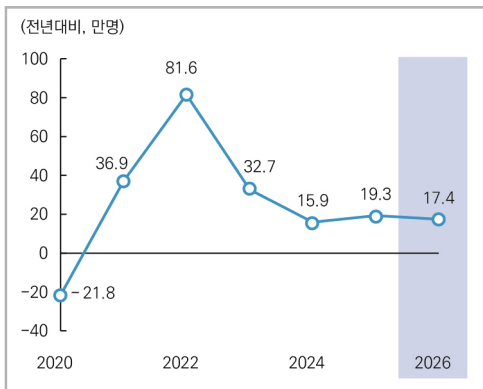
□ 2026년 취업자 수는 17.4만 명(0.6%)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 회복세,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취업자 수는 17.4만 명 증가, 고용률은 63.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여성과 고령층 중심으로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보다 빠르게 늘어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2.9%로 전망

□ 2026년 명목임금상승률은 3.3%를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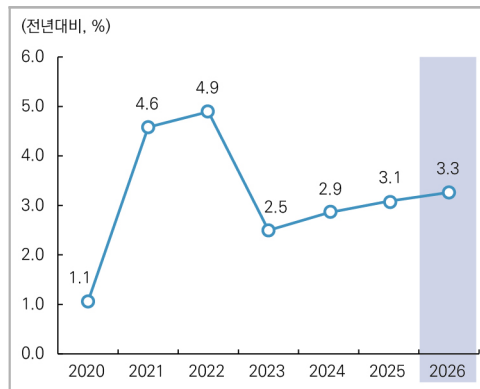
- 2025년 3.1% 대비 0.2%p 증가 예상
- 제도적 요인(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회복에 따른 노동수요 확대는 상방 요인, 실업률 상승, 구인배수(신규구인/신규구직) 하락 등 고용지표 둔화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취업자 수 증감 전망]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임금상승률 전망]



자료: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

V. 지속성장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지난 전망(25.9월) 수준을 유지

- 잠재성장률의 전망은 2025~2029년 중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의 전망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29년 중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의 전망치에 유의미한 변경이 없어 기존 전망수준을 유지

□ 2026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기타요소 기여도는 0.1%p 상향

-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는 각각 -0.1%p, 0.8%p로 2025년 9월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2026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0.1%p 상승한 1.3%p로 전망

□ 2026년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와의 동조화 등에 따라 상향

-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세,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글로벌 금리와의 동조화, 중동 전쟁 등을 고려하여 2025년 9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
-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지난 전망 대비 상향된 각각 3.0%, 3.3%, 3.5%로 전망

2. 부문별 전망

□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전망

- 2026년 잠재성장률은 2025년(1.9%) 대비 0.1%p 감소할 전망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는 잠재성장률의 하방요인,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는 상방요인으로 작용
 -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설비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는 잠재성장률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 AI의 도입과 활용,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은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잠재성장률의 상방요인으로 작용

- 2026년 잠재성장률(1.8%)이 실질성장률(2.0%)에 비해 낮지만, 실질GDP가 잠재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제전체의 수요압력인 GDP갭은 소폭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
 - GDP갭은 잠재GDP 수준 대비 실질GDP 수준의 비율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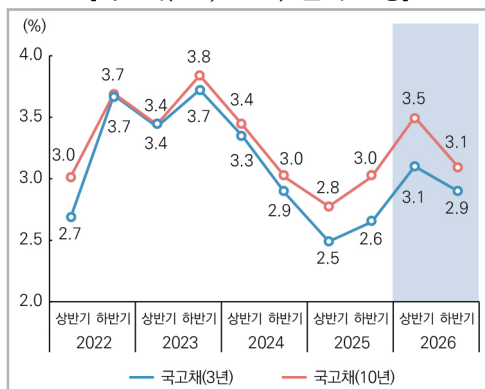
□ 2026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각 생산요소의 기여도는 노동 -0.1%p, 자본 0.8%p, 기타요소 1.3%p로 전망

-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총노동투입량 감소세가 지속(취업자 수 증가에도 근로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2025년과 동일한 -0.1%p를 기록할 전망
-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AI·반도체 산업 중심의 투자 확대에도,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로 전년과 동일한 0.8%p를 유지할 전망
-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2026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을 반영하여 2025년 9월 전망 대비 0.1%p 상승한 1.3%p로 전망

□ 2026년 국고채(3년, 10년) 금리는 각각 3.0%, 3.3%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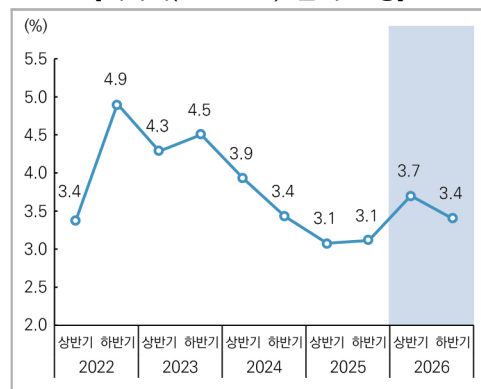
- 2026년 국고채(3년, 10년) 금리는 전년 대비 모두 0.4%p 상승 전망
 - 국고채(3년, 10년) 금리는 중동 지역 분쟁 등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하반기 소폭 하락할 전망
- 2026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전년 대비 0.4%p 상승 전망

[국고채(3년, 10년) 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회사채(3년 AA-) 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 차례 ◀

제Ⅰ부 동향

제1장 세계 경제	1
제2장 국내 경제	25

제Ⅱ부 지출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53
제2장 부문별 전망	55

제Ⅲ부 생산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99
제2장 부문별 전망	101

제Ⅳ부 소득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137
제2장 부문별 전망	140

제Ⅴ부 지속성장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165
제2장 부문별 전망	168

▶ BOX 차례 ◀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18
[BOX 2] 품목별·지역별 수출	33
[BOX 3] 전문·과학·기술업 고용 동향: 통계 출처에 따른 차이	38
[BOX 4] 주식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	46
[BOX 5] 중동 전쟁 장기화 위험과 우리경제 영향	59
[BOX 6]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설비투자의 영향	78
[BOX 7] 환율 수준별 소비자물가 전가 효과 분석	94
[BOX 8] 국가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 1인당 GNI와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HGNDI)	158
[BOX 9] AI가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173

▶ 표 차례 ◀

제 I 부

[표 I-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8
[표 I-2] 글로벌 관세 도입에 따른 미국 관세율 변화	12

제 II 부

[표 II-1] 2026년 지출국민소득 수정 전망	54
[표 II-2] 2026 국내경제전망	58
[표 II-3] 명목GDP 성장률 전망	58
[표 II-4] 2026년도 국회 확정예산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현황	64
[표 II-5] 2026년 정부소비 전망	65
[표 II-6] 2026년도 12대 분야별 확정예산 현황	66
[표 II-7] 2026년 정부투자 전망	67
[표 II-8] 2026년 SOC 부문별 예산	72
[표 II-9] 지역별 신산업 부문 공장 건설 계획	73
[표 II-10]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92

제Ⅲ부

[표 Ⅲ-1] 2026년 생산국민소득 수정 전망(전망 차이)	100
[표 Ⅲ-2]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107
[표 Ⅲ-3] 세계 IT 시장 규모 전망	108
[표 Ⅲ-4] 집적회로(IC) 부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109
[표 Ⅲ-5] 세계 철강 수요전망	121
[표 Ⅲ-6] 철강 수출 현황 및 전망	124

제Ⅳ부

[표 Ⅳ-1] 2026년 국민총소득 수정 전망	138
[표 Ⅳ-2] 2026년 고용 및 임금 수정 전망	139
[표 Ⅳ-3] 국민총소득(GNI) 성장률 및 구성비	143
[표 Ⅳ-4] 최근 3개년 국제 수입 실적	153

제Ⅴ부

[표 Ⅴ-1] 2026년 성장부문 수정전망	166
[표 Ⅴ-2] 노동의 실질GDP 성장기여도 전망	177
[표 Ⅴ-3] 자본의 실질GDP 성장기여도 전망	178
[표 Ⅴ-4] 기타요소의 실질GDP 성장기여도 전망	179

▶ 그림 차례 ◀

제 I 부

[그림 I -1] 세계 산업생산과 세계 상품교역량 추이	1
[그림 I -2] OECD 경기선행지수	2
[그림 I -3]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 PMI	3
[그림 I -4] 선진국과 개도국 서비스업 PMI	3
[그림 I -5]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3
[그림 I -6] 주요국 정책금리	3
[그림 I -7]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4
[그림 I -8] 국제유가 추이	4
[그림 I -9]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5
[그림 I -10] 선진국과 개도국 성장률 전망	5
[그림 I -11] IMF의 2026년 세계경제 전망 변화 추이	6
[그림 I -12] 세계교역량 전망	9
[그림 I -13] 선진국과 개도국 교역량 전망	9
[그림 I -1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10
[그림 I -15] 세계 불확실성 지수(WUI)	11
[그림 I -16] VLCC 운임 변동 추이	13
[그림 I -17] 전세계 AI 시장 규모 전망	14
[그림 I -18] 반도체 수출액과 비중	14
[그림 I -19] 국제유가 전망(EIA)	15
[그림 I -20] 석유수급 전망	15
[그림 I -21] 일별 OPEC 원유 가격 추이	16
[그림 I -22] 국제유가 연별 추이	17

[그림 I -23]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20
[그림 I -24] 글로벌 국제(10년) 금리 추이	20
[그림 I -25]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21
[그림 I -26] 달러인덱스 추이	21
[그림 I -27] 실질GDP 성장률 추이	25
[그림 I -28]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26
[그림 I -29]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26
[그림 I -30] 명목GDP 성장률 추이	27
[그림 I -31] 전산업 생산 증가율	27
[그림 I -32]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27
[그림 I -33]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28
[그림 I -34]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28
[그림 I -35]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29
[그림 I -36]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29
[그림 I -37]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29
[그림 I -38]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30
[그림 I -39] 개인서비스와 민간소비	30
[그림 I -40]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31
[그림 I -41]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31
[그림 I -42]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32
[그림 I -43]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32
[그림 I -44] 품목별 수출단가 추이	32
[그림 I -45] 글로벌 반도체 가격지수 추이	32
[그림 I -46] 경상수지 추이	34
[그림 I -47]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34
[그림 I -48] 출입국자 수 추이	35

[그림 I -49] 주요 해상운임지수 추이	35
[그림 I -50] 취업자 수 증감	36
[그림 I -51]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36
[그림 I -52] 보건·사회복지업 및 전문·과학·기술업 취업자 수 증감	37
[그림 I -53]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증감	37
[그림 I -54] 월평균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40
[그림 I -55] 상용명목임금상승률 기여도	40
[그림 I -56]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41
[그림 I -57]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41
[그림 I -58]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41
[그림 I -59]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42
[그림 I -60]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	42
[그림 I -61] 회사채 금리 추이	43
[그림 I -62]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43
[그림 I -63] 예금은행 원화예금 종류별 증가율	44
[그림 I -64] 투자자예탁금 추이	44
[그림 I -65] 원/달러 환율 추이	45
[그림 I -66]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45

제II부

[그림 II-1] 2026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54
[그림 II-2]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56
[그림 II-3]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전망	56
[그림 II-4] 실질성장률과 명목성장률	57
[그림 II-5]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57

[그림 II-6] 중앙정부 경상지출 추이	63
[그림 II-7]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액 추이	63
[그림 II-8] 실질정부소비 분기별 추이	64
[그림 II-9] 2026년도 국회 확정예산	64
[그림 II-10] 실질정부투자 분기별 추이	65
[그림 II-11] 중앙정부 자본지출 추이	65
[그림 II-12] 정부소비디플레이터	67
[그림 II-13] 정부투자디플레이터	67
[그림 II-14] 민간소비 추이	69
[그림 II-15] 재화형태별 소비 추이	69
[그림 II-16]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69
[그림 II-17] 임금 추이	69
[그림 II-18] 용도별 가계신용 추이	70
[그림 II-19] 국내은행 대출행태서베이	70
[그림 II-20] 실질GDI 및 소득교역조건	70
[그림 II-21] 국제유가 및 코스피 변동성	70
[그림 II-22] 건설투자 추이	71
[그림 II-23] 향후 5년('26년~'30년)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계획	73
[그림 II-24] 건설수주 및 건축착공면적 추이	73
[그림 II-25] 건설공사비지수 추이	73
[그림 II-26]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이	74
[그림 II-27]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이(지역별)	74
[그림 II-28]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76
[그림 II-29] 자본재 수입액 추이	76
[그림 II-30] 기계류 수입액 추이	76
[그림 II-31]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76

[그림 II-32]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본지출 증가율	77
[그림 II-33] 세계 반도체 유형별 생산능력 전망	77
[그림 II-34] 자본재 수입물가 및 환율	77
[그림 II-35] 무역정책 불확실성	77
[그림 II-36]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83
[그림 II-37]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83
[그림 II-38] 전 세계 IT 지출 전망	84
[그림 II-39] 정부 R&D 예산 추이	84
[그림 II-40] 수출 전망	86
[그림 II-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86
[그림 II-42] 품목별 수출물량지수	86
[그림 II-43] 외국인 관광객 수 및 수입	86
[그림 II-44] 수입 전망	87
[그림 II-45] 재화 및 서비스 수입	87
[그림 II-46] 통관수출액 추이	87
[그림 II-47] 국제유가와 주요 에너지원 수입	87
[그림 II-48] 경상수지	88
[그림 II-49] 증권투자수지 추이	88
[그림 II-50]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추이	89
[그림 II-51] 국제유가 추이	90
[그림 II-52]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이	90
[그림 II-53] 근원 상품 및 근원 서비스물가 모멘텀	91
[그림 II-54] 세계 원유 생산량	92
[그림 II-55] 내수 성장률 추이	93
[그림 II-56] 소비자심리지수	93

제3부

[그림 Ⅲ-1] 2026년 생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 기여도	100
[그림 Ⅲ-2]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102
[그림 Ⅲ-3]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103
[그림 Ⅲ-4] 주요 무역 상대별 수출액 비중 추이	104
[그림 Ⅲ-5] 반도체자동차 수출액 증감액과 비중 추이	105
[그림 Ⅲ-6] 제조업 생산 증감률 추이	106
[그림 Ⅲ-7] 제조업 출하와 재고 증감률 추이	106
[그림 Ⅲ-8] 반도체 출하와 재고 증감률 추이	106
[그림 Ⅲ-9] 자동차 출하와 재고 증감률 추이	106
[그림 Ⅲ-10] 파운드리 매출액 추이	110
[그림 Ⅲ-11] 파운드리 매출액 점유율 추이	110
[그림 Ⅲ-12]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과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 추이	111
[그림 Ⅲ-13] 자동차 내수시장 전망	112
[그림 Ⅲ-14] 자동차 수출 전망	113
[그림 Ⅲ-15] 분기별 미국 전기자동차 판매	114
[그림 Ⅲ-16] 세계 화학시장 규모	116
[그림 Ⅲ-17] 세계 화학생산 비중	117
[그림 Ⅲ-18] 국가별 화학 제품 수출입 비중	117
[그림 Ⅲ-19] 석유화학 생산액	118
[그림 Ⅲ-20] 석유화학 수출입	118
[그림 Ⅲ-21] 정밀화학 생산액	119
[그림 Ⅲ-22] 정밀화학 수출입	119
[그림 Ⅲ-23] 철광석 가격 추이	123
[그림 Ⅲ-24] 원료탄 가격 추이	123

[그림 Ⅲ-25]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감률 전망	126
[그림 Ⅲ-26]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126
[그림 Ⅲ-27] 도소매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127
[그림 Ⅲ-28] 국내 자동차 내수 및 수출 전망	127
[그림 Ⅲ-29] 보건사회복지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128
[그림 Ⅲ-30] 보건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128
[그림 Ⅲ-31] 건강보험재정	128
[그림 Ⅲ-32] 건강보험보장률	128
[그림 Ⅲ-33] 대출 잔액	129
[그림 Ⅲ-34] 시장금리	129
[그림 Ⅲ-35] 공공 건설수주	131
[그림 Ⅲ-36] 민간 건설수주	131
[그림 Ⅲ-37] 건축수주와 건축착공 간 격차	131
[그림 Ⅲ-38] 건설공사비지수	132
[그림 Ⅲ-39] 주택 미분양	132
[그림 Ⅲ-40] 종합 건설경기실사지수	133
[그림 Ⅲ-41] 2026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133

제Ⅳ부

[그림 Ⅳ-1] 2026년 국민총소득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138
[그림 Ⅳ-2] 국민총소득 성장률 전망	141
[그림 Ⅳ-3] 본원소득수지	142
[그림 Ⅳ-4] 투자소득수지	142
[그림 Ⅳ-5] 장단기 체류외국인	142
[그림 Ⅳ-6]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142
[그림 Ⅳ-7]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추이	143

[그림 IV-8] 주요 사회보험 직장가입률	145
[그림 IV-9]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추세	145
[그림 IV-10]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147
[그림 IV-11] 영업잉여 및 GDP 대비 비중	147
[그림 IV-12] 2026년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147
[그림 IV-13] 자산별 감가상각률 비교	149
[그림 IV-14] 고정자산 중 지식재산생산물 비중	149
[그림 IV-15] 순고정자산 중 건설자산 비중	150
[그림 IV-16] 건설자산형성 증가율 추이	150
[그림 IV-17]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추이	151
[그림 IV-18] 순생산 및 수입세와 명목 GDP 대비 비중	154
[그림 IV-19] 경제주체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추이	156
[그림 IV-20] 소비와 저축의 분배	157
[그림 IV-21] 저축률 추이	157
[그림 IV-22] 1인당 국민소득(명목) 전망	157
[그림 IV-23] 1인당 국민소득(실질) 추이	157
[그림 IV-24]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162
[그림 IV-25] 내수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162
[그림 IV-26] 실업률	162
[그림 IV-27]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	162

제V부

[그림 V-1] 2026년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실질 경제성장률 기여도 전망 비교	165
[그림 V-2] 취업자 수 증가 및 주당평균노동	169
[그림 V-3] 총노동투입량 추이 및 추세	169
[그림 V-4] 총생산자본스톡 및 증가율 추이	170
[그림 V-5]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의 투입요소별 기여도 추이	171
[그림 V-6] 실질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	172
[그림 V-7] GDP갭 추이	172
[그림 V-8] 주요 품목별 2026년 2월 수출 증감률	182

2026년 NABO 경제전망

I

동향

제1장 | 세계 경제

제2장 |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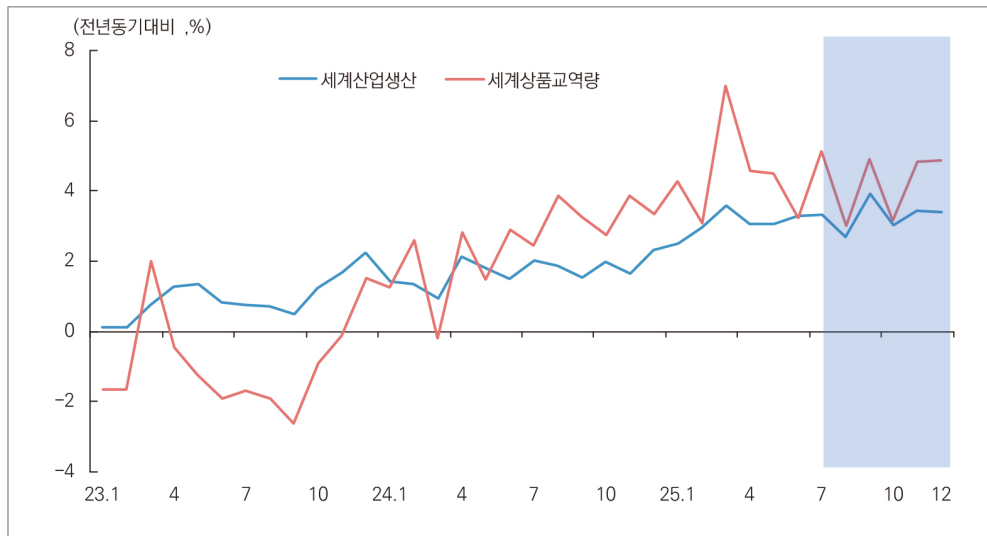
제1장 세계 경제

제1절 동향

- **세계 경제**는 관세 충격,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안정세지만 둔화 흐름 약화
-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 중동 지역에서 불안 요인 고조

최근 세계 경제는 산업생산과 상품교역이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산업생산¹⁾은 2025년 하반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중국 등 개도국은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세계 상품교역량²⁾은 관세충격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I-1] 세계 산업생산과 세계 상품교역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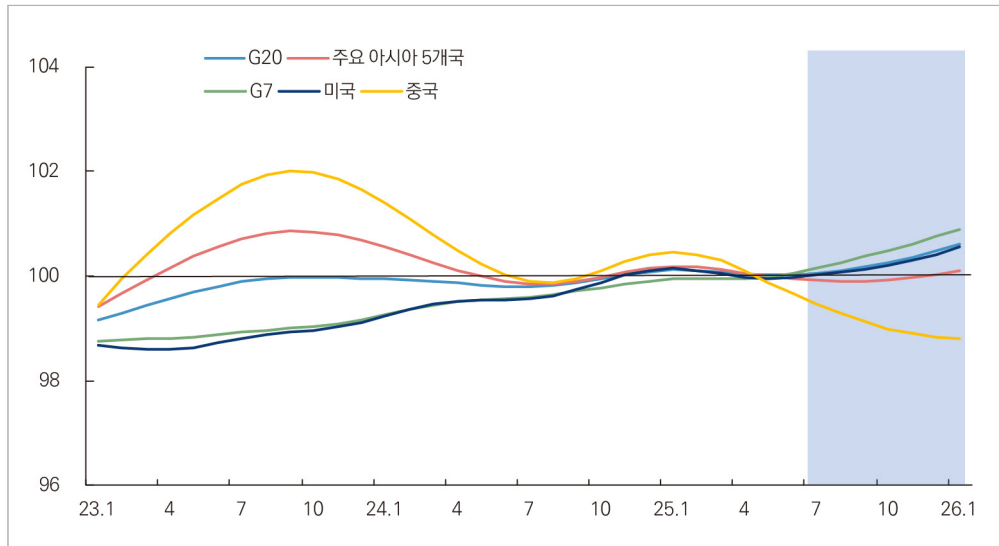
자료: CPB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 1) 세계산업생산(전년동기대비, %): ('25년 상반기) 세계 3.1, 선진국 1.4, 개도국 4.5→('25년 하반기) 세계 3.3, 선진국 2.1, 개도국 4.3
- 2) 세계상품교역량은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4.4%, 하반기에는 4.3% 증가하였다.

주요 월간 경기선행지표인 OECD 경기선행지수와 세계 PMI는 선진국과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6~9개월 선행)는 2025년 하반기 이후 미국 등 G7 선진국은 상승 흐름이나, 중국은 2025년 4월 이후 기준치(100)를 밑돌며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그림 1-2]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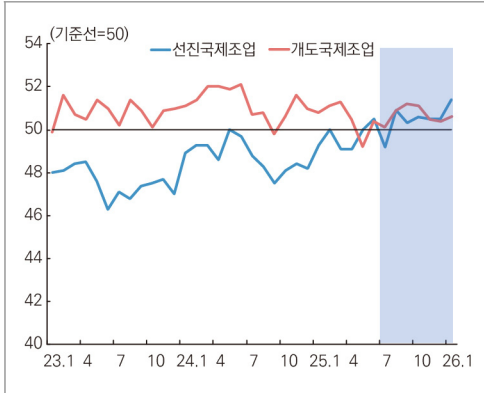


주: 주요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자료: Bloomberg, CEIC

세계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³⁾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기준선(50)을 상회하고 있다. 제조업 PMI는 개도국에서 최근 들어 주춤한 가운데 선진국에서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비스업 PMI는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선(50)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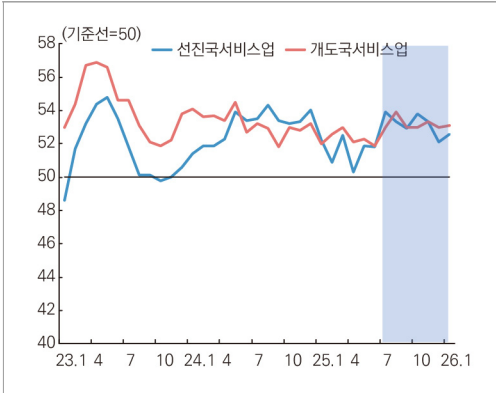
3)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확장을,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한다.

[그림 I-3] 선진국과 개도국 제조업 PMI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S&P Global,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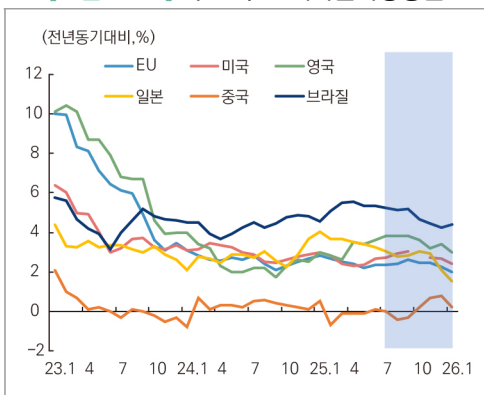
[그림 I-4] 선진국과 개도국 서비스업 PMI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S&P Global, Bloomberg,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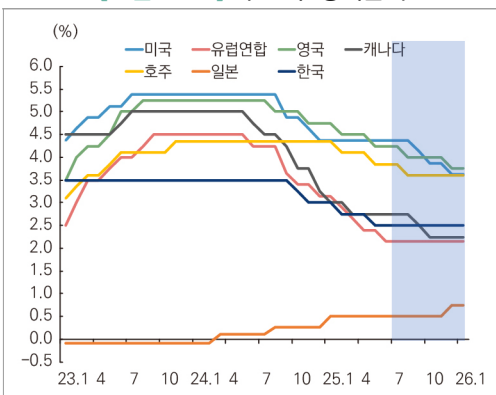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최근 들어 불안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2025년 중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자재가격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 등으로 완만한 내림세를 이어왔으며, 이에 따라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4년 5.8%에서 2025년 4.1%로 하락하였다.⁴⁾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였다. 다만, 일본은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로 전환하였다.

[그림 I-5] 주요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Bloomberg, CEIC, IMF

[그림 I-6] 주요국 정책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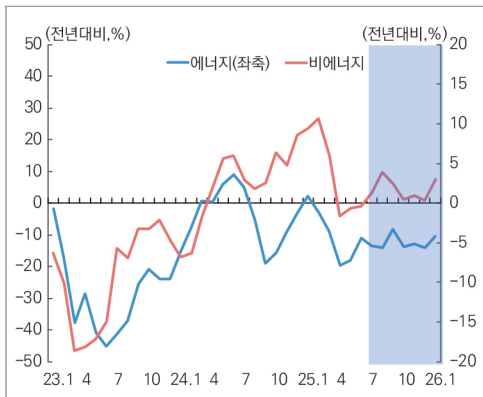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CEIC

4) 소비자물가상승률(%): 선진국 2024년 2.6%→2025년 2.5%, 개도국 2024년 7.9%→2025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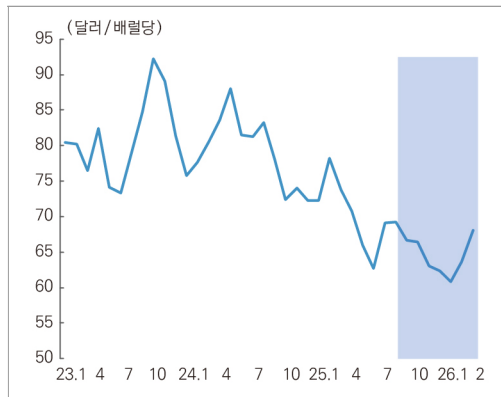
국제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주요국 수요 둔화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최근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원유 등을 중심으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하반기 전년동기대비 14.0% 하락(2024년 하반기 배럴당 75.4달러→2025년 하반기 64.8달러)하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월 중에는 내림세가 둔화되고 상승 전환되었었고,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3월 초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며 급등하였다.

[그림 I-7] 국제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ommodity Price Data

[그림 I-8] 국제유가 추이



주: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 현물가격
단순 평균 기준

자료: 세계은행 Commodity Pric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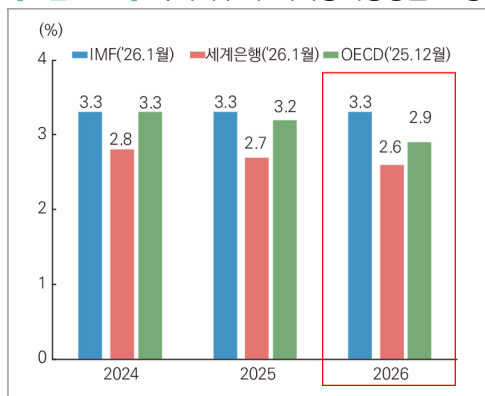
제2절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9%,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2.4%로 전제
- 세계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

1. 세계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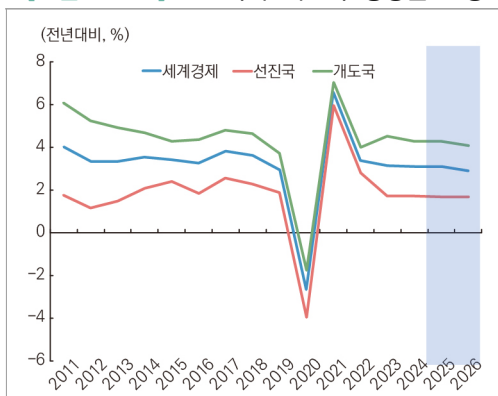
2026년 세계 경제는 전년의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IMF(‘26.1월)와 세계은행(‘26.1월)은 최근 세계경제 전망에서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 대비 각각 0.2%p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급증, 2025년 하반기 무역 갈등의 일시적 완화⁵⁾, 예상보다 견조한 미국의 재정 부양 효과 등을 들었다. IMF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여 올해 세계경제가 전년과 동일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 반면, 세계은행과 OECD는 구조적 저성장 고착화와 무역장벽 강화 지속 등을 우려하며 전년대비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9]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그림 I-10] 선진국과 개도국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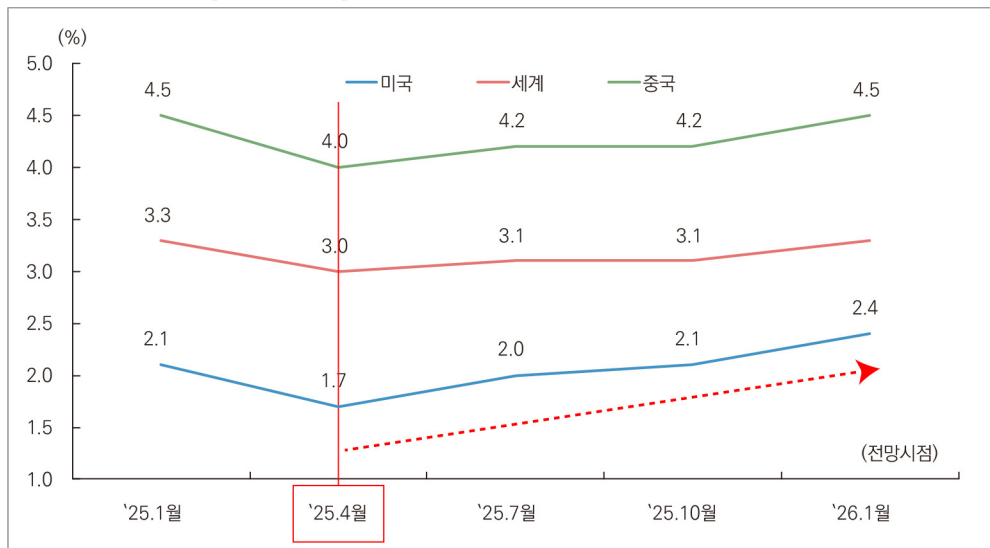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황중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5)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정점에 달하였던 무역 갈등은 11월 미·중 간의 일시적 무역 휴전(trade truce)과 관세율 인하 조치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4월 관세 충격 이후 미국 경제 상황과 전망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4월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재정지원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며 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의 주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I-11] IMF의 2026년 세계경제 전망 변화 추이



자료: IMF, WEO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치에 근거한 세계경제성장률은 2025년 3.1%에서 2026년 2.9%(선진국 1.7%, 개도국 4.1%)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제는 유로존, 영국, 일본 등의 성장률 정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며 전년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견실한 소비와 기업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25년 2.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6년에도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인프라 확충, 첨단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 산업 지원책 등이 내수경기를 뒷받침하며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유로 지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전망(1.2%)에 비해 0.1%p 상향 조정되었으나, 2025년(1.4%)에 비해 소폭 둔화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경제가 2025년에는 역성장에서 벗어났으나,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26년 1.1% 성

장에 그칠 전망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높은 공공부채 부담 등으로 재정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내수 위축을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⁶⁾이 상반된 효과로 작용하며 2026년에는 0.8%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개도국 경제는 중국(5.0%→4.4%), 브라질(2.5%→1.6%) 등을 중심으로 전년(4.3%)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25년 부동산경기 부진과 대미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다변화 전략에 힘입어 미국외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며 예상을 상회하는 5.0%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6년에는 내수진작과 산업고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조업 부양책⁷⁾에 힘입어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⁸⁾ 인도는 2025년 성장률 추정치가 직전 전망치 6.6%에서 7.1%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2026년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6.4%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와 공공투자 확대,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여타 개도국과 차별화된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⁹⁾와 글로벌 원자재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2025년 2.3%에서 2026년 1.6%로 하락할 전망이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비석유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내수 확대 등으로 성장률이 2025년 3.7%에서 2026년 3.9%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6) 2025~2026 회계연도에 걸쳐 경기부양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약 21조 3,000억엔(약 200조원) 규모의 경제 부양책이 승인되었다.

7) 중국의 제조업 부양책은 '양신(兩新·Two New)' 정책으로 불리는 설비 갱신과 소비재 이구환신에 집중되어 있다. 설비갱신은 공장과 기업이 노후 설비를 새것으로 바꾸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구환신은 제조업체의 재고 소진 및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현 물건을 주고 새것을 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년 초에 625억 위안(약 12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인민은행은 재대출 금리를 0.25%p 인하하였다.

8) 2025년 11월 합의된 미국과의 무역 휴전(펜타닐 관세 인하(10%p), 상호관세 및 수출 통제 유예)과 예상보다 낮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등으로 대미 수출 감소폭도 크지 않았다. 2025년 8~12월 월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330~340억 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9) 브라질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지난 2025년 6월 이후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 전년동월대비 5.4%에서 12월 4.3%로 하락하여 중앙은행 목표치인 4.5%를 하회하였다.

[표 I-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2024	2025	2026	
			이번 전망	(직전대비 수정폭)
세계경제성장률	3.1	3.1	2.9	(0.1)
선진국	1.8	1.7	1.7	(0.2)
미국	2.8	2.2	2.1	(0.4)
유로지역	0.9	1.4	1.1	(0.1)
독일	-0.5	0.2	1.1	(0.2)
프랑스	1.2	0.8	1.0	(0.2)
이탈리아	0.7	0.5	0.7	(-0.1)
영국	1.1	1.4	1.3	(0.0)
일본	-0.2	1.1	0.8	(0.2)
개도국	4.3	4.3	4.1	(0.2)
중국	5.0	5.0	4.4	(0.2)
인도	6.5	7.1	6.4	(0.1)
러시아	4.3	1.0	0.8	(-0.2)
브라질	3.4	2.3	1.6	(-0.3)
중동·중앙아시아	2.7	3.7	3.9	(0.1)

주: 1. 2026년의 세계경제성장률, 미국, 유로지역, 독일, 영국, 일본, 중국, 인도는 IMF('26.1월), OECD('25.12월), 세계은행('26.1월) 전망치 평균

2. 선진국과 개도국은 IMF('26.1월), 세계은행('26.1월)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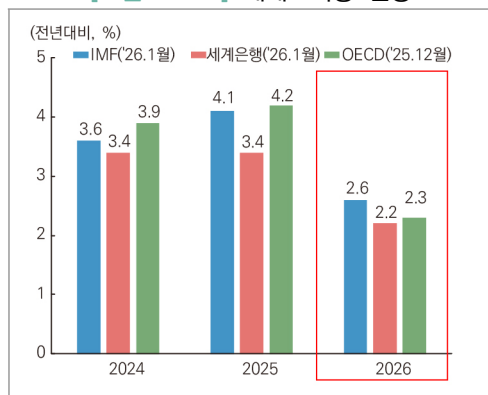
3. 러시아, 브라질, 중동·중앙아시아는 IMF('26.1월) 전망치

자료: IMF('26.1월), OECD('25.12월), 세계은행('26.1월) 세계경제전망

2. 세계교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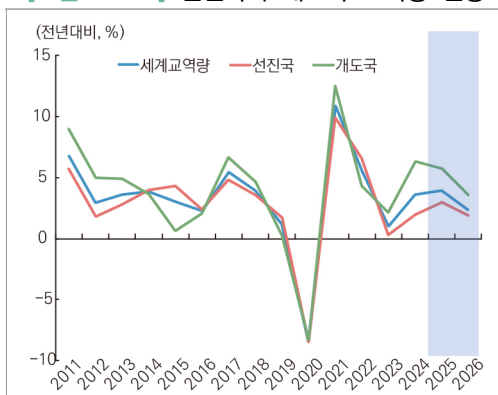
2026년 세계교역량은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front-loading) 효과, 중국 등 주요국 수출 다변화와 재고 확보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6년에는 전년도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충분한 재고 확보, 무역장벽 강화 및 관세 부과와 부정적 영향 가시화 등으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될 전망이다. IMF는 실효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18.5%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는 등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2025년 3.9%에서 2026년 2.4%로 하락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2025년 각각 3.0%, 5.7% 증가하였으나 2026년에는 각각 1.9%, 3.5%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그림 I-12] 세계교역량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그림 I-13] 선진국과 개도국 교역량 전망



자료: IMF,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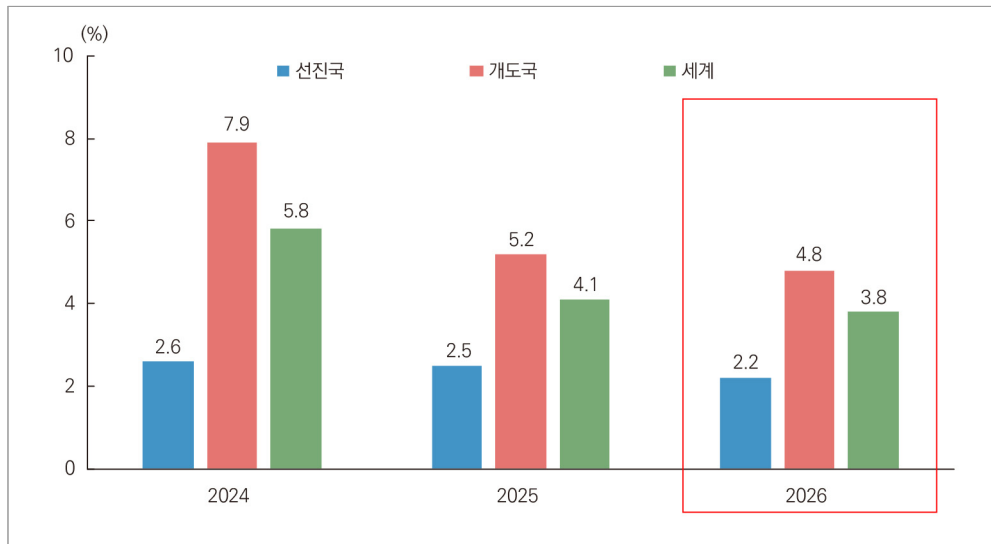
3. 세계 물가상승률

2026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에 이어 완만한 하락 안정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세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4.1%에서 2026년 3.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보일 전망이며, 중동사태의 상황 변화와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상방 위험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국은 2025년 2.5%에서 2026년 2.2%로 주요국 중앙은행 목표치에 근접하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으로의 순조로운 진전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견조한 소비와 노동시장 여건 등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복귀하는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지역과 여타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수요 둔화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빠르게 둔화될 전망이다.

개도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5년 5.2%에서 식량 가격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2026년 4.8%로 하락할 전망이다. 환율 변동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내수 약화와 공급과잉 등으로 저물가 혹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이며, 브라질은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수요 둔화 등에 기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그림 I-1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6.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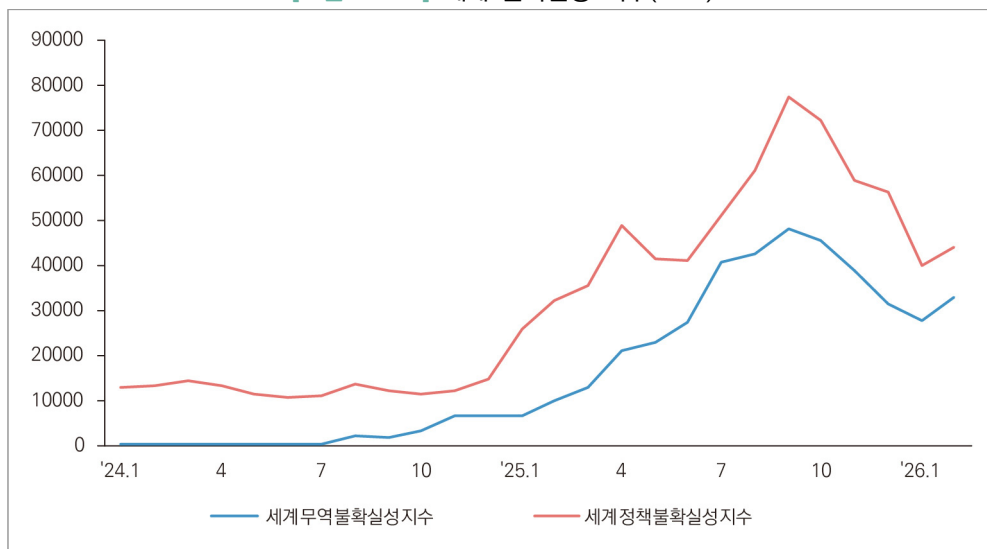
황중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4. 통상 여건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관성 없는 관세정책과 중동 전쟁 발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
- AI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 계속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대하여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 당일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바로 하루 만에 다시 관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을 발표하는 등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림 I-15] 세계 불확실성 지수(WUI)



자료: World Uncertainty Index

더욱이 국가별로 적용되던 상호관세율과 새로 적용할 것으로 발표한 글로벌 관세율이 달라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이미 부과되었던 관세의 환급 문제 또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표 I-2] 글로벌 관세 도입에 따른 미국 관세율 변화

국가	IEEPA 관세	무역법 122조 관세	관세율 변화
브라질	50%	10%	-40%p
캐나다	35%		-25%p
멕시코	25%		-15%p
중국	20%		-10%p
인도네시아	19%		-9%p
태국	19%		-9%p
필리핀	19%		-9%p
인도	18%		-8%p
한국	15%		-5%p
일본	15%		-5%p
EU	15%		-5%p
대만	15%		-5%p
영국	10%		-
호주	10%		-
싱가포르	10%		-
러시아	10%		-

주: 미국 시간 2026년 2월 24일 오전 0시 1분에 10%의 글로벌 관세 적용이 발표되었으나, 15%로의 인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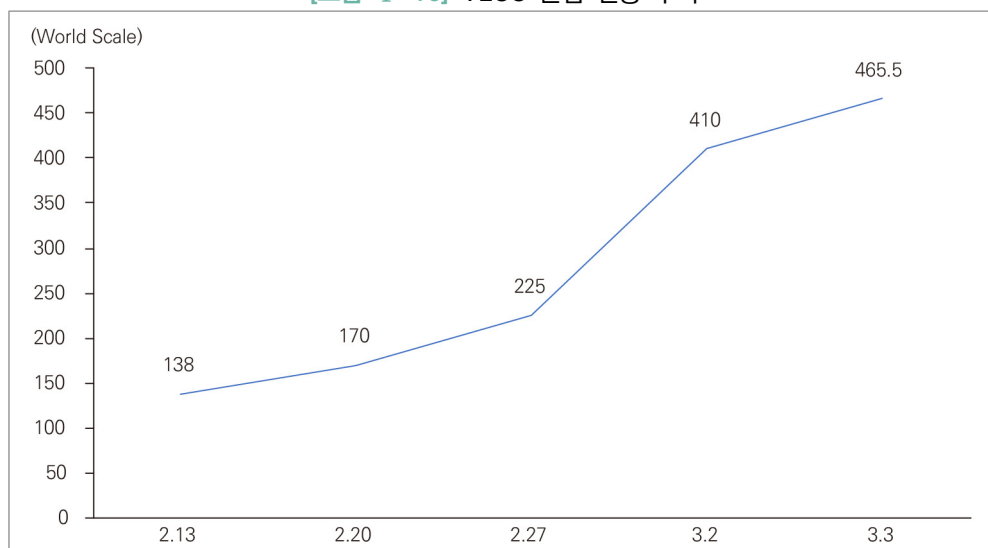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Trade Brief No. 05

미국의 일관성 없는 대외관세정책에 더해 2026년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으로 중동 전쟁이 시작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현실화되어 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원유 수송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 원유의 70.7%, LNG의 20.4%를 중동지역에서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의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¹⁰⁾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되고 해협 인근 상선에 대한 피격까지 이루어지며 유조선 운임이 폭등하며 큰 시장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시점 3월 3일 기준 2월 13일부터 3월 2일까지 3주 만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Very Large Crude Carrier, VLCC) 운임이 3배 가까이 폭등하였다.

[그림 I-16] VLCC 운임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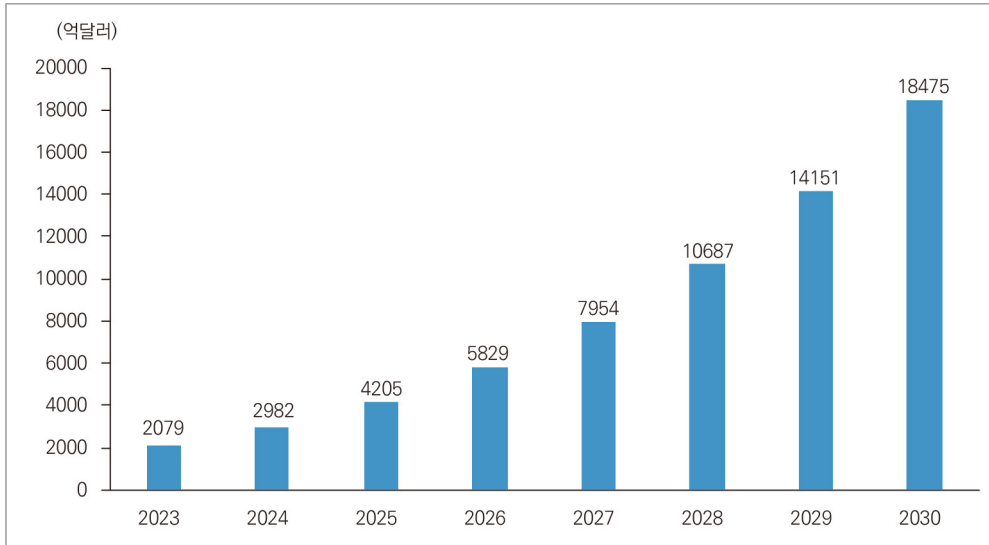


주: WorldScale(WS)는 영국의 월드스케일 협회(Worldscale Association)가 제정하는 유조선의 운임단위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에 따른 해운·물류 영향 분석」, 2026.3.4

반면, 최근 세계 AI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는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에 대한 높은 수요로 D램(8Gb) 고정가격은 2025년 2월 1.35달러에서 2026년 2월 13.0달러로 863% 상승하였다.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 with Memory, HBM) 같은 고부가가치 반도체뿐 아니라 범용(Legacy)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 또한 지속되며 높은 수준의 반도체 가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 한국해양진흥공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에 따른 해운·물류 영향 분석」, 202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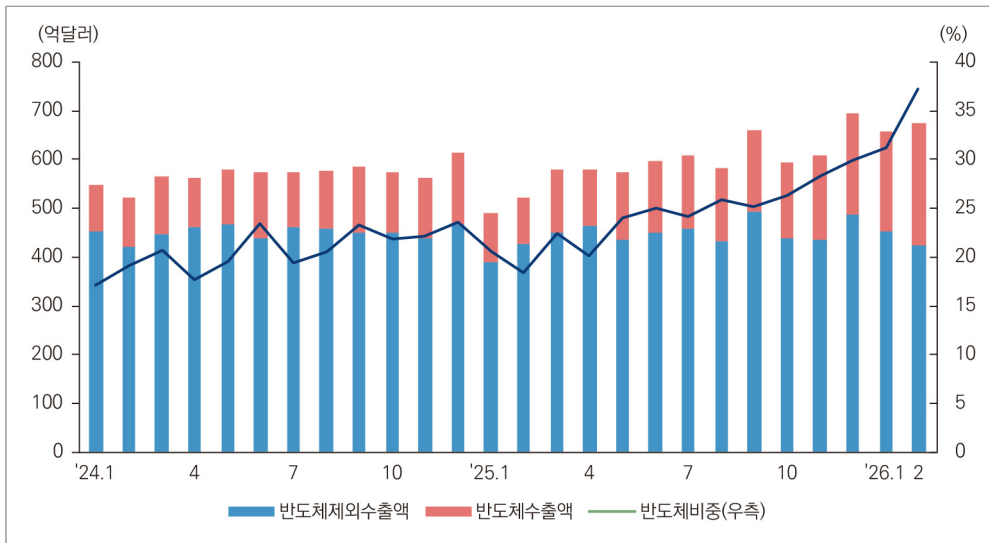
[그림 I-17] 전세계 AI 시장 규모 전망



자료: Statista

2023년부터 상승세를 유지하던 반도체 수출액은 최근 AI시장 규모와 함께 크게 상승하며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674.5억 달러인데, 이 중 반도체 수출액은 251.6억 달러로 37.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I-18] 반도체 수출액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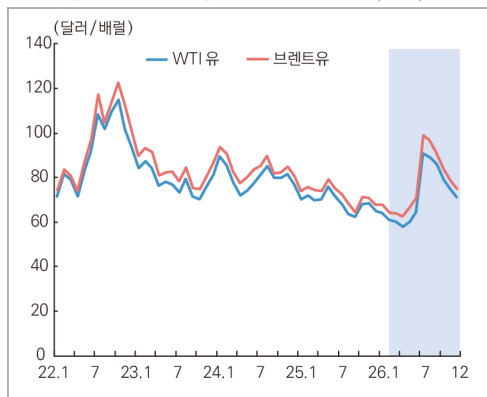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3절 국제유가

- 2026년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75달러 수준으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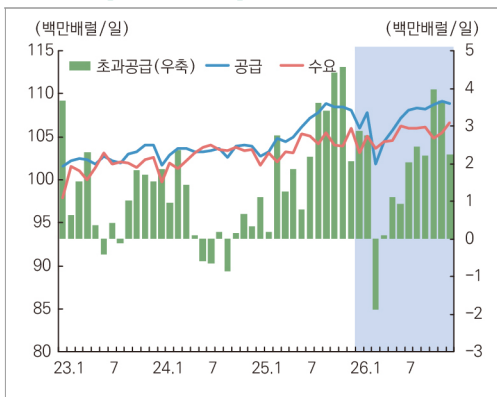
중동사태 이전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국제유가가 2025년 배럴당 69달러에서 2026년 62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¹⁾ 그러나 미국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 충격을 반영한 3월 전망에서 일시적인 공급충격에 따른 석유수급의 차질로 인해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5월 중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고 점차 수급이 정상화되며 연말에는 70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79달러(WTI 기준 74달러)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연평균 56달러)에서 30% 이상 상향 조정된 것이다. 석유수급 전망에서는 3월 중 일평균 1.9백만 배럴의 공급부족 상황¹²⁾이 지속되지만 4월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19] 국제유가 전망(EIA)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2026. 3월 기준)

[그림 I-20] 석유수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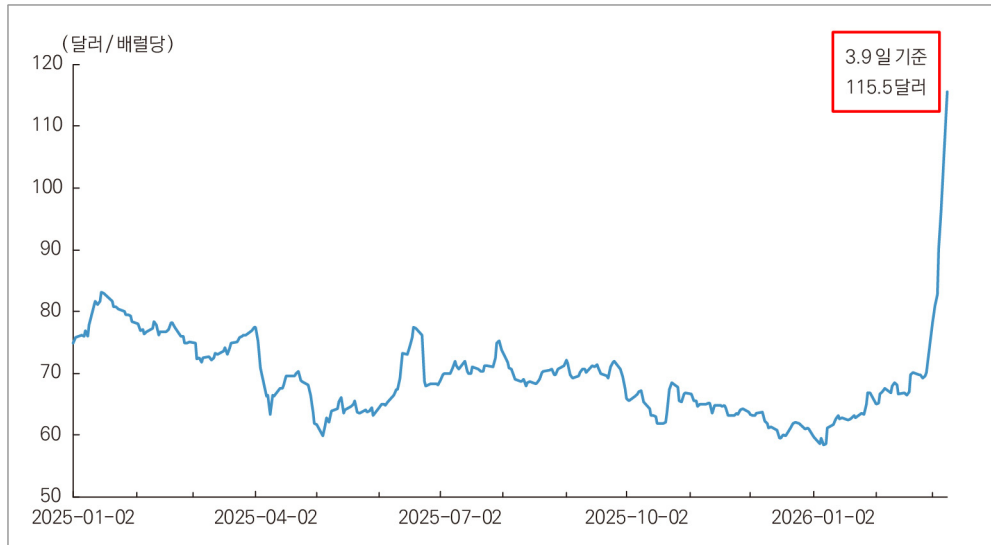
자료: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26. 3월 기준)

황중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 11) 2026년 국제유가(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현물가격 단순평균 기준)는 IMF('26.1월 전망) 배럴당 65.8달러, 세계은행('26.1월 전망) 60.0달러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 12) EIA 전망에 따르면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전세계 석유수요는 2월 일평균 1억 5.1백만배럴에서 3월 일평균 1억 3.7백만 배럴로 일평균 1.4백만 배럴 줄지만, 석유공급은 2월 1억 7.9백만 배럴에서 3월 1억 1.8백만 배럴로 일평균 6.1백만 배럴 줄어듦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증동사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였다. 군사적 충돌이 단기간에 멈추고 이란의 보복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끝나면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장기화되고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석유파동이 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I-21] 일별 OPEC 원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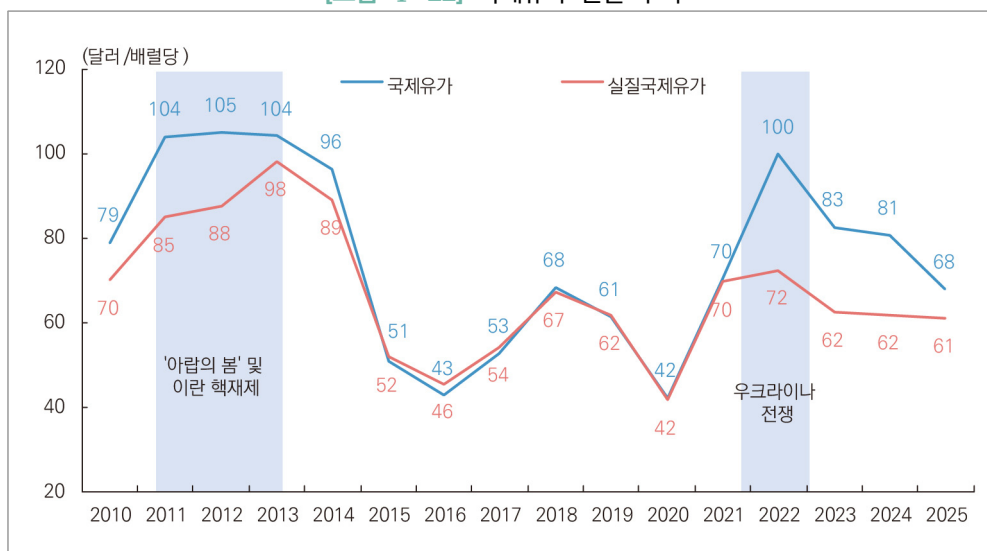


주: OPEC 생산 원유 가격 기준(생산량 가중치 적용)
 자료: CEIC, EIA

2010년 이후 국제유가의 연별 추이를 보면, 2011~2013년 기간에는 리비아 등을 중심으로 한 ‘아랍의 봄’ 사태에 따른 원유 생산 급감, 미국과 EU의 이란 핵 문제로 인한 강력한 경제제재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장기간 100달러 이상 고유가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과 OPEC의 공급 감축 실패 등으로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유

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으나 2025년 68달러 수준까지 하락 안정되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국제유가는 명목국제유가와 달리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60~70달러 수준에서 하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그림 I-22] 국제유가 연별 추이



자료: 세계은행

[BOX 1] 전망의 주요 전제

2026년 경제전망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주요 전제치]

(단위: 전년대비 %, %p)

	2024	2025	2026	
			이번 전망	직전 전망대비 수정폭(%p)
세계경제성장률	3.1	3.1	2.9	(0.1)
- IMF(2026.1)	3.3	3.3	3.3	(0.2)
- World Bank(2026.1)	2.8	2.7	2.6	(0.2)
- OECD(2025.12)	3.3	3.2	2.9	(0.0)
세계교역량 증가율	3.6	3.9	2.4	(0.2)
- IMF(2026.1)	3.6	4.1	2.6	(0.3)
- World Bank(2026.1)	3.4	3.4	2.2	(-0.2)
- OECD(2025.12)	3.9	4.2	2.3	(0.1)
국제유가 ¹⁾ (달러/배럴)	80.7	69.1	75.0	-
- IMF(2026.1)	79.2	68.9	65.8	-
- World Bank(2026.1)	80.7	68.0	60.0	-
- EIA(2026.3) ²⁾	80.5	69.1	78.7	-
금리(국고채 3년물) ³⁾	3.1	2.6	3.0	-

주: 1) 브렌트유, 두바이유, WTI유 단순평균 기준

2) 브렌트유 기준

3) 국고채수익률은 연중 평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OECD, IMF, World Bank

○ 정부(2026. 1월 전망)

- 세계경제는 IMF('25. 10월) 전망치 이용(2025년 3.3%, 2026년 3.1%)
- 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2025년 69, 2026년 62

○ 한국은행(2026. 2월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2025년 3.3%, 2026년 3.1%
- 세계교역량: 2025년 4.3%, 2026년 2.5%
- 유가(브렌트유 기준, 달러/배럴): 2025년 68, 2026년 64

제4절 글로벌 금융시장

- **글로벌 금융시장**은 장기 국제 금리 상승, 단기 정책금리 동결 상태 지속
- **미국 달러화의 주요국 통화 대비 가치**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최근 반등

1. 국제 금리

2026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단기 금리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 금리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최근 반등하고 있다. 먼저, 단기 금융시장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경제적 불확실성, 경제회복 흐름, 노동시장 약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상하 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미 연준(FRB)의 기준 금리는 2025년 연초 4.25~4.50%에서 세 차례(9월, 10월, 12월) 인하되어 연말 3.50~3.75%를 기록하였다. 연준은 2026년 3월 정례회의(FOMC)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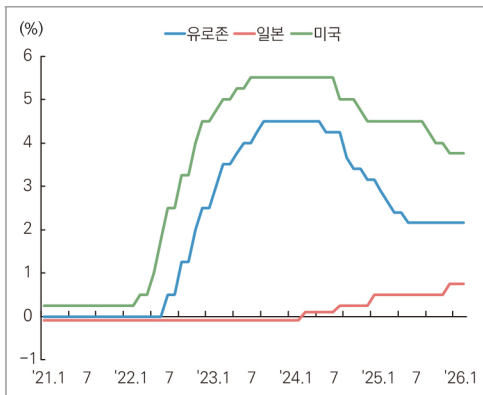
유럽 중앙은행(ECB)은 2025년 물가 둔화, 경기 회복 지원,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26년 들어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refinancing rate)는 2025년 연초 3.15%에서 네 차례(2월, 3월, 4월, 6월) 인하되어 연말 2.15%를 기록하였다. 현재 유럽의 물가 수준이 안정화되고, 경제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무역 불확실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기준금리의 방향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본은행(BOJ)은 경제회복,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2025년 연초 0.25%에서 두 차례(1월, 12월) 인상되어 0.75%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인상 압력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무역 불확실성 등에 따라 급격한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한편, 글로벌 장기 국채 시장은 2026년 연초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 등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미국의 장기 금리 둔화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유럽과 일본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였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5년 5월말 4.4%에서 2026년 2월말 3.9%까지 하락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로존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5년 1월말 2.5%에서 2026년 2월말 2.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5년 1월말 1.3%에서 2026년 2월말 2.1%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6년 2월 28일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3월 17일 기준 미국, 유로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각각 4.2%, 2.9%, 2.3%으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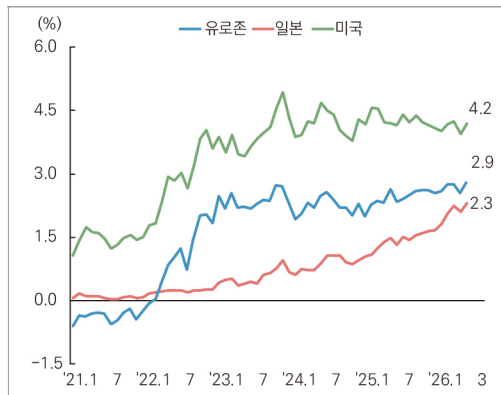
[그림 I-23]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주: 유럽중앙은행은 레퍼금리(refinancing rate) 기준

자료: LSEG

[그림 I-24] 글로벌 국채(10년) 금리 추이



주: 국채 금리는 월말 기준, 유로존을 독일 국채 금리 기준, 2026년 3월은 1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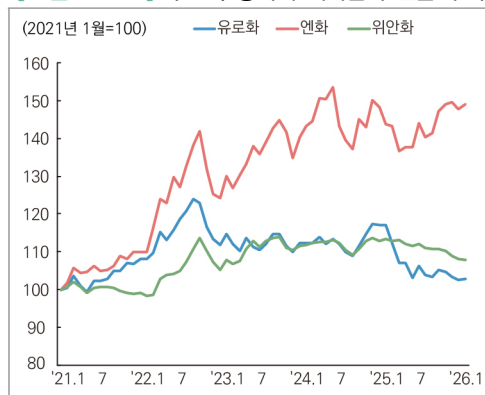
자료: LSEG

2. 환율

2026년 상반기 미국 달러화의 주요국 통화 대비 가치는 연초 다른 국가와의 기준금리 차이 축소 등으로 약세가 나타났으나,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이후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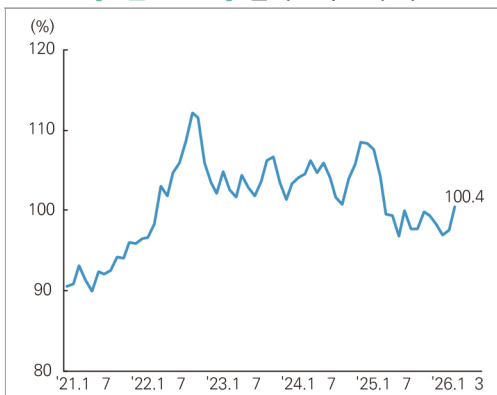
달러/유로 환율은 기준금리 차이 축소,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2025년 9월말 유로당 1.17달러에서 2026년 1월말 1.19달러로 상승하였다. 반면, 엔/달러 환율은 미국과 일본 간 경제성장률 차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동 기간 달러당 148엔에서 달러당 155엔까지 상승하였다.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동 기간 달러당 7.12위안에서 6.95위안으로 하락하였다. 2026년 2월말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 심리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으며, 2월말 기준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당 1.18달러,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6엔, 위안/달러 환율은 달러당 6.92위안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달러인덱스¹³⁾는 2025년 9월말 97.8에서 2026년 1월 97.0까지 하락한 이후 2월말 97.6까지 상승하였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달러인덱스는 3월 13일 100.4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I-25]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주: 1. 2021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I-26] 달러인덱스 추이



주: 1973년 3월 = 100 기준, 2026년 3월은 13일 기준
자료: Bloomberg

13)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이다(1973년 3월 = 100 기준).

제5절 전망의 위험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상방 불확실성	하방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통상협상 타결 및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영향 가시화와 세계 교역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경기부양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긴장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 안정 및 정책금리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관련 투자 거품 붕괴

2026년 세계 경제는 전년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성장률은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무역 구조 변화로 인해 세계 교역량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성장의 주요 위험 요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무역 및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교역 위축, 주요국 경제정책 기조 충돌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글로벌 AI 관련 투자 거품 붕괴 가능성 등이다.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에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제한적 영향 시나리오 하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단기간에 종료되어 원유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지역 전쟁으로 발전하고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여 오일 쇼크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침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요인은 자국 우선주의 무역 및 관세정책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무역정책 변화로 인한 하방 위험이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고자 생산 기지 이전, 공급망 경로 우회 등을 통해 무역 장벽을 헤쳐나가고 있으나, 무역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서 시작될 경우에는 무역정책 불확

황중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글로벌 교역과 투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위축될 수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심화되고 있는 무역 갈등은 해소되었다기 보다는 지난 11월 미·중 간 무역 휴전(trade truce)으로 올해 11월까지 유예된 상태이다.¹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 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대체 관세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장기화되는 경로로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각국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변화가 충돌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가늠하기 어렵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각국의 실물경기와 인플레이션 전망 변화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의 부정적 영향과 견실한 내수회복 등으로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로존과 중국 등 개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고 성장의 하방 위험도 커져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일본은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들어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대비 약세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이들 여타 국가의 정책금리 격차가 커져 미 달러화 강세 기조로 전환되면 환율과 주가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개도국의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국의 재정정책 여력도 약화되고 있다. 미국, 유로존 국가, 중국 등은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과 성장을 지지하지만, 공공부채 비율을 높여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¹⁵⁾ 장기금리 상승은 민간 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고 향후 위기 대응 여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4) 2025년 11월 합의된 미·중 무역 휴전(펜타닐 관세 인하(10%p), 상호관세 및 수출 통제 유예)이 11월에 종료 예정이다.

15) IMF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의 국가부채 GDP대비 비율은 2023년 108.5%에서 2024년 109.1%로 상승하였고, 개도국은 2023년 66.9%에서 2024년 69.0%로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및 주요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AI 관련 투자가 수익성 실현 및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IMF는 지난 1월 전망보고서에서 현재 미국 등 주요국의 성장이 AI에 대한 막대한 기대감과 투자에 힘입어 무역정책 변화의 역풍 속에서도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AI 주도의 생산성 및 수익성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자산 시장(주식 등)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¹⁶⁾고 경고하고 있다.

1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6. 1월), 6 페이지 “Should expectation about AI-driven productivity gains turn out to be overly optimistic and outcomes disappoint, a sharp drop in real investment in the high-tech sector as well as in spending... and a more prolonged correction in stock market valuations could ensue.”



제2장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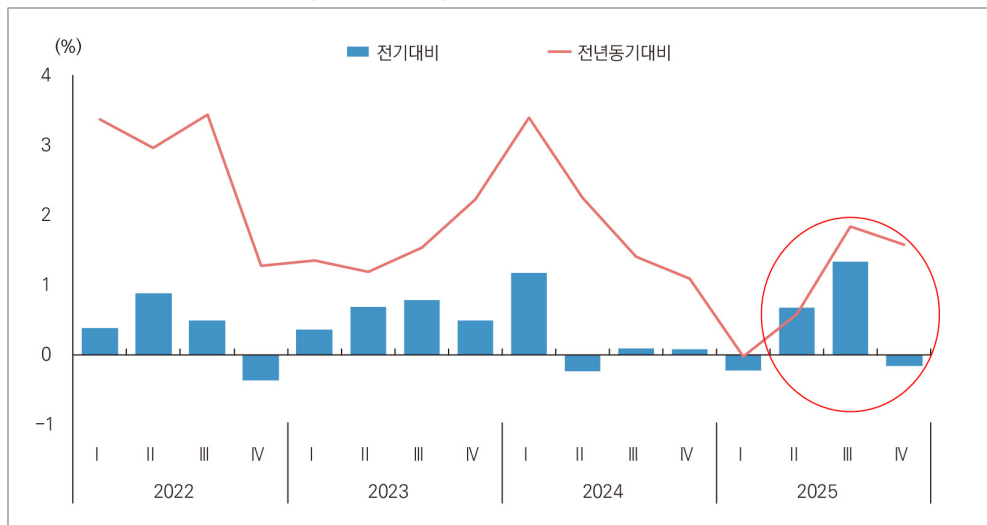
제1절 경제성장률

- 2025년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수출 증가세도 확대
- 경기는 수출의 강한 상승세에도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며 상승 전환이 지연

1. 2025년 경제성장률

국내 경제는 2025년 하반기 이후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수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며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연중 1%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반기별로는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3%로 높아졌다. 계절변동 조정계열로는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플러스로 돌아서 3분기에는 1.3%까지 높아졌다. 다만 4분기에는 높았던 3분기의 반향으로 성장률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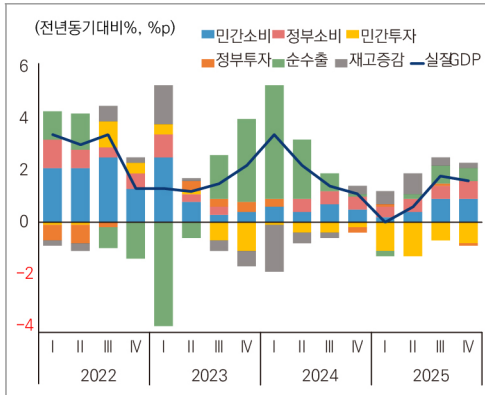
[그림 I-27] 실질GDP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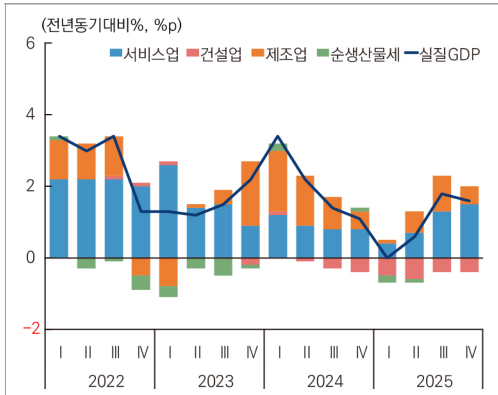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그림 I-28]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29]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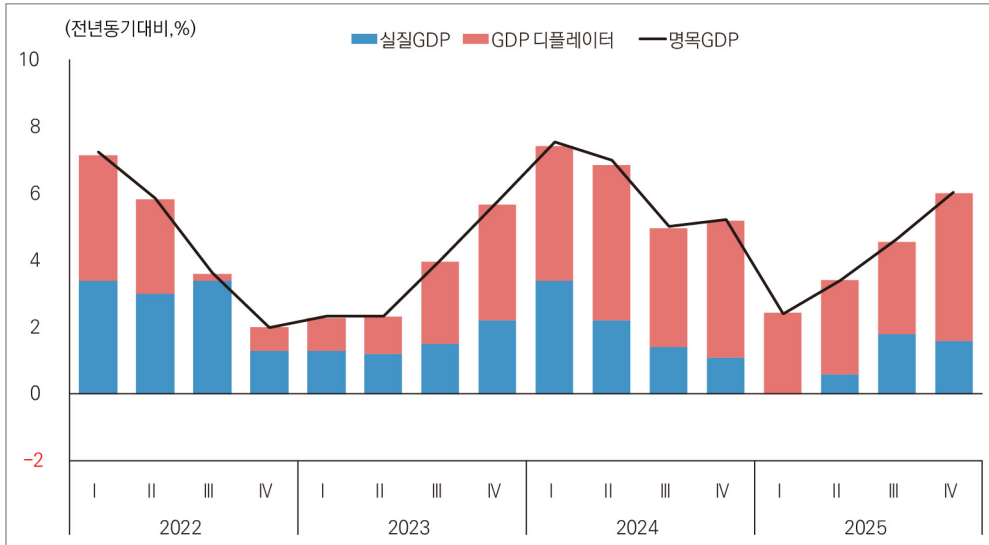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2025년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9%로 성장세가 높아졌다. 민간투자는 연중 3.9%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투자가 크게 부진했던(-9.8%)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건설투자 부진은 하반기에 감소 폭이 줄면서 다소 개선되었다(-12.2% → -7.3%).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 증가하였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2.9% 증가하였다. 정부소비는 두 차례의 추경편성 등에 힘입어 연중 3.0% 정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부투자는 2024년(0.8%)과 비슷한 0.7% 성장하였다.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 0.3%p, 하반기 1.0%p였으며 연중으로는 0.6%p이었다.

총수출(GDP물량 기준)은 연중 4.2% 성장하여 2024년(6.8%)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다만 반기별로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5.4%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총수입은 자본재를 중심으로 2024년(2.5%)에 비해 높은 3.8%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3%p에 그쳤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국내 정치불안으로, 제조업은 대미 관세협상 등 수출여건 악화로 상반기 중 성장세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수출도 살아나면서 성장세가 다시 높아졌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5년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5.4%로 높아졌다. 하반기 중 내수와 수출이 살아나며 실질GDP 성장률이 1.9%로 높아진 데다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도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상반기 2.6%에서 하반기 3.6%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I-30] 명목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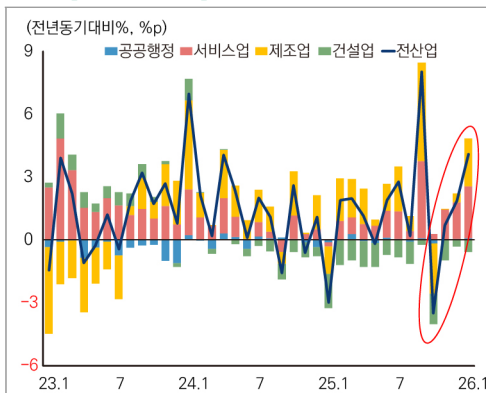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경기국면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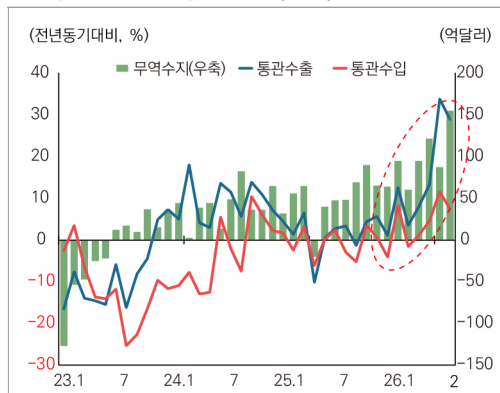
국내경기는 2025년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이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며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그림 I-31] 전산업 생산 증가율



주: 전산업생산지수 구성항목에 2020년 명목 GDP 비중을 적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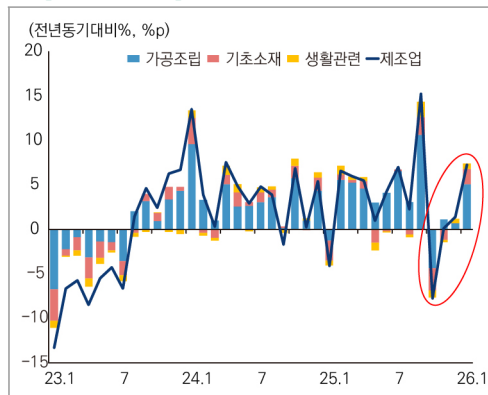
[그림 I-32]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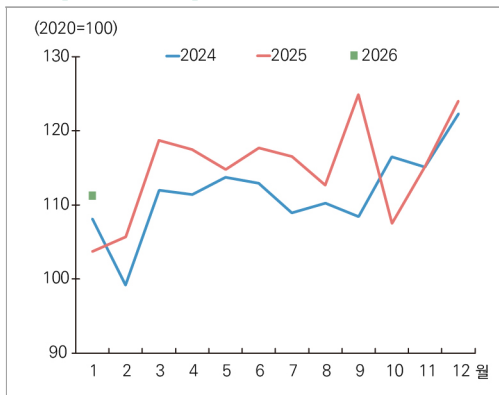
제조업은 반도체 등 가공조립형 제조업¹⁷⁾을 중심으로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형과 음식료품 등 생활관련형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생산 수준은 2026년 1월 기준 지난해 1월보다 높았다.

[그림 I-33]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34] 제조업 생산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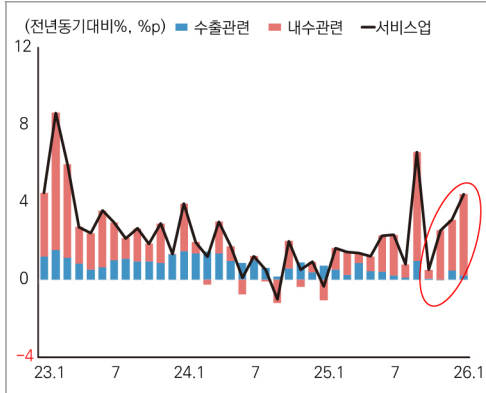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은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¹⁸⁾ 내수업종 중에서는 금융·보험업 등 생산자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회복세가 눈에 띈다. 수출 증가세 확대와 함께 운수·창고업 등 수출관련 서비스업의 업황도 개선되었다. 서비스업 생산 수준도 2026년 1월 기준 지난해 1월보다 높았다.

17) 제조업 생산지수를 산업형태별로 가공조립형(금속, 전자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선박 등 제조업), 기초소재형(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철강, 목재, 펄프 등 제조업), 생활관련형(음식료품, 의복, 가축, 가구 등 제조업)으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준년 비중은 58.2%, 29.1%, 8.0%이다(국가데이터처,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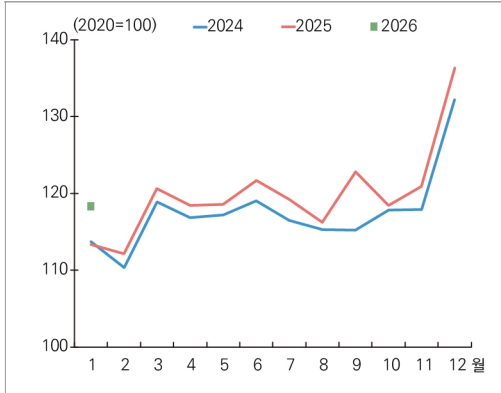
18)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수출관련 서비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과 그 외 내수관련 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준년 비중은 14.4%, 85.6%이다(국가데이터처, 같은 자료).

[그림 I-35]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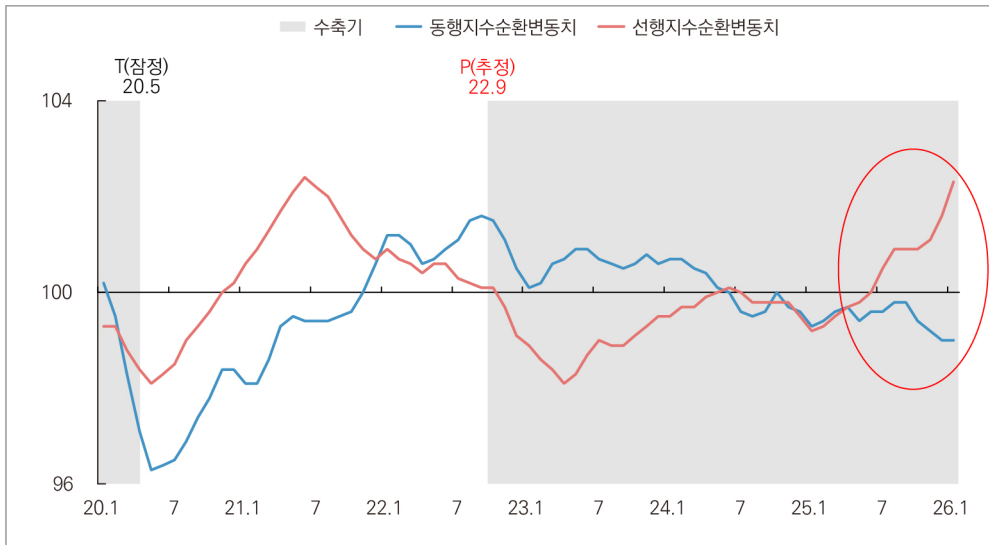
[그림 I-36] 서비스업 생산 수준 비교



자료: 국가데이터처

현재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26년 1월 하락을 멈추고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건설수주, 주가지수,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 등 경기선행지수의 구성항목들이 개선되며 상승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기성액 등 건설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며 상승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그림 I-37]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추정 경기정점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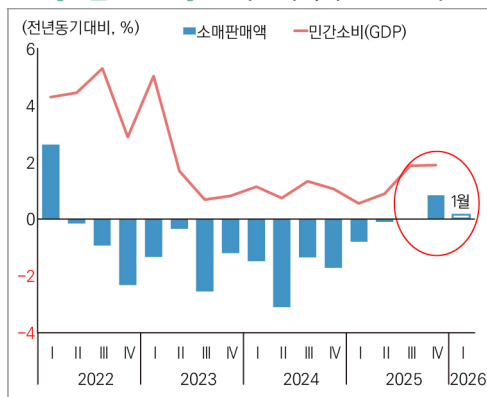
제2절 내수와 수출입

- **내수**는 민간소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설비투자도 상승 폭이 확대
-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가파르게 확대
- **수입**은 설비용 기계류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
-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대폭 증가
- **서비스·소득·이전수지**는 해외여행객이 늘며 적자 폭이 확대

1.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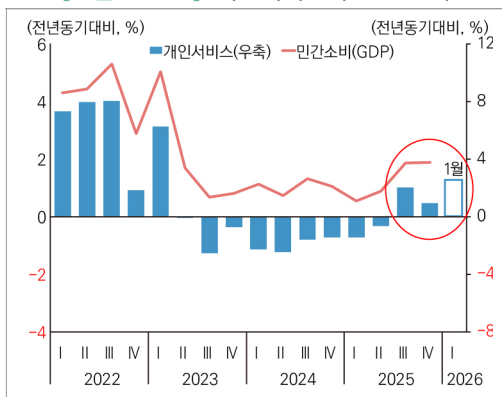
내수는 2026년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진이 장기화하며 내수경기의 상승세를 제약하고 있다. 민간소비 중 상품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5년 3분기 14분기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서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아래 왼쪽).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¹⁹⁾도 2025년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증가하였다(아래 오른쪽). 이는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38] 소매판매액과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그림 I-39] 개인서비스업 지수와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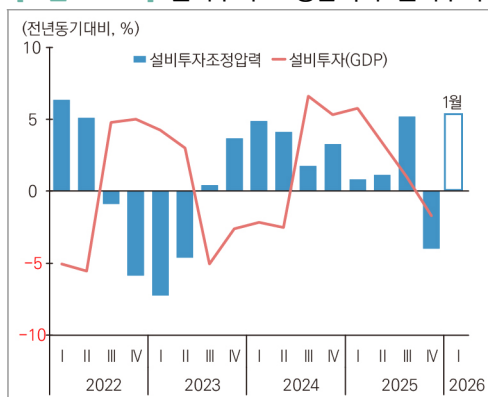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19)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가운데 민간소비의 서비스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수 가중치로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년 가중치를 활용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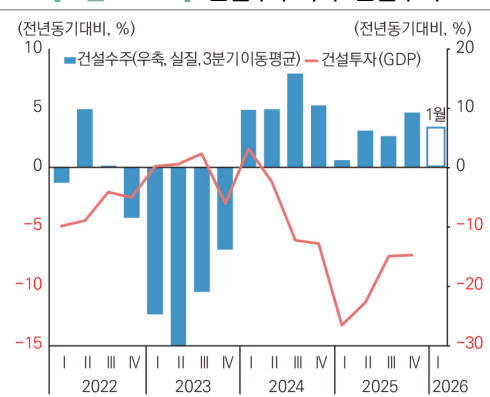
설비투자 조정압력(설비투자 선행지표)은 2025년 4분기 감소로 돌아섰으나 2026년 1월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조정압력이 설비투자에 1분기 정도 앞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설비투자의 상승세가 기대된다. 건설수주액(건설투자 선행지표)은 2024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늘어난 수주가 순조롭게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림 I-40]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그림 I-41]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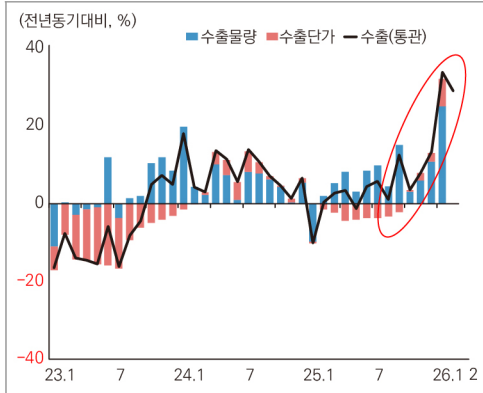


주: 건설수주액은 3분기 중심항 이동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2.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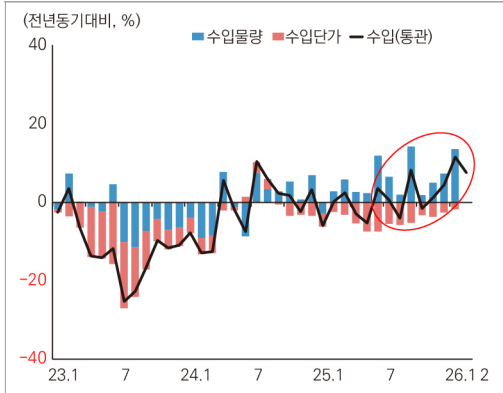
수출(통관기준, 상품)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수출물량(실질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수출단가도 4분기부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수입(통관기준, 상품)은 최근 설비용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증가세가 높아졌다. 수입단가는 2026년 2월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나 수입물량(실질금액)은 2025년 하반기 이후 자본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그림 I-42] 수출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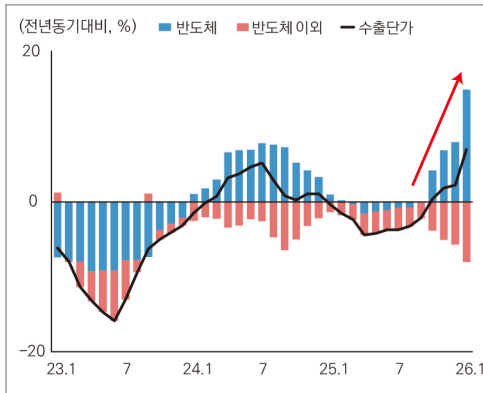
[그림 I-43] 수입금액, 물량, 단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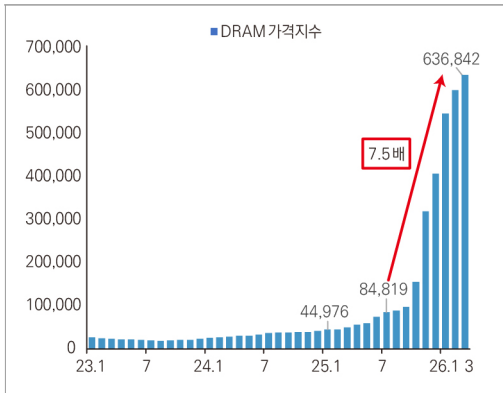
수출단가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AI 기반시설 투자가 확대되며 세계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조사기관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026년 3월 반도체의 평균 시장가격은 2025년 7월 대비 7.5배 상승하였다(2025년 1월 대비로는 14.5배).

[그림 I-44] 품목별 수출단가 추이



주: 2025년도 전체 수출(통관) 중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단가지수를 추정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45] 글로벌 반도체 가격지수 추이



주: DRAM Exchange는 DRAM 및 NAND 플래시 메모리의 실거래가격(현물 및 고정)과 거래량을 이용하여 시장평균 가격을 산출
 자료: 연합인포맥스

[BOX 2] 품목별·지역별 수출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단위: 전년동기대비, 비중 %, 기여도 %p)

	품목명	2024		2025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기여도
1	반도체	43.9	20.8	22.2	24.4	4.6
2	자동차	-0.1	10.4	1.7	10.1	0.2
3	일반기계	-4.2	7.5	-8.4	6.6	-0.6
4	석유제품	-3.2	7.4	-9.7	6.4	-0.7
5	석유화학	5.0	7.0	-11.4	6.0	-0.8
6	선박	17.6	3.8	24.1	4.5	0.9
7	철강제품	-5.4	4.9	-9.0	4.3	-0.4
8	자동차부품	-1.8	3.3	-5.9	3.0	-0.2
9	디스플레이	0.9	2.7	-9.4	2.4	-0.3
10	무선통신기기	11.1	2.5	0.4	2.4	0.0
11	바이오헬스	13.0	2.2	7.9	2.3	0.2
12	컴퓨터	76.7	1.9	4.4	1.9	0.1
13	섬유	-4.1	1.5	-75.0	1.4	-0.1
14	이차전지	-16.6	1.2	-11.9	1.0	-0.1
15	가전	0.4	1.2	-8.8	1.0	-0.1

주: 품목은 2025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부

[주요 지역별 수출증감률과 비중]

(단위: 전년동기대비, 비중 %, 기여도 %p)

	국가명	2024		2025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기여도
1	중국	6.6	19.5	-1.7	18.4	-0.3
2	미국	10.4	18.7	-3.8	17.3	-0.7
3	아세안	4.5	16.7	7.4	17.3	1.2
4	EU27	-0.2	10.0	3.0	9.9	0.3
5	베트남	9.1	8.5	7.6	8.8	0.7
6	중남미	17.8	4.2	6.9	4.4	0.3
7	일본	2.1	4.3	-4.4	4.0	-0.2
8	중동	4.7	2.9	3.8	2.9	0.1
9	인도	4.2	2.7	2.9	2.7	0.1
10	CIS	-9.4	1.7	18.4	1.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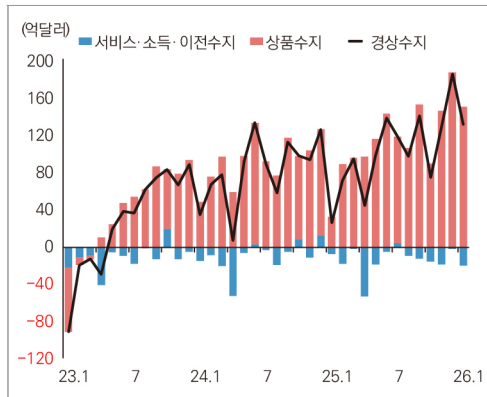
주: 지역 및 국가는 2025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부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최근 흑자 폭이 크게 확대되어 2026년 2월에는 사상 최대치인 155.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도체 가격이 본격 상승한 202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평균 흑자 규모는 103.7억 달러로 2025년 1~9월 평균인 55.4억 달러의 두 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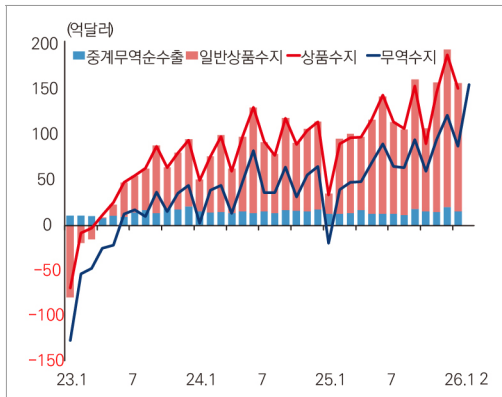
경상수지(국제수지 기준) 역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연간 1,230.5억 달러 흑자였으며 2026년 1월에도 132.6억 달러의 흑자를 이어갔다. 부문별로는 일반상품수지가 주도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생산·수출한 국산품의 순수출액인 중계무역수지도 꾸준히 흑자이다.

[그림 I-46]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47]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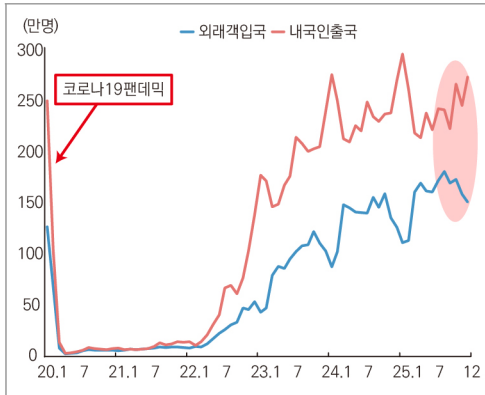


주: 무역수지(수출입차)는 통관 기준, 상품수지 등은 국제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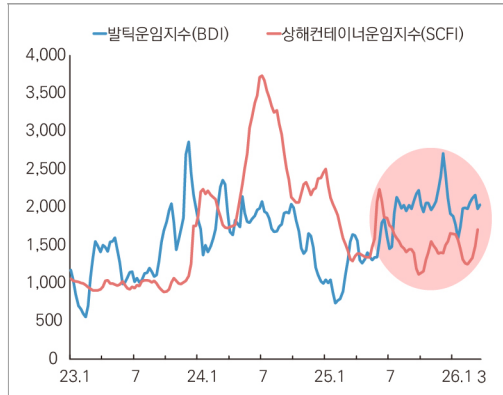
서비스·소득·이전수지(국제수지 기준)는 2025년 15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그중 서비스수지는 2025년 중 345.2억 달러 적자였는데 이는 해외여행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5년 중 입국자 수는 월평균 158만명, 출국자는 246만명 수준이며, 둘 간의 차이는 최근 더 커지고 있다. 운송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해상운임은 2025년 7월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중동 전쟁 이후 컨테이너선 운임이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I-48] 출입국자 수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림 I-49] 주요 해상운임지수 추이



주: 발틱운임지수(BDI)는 벌크선, 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컨테이너선의 대표적 운임지수(기준일은 1985.1.4. 및 2009.10.16.)

자료: 연합인포맥스

제3절 고용 및 임금과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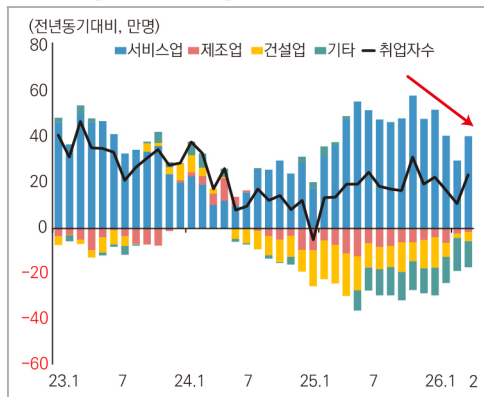
-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
- 임금상승률은 2025년 3.1%를 기록하였으며 특별급여의 변동성이 확대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물가안정목표 2%를 중심으로 등락

1. 고용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되었다. 2025년 중 월평균 20만명 선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2026년 1월에는 10.8만명까지 축소되었다. 다만 2월에는 다시 23.4만명으로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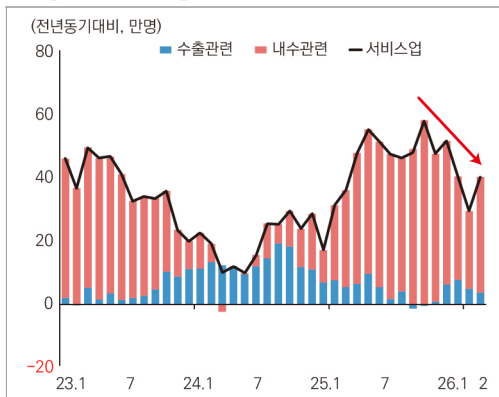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가장 큰 내수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많이 축소되었다. 반면 수출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운수 및 창고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연중 20만명 정도였던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 폭이 2026년 2월에는 5.6만명으로 줄어 이들 업종의 고용사정이 차츰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50]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51]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창고·통신업을 수출관련 서비스업으로, 그 외 서비스업을 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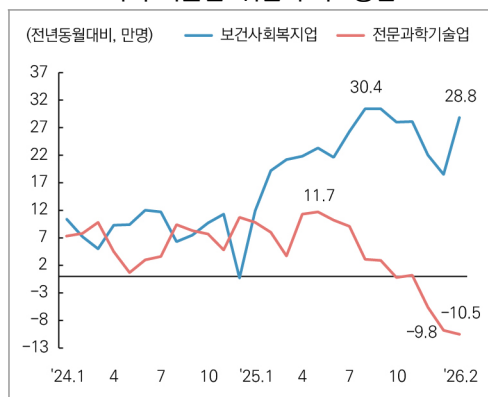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천정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내수관련 서비스 업종별로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은 2025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3.7만 명 증가하였고 2026년 2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28.8만 명 증가를 기록하여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025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4만명 증가하여 보건·사회복지업 다음으로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하였으나, 상반기 9.1만 명에서 하반기 1.6만 명으로 증가 폭이 하락하였으며 2026년 1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9.8만 명, 2월에는 10.5만 명 감소하여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다만, 고용행정통계에서는 전문·과학·기술업의 고용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아 동 수치는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다음 [BOX 3]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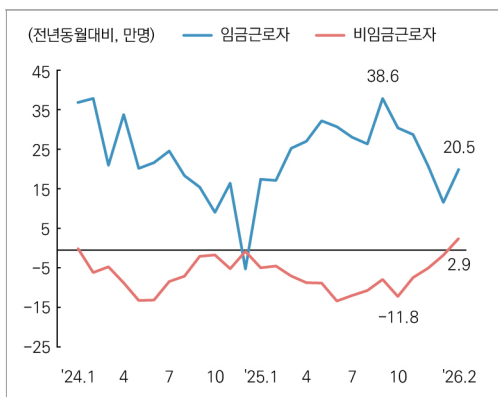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한편 비임금근로자 수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9월 이후 29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 감소 폭이 축소되어 2026년 2월에는 2.9만 명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림 I-52] 보건·사회복지업 및 전문·과학·기술업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53]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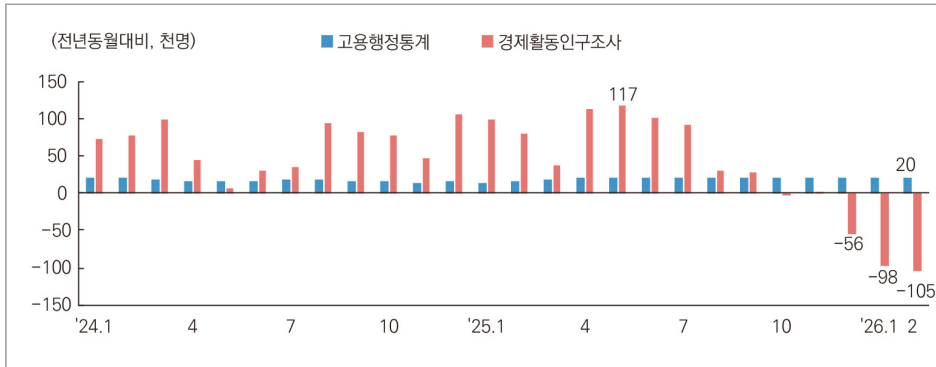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BOX 3] 전문·과학·기술업 고용 동향: 통계 출처에 따른 차이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파악된 전문·과학·기술업 취업자 수는 2025년 전년 대비 5.4만 명 증가하였으나 2026년 1월과 2월에 각각 전년동월 대비 9.8만 명, 10.5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전문·과학·기술업에는 법무·회계·세무 등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AI발 고용충격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로 파악되는 전문·과학·기술업 고용 동향은 이와 사뭇 다르다. 동 자료에 의하면 전문·과학·기술업에 속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5년 전년 대비 2.0만 명 증가하였으며 2026년 2월 증가폭도 2.0만 명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 전문·과학·기술업 고용 증감에 대한 고용행정통계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간 불일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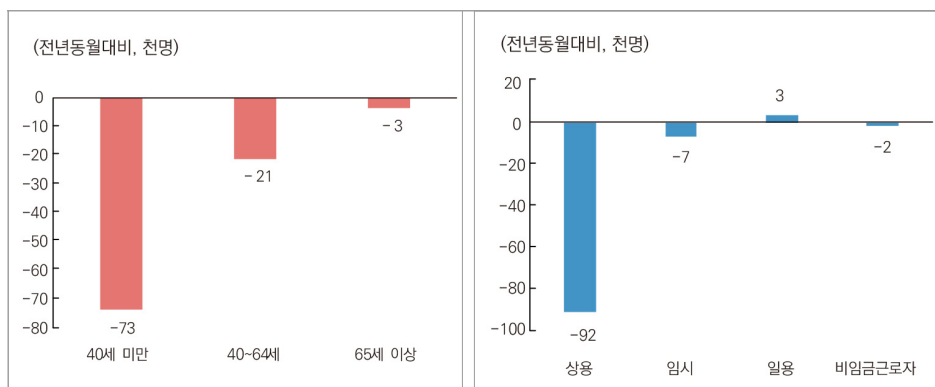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는 65세 미만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의무가입 대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수 자료라는 점에서, 임금근로자 동향 파악 목적으로는 가계 설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신뢰성이 높다. 다만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고용행정통계」에 포착되지 않으므로, 두 자료 간의 불일치는 일견 자영업자 수의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파악된 2025년 1월 전문·과학·기술업 취업자 감소분을 종사상지위별로 나누어 보면,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근로자가 9.2만 명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비임금근로자는 0.2만 명 감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행정통계」가 65세 이상의 고용 감소를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전문·과학·기술업 고용이 주로 감소한 연령층은 40세 미만(-7.3만 명)이며, 65세 이상은 0.3만 명 감소에 그친다.

| 2026년 1월 전문·과학·기술업 고용 감소분의 종사상지위별, 연령대별 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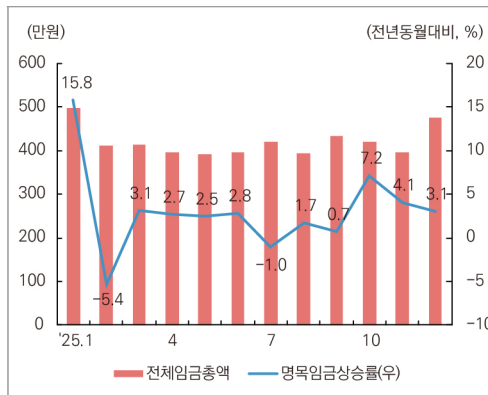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즉 고령층이 아닌 상용근로자 수의 증감 여부에 대해, 해당 집단 전수조사에 가까운 통계는 “증가했다”고 말하고, 설문조사 결과는 “이례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자료의 용도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통계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통계 간의 이 같은 불일치는 현재로서 전문·과학·기술업 고용이 감소 추세임을 단언하기 어렵게 한다.

2.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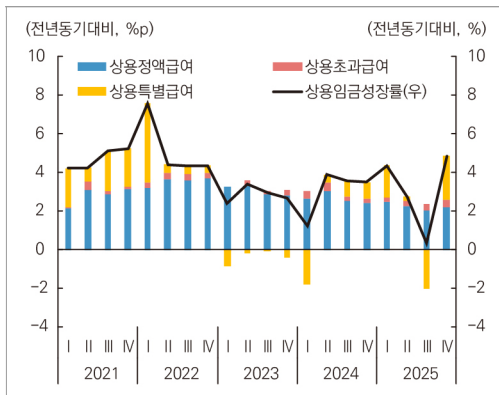
2025년 월평균 명목임금은 420.5만원으로 전년(407.9만원) 대비 3.1%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다만 정액급여 증가세는 최근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이며, 특별급여의 변동성 확대가 임금 상승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3분기에는 임금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4분기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하반기 기업 실적 개선과 명절상여 등의 영향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I-54] 월평균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그림 I-55] 상용명목임금상승률 기여도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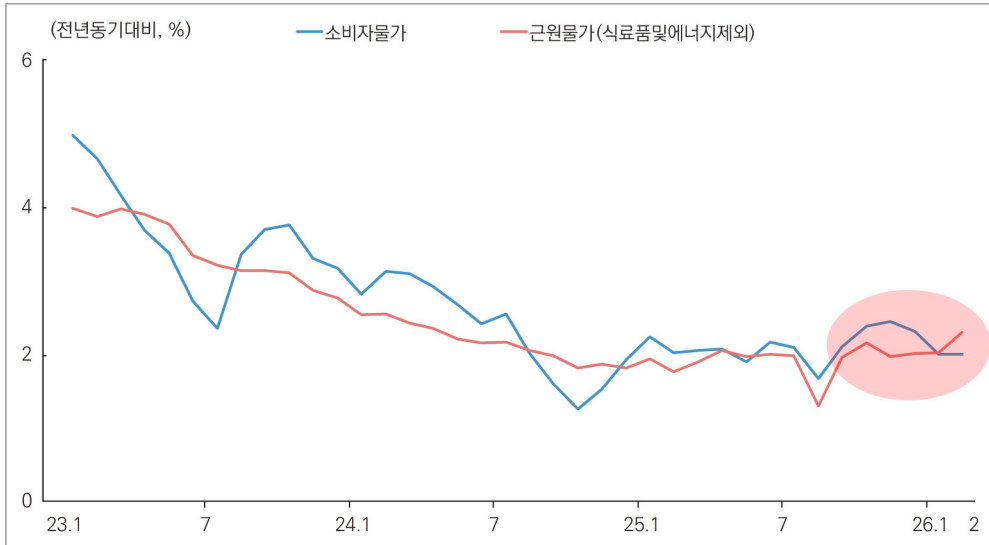
3. 물가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다소 불안한 모습도 보인다. 2025년 하반기에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11월 2.4%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안정되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2026년 들어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졌다(2월 2.3%).

백기홍 경제분석관(ghbaek@assembly.go.kr, 6788-4750)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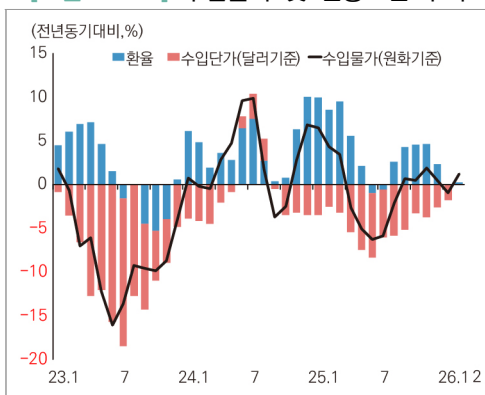
[그림 I-56]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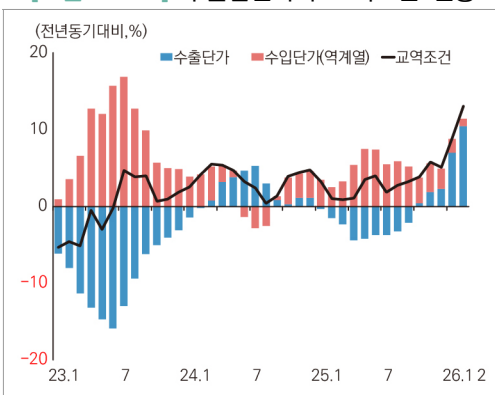
GDP디플레이터에 영향을 주는 교역조건을 변동요인별로 살펴보면, 수입단가(달러기준)는 최근까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과 함께 하향세를 보였다. 다만 수입물가(원화기준)는 환율 불안의 영향으로 최근 소폭 상승하였다. 수출단가(달러기준)는 2025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도 개선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I-57] 수입물가 및 변동요인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58] 수출입단가와 교역조건 변동



주: 교역조건 = 수출단가/수입단가
자료: 한국은행

제4절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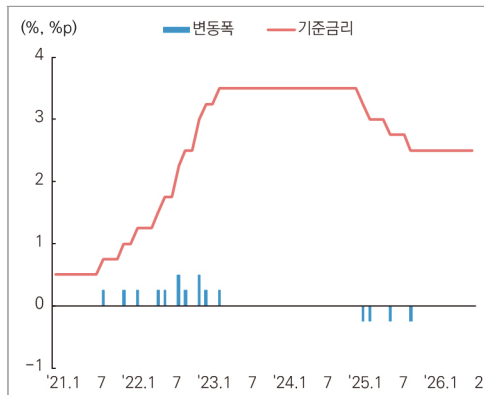
-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금리와의 동조화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 등으로 변동성 확대

1. 국고채 금리

2026년 상반기 국고채 금리는 국제금융 시장 내 장기 금리와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상승하였다. 국고채(3년물) 금리는 2025년 8월말 2.4%에서 2026년 2월말 3.0%로 상승하였고, 국고채(10년물) 금리는 동기간 2.8%에서 3.4%로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중동 지역 갈등 고조 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3월 23일 기준 국고채(3년물)와 국고채(10년물) 금리는 각각 3.6%, 3.9%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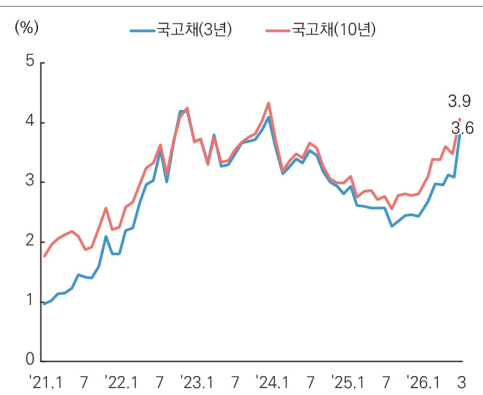
한편,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내수진작 등의 목적을 위하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2026년 2월 정례회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와 그 외 산업 간 성장률 격차가 존재하고, 무역 불확실성, 중동 지역 긴장 확대에 의한 유가 상승 우려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 I-59]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그림 I-60]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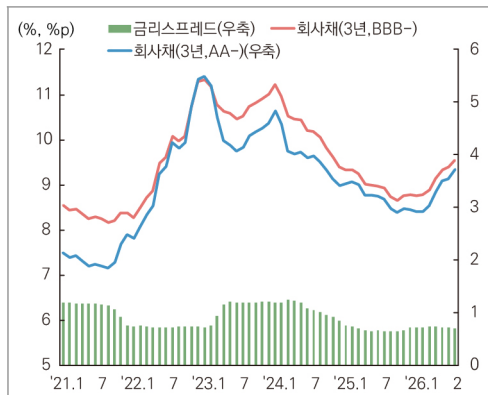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2026년 3월은 23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2. 회사채 및 대출 금리

2026년 상반기 회사채 및 대출 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 움직임 등에 따라 상승하였다. 회사채(3년, AA-) 금리는 2025년 8월 2.9%에서 2026년 2월 3.7%로 0.8%p 상승하였고, 회사채(3년, BBB-) 금리는 동기간 8.8%에서 9.5%로 0.7%p 상승하였다. 다만, 두 회사채 간 금리 차는 동기간 5.84%p에서 5.82%p로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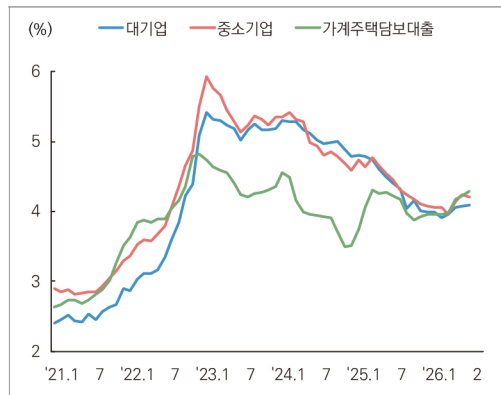
기업 대출 금리와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였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2025년 9월 3.9%에서 2026년 1월 4.1%로 상승하였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 또한 동기간 4.1%에서 4.2%로 상승하였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기간 4.0%에서 4.3%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I-61]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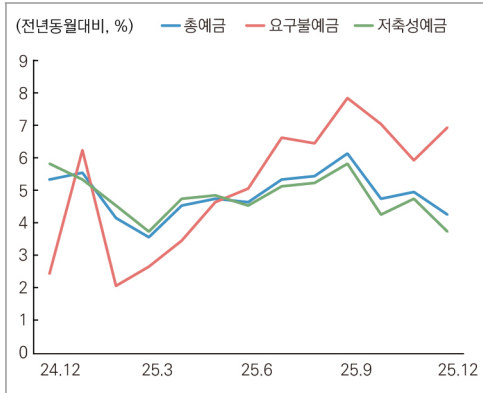
[그림 I-62]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월평균 금리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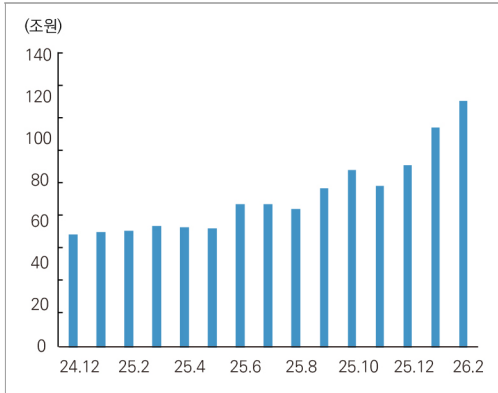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최근 은행 예금 감소와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증가 등은 시중 대출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2월 기준 목돈 마련이나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예금은행에 예치된 저축성예금은 1,835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8% 증가하였으나 11월 4.8%에서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반면, 개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 둔 투자자예탁금은 2025년 5월말 57조원에서 2026년 2월말 11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예금은행에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금리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63] 예금은행 원화예금 종류별 증가율



주: 말잔 기준, 총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합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그림 I-64] 투자자예탁금 추이



주: 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 금액임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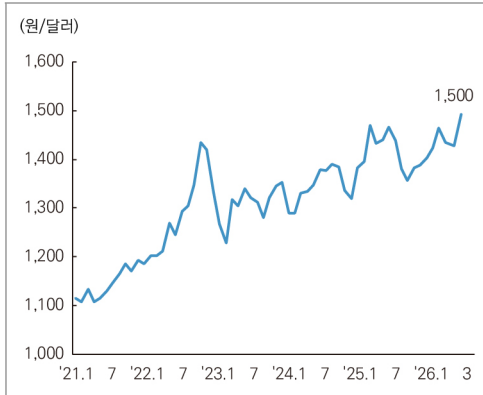
3. 환율 및 위험지표 추이

2026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무역 불확실성 확대, 중동 지역 분쟁 발생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환율(매매기준율 기준)은 2025년 6월말 1,356원에서 11월말 1,465원까지 상승한 이후 2월말 1,425원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역 분쟁 발생 이후 3월 20일 1,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대외신용도를 보여주는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²⁰⁾ 2025년 10월말 21.5bp에서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2026년 2월말 24.4bp로 상승하였다. 2022년 10월말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단기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기록한 67.5bp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중동 지역 분쟁 및 유가 상승 등으로 3월 16일 29.2bp까지 상승하여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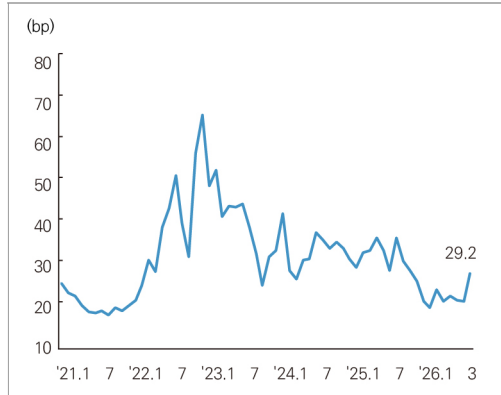
20)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는 도산, 지급실패, 채무불이행, 지불유예 등 신용위험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의미하고, 프리미엄은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을 높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65]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2026년 3월은 20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ECOS)

[그림 I-66]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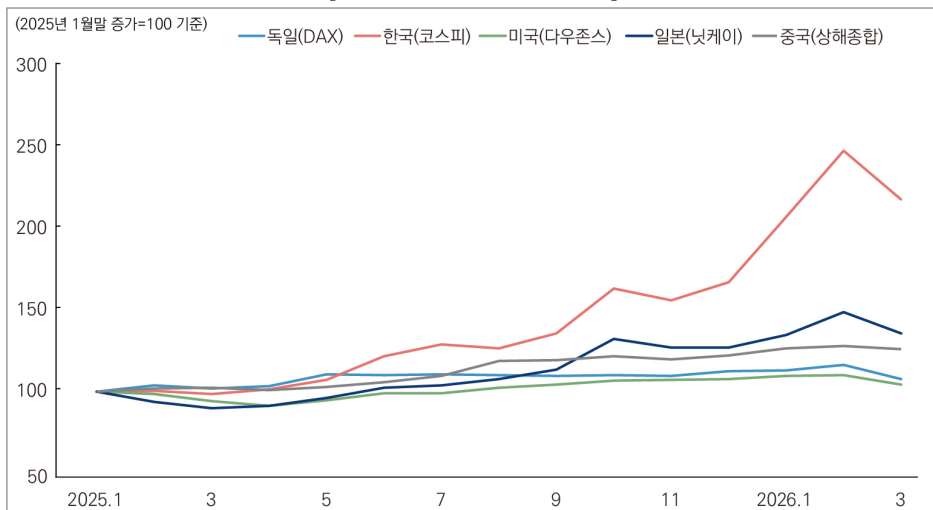
주: 한국 CDS 5년물 월말 기준, 2026년 3월은 16일 기준
 자료: LSEG

[BOX 4] 주식시장 동향과 위험 요인

코스피 지수가 2025년 10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2026년 1월 22일 5,000포인트, 2월 25일 6,000포인트까지 넘어섰다. 2월말 발생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수가 하락하며 조정을 거치고는 있으나 지난해 2월말 수준(2,533포인트)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코스피 지수를 주요국의 주가지수와 비교하더라도 지난 1년간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2025년 1월말 주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코스피 지수는 3월 13일 기준 218을 기록하여, 미국(다우존스) 105, 일본(닛케이) 136, 중국(상해종합) 126, 독일(DAX) 108 등에 비해 상승률이 높다.

[주요국 주가 지수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코스피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확대와 거래대금 증가 등 수급 변화, 정부의 주식시장 친화 정책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먼저, 2025년 전 세계 AI 부문 투자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수출액은 1,73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26년에도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²¹⁾ 이에 따라 코스피에서 비중이 높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서 2025년 외국인(4.7조원 순매도)과 개인(26.4조원 순매도)의 순매도에도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기관(29.9조원 순매수)과 연기금(3.7조원 순매수)은 순매수를 전년 대비 확대하였다. 특히, 2025년 12월말 기준 1,458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024년말 11.5%에서 2025년말 18.1%까지 증가하였다.²²⁾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2025년 코스피 거래대금(매수와 매도 합계)이 증가하여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24년 대비 2025년 개인(2.4% 감소)의 직접투자 거래대금에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외국인(42.9% 증가), 금융투자기관(50.4% 증가), 사모펀드(59.1% 증가) 등의 거래가 크게 증가하며 주가가 상승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친화적인 정책 또한 코스피의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정책 기조하에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어 자금이 공급되었고, 배당절차 개선, 소액 주주 권익 보호 등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부동산에 쏠려 있던 투자 자금이 대체 투자처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유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 둔 투자자예탁금이 2025년 5월말 57조원에서 2026년 2월말 11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1) 한국무역협회, “2025년 수출 7,079억 달러로 역대 최대...반도체 비중 24.4%,” 2026.1.1.<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0E6F82456CD17F2F59FC15F01EF4D361.Hyper?no=97932&siteId=1, 접속: 2026.3.16.>

22)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현황<<https://fund.nps.or.kr/main.do>, 접속: 2026.3.16.>

반면, 코스피 지수의 위험 요인으로는 중동 지역 분쟁 위기,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둔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 지역 분쟁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중동 지역 분쟁이 빠르게 진정되어 유가와 원유 공급 등이 안정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의 확대와 유가 상승은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파급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둔화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코스피 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 AI 분야 투자 둔화 우려도 코스피 지수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AI 분야 투자의 규모는 지난 기간 빠르게 증가하여 반도체 가격 상승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대비 상업화 및 수익성이 기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²³⁾ 높아진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도 투자와 수익 발생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뉴욕 월가의 소프트웨어(SW)산업 관련 사모대출펀드²⁴⁾ 환매²⁵⁾ 사건은 AI 산업 확대가 소프트웨어와 같은 유사한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 투자 여건 및 전체 반도체 투자 규모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금융시장 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둔화 가능성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와 코스피 지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23) 한겨레, “AI 투자 열풍 속 ‘거품’ 논란...투자 둔화-반도체 수주 감소 이어지나,” 2026.3.15.<<https://www.hani.co.kr/arti/economy/global/1249371.html>, 접속: 2026.3.17.>

24) 사모대출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에 주식 또는 대출 형태로 투자하고 이자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를 말함

25) 동아일보, “AI발 SW산업 위기감에...미월가, 사모대출펀드 환매 요청 쇄도,” 2026.3.13.<<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312/133521310/2>, 접속: 2026.3.16.>

제5절 전망의 위험 요인

■ 전망의 불확실성

상방 불확실성	하방 불확실성
• 교역조건 개선과 소득 여건 개선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재연
• 세수여건 개선과 추경편성 가능성	•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국내 경제 측면에서의 경제전망 상방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실질소득 여건 개선 가능성과 정부의 추경편성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하방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단기간에 급등한 국제유가와 이에 따른 물가불안 재연 가능성,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슈퍼301조) 조사 개시로 재차 높아진 교역 불확실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2025년 4분기 이후 반도체 가격의 급등과 함께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미 2027년 생산분까지 계약이 확정된 상태이며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교역조건 개선이 얼마만큼 실질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여 민생지원 등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가 국채 발행없이 편성할 예정임을 밝혔다.²⁶⁾ 재원으로는 올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더 견고하고 있는 법인세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 한다. 다만 추경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로 상세내역을 알 수 없으며, 국회 심의·의결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전망에는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전쟁 대응’ 추경안은 최근의 내수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²⁷⁾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26)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은 3월 22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물류 유통비 경감, 소상공인·농업인 등 민생 안정, 그리고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연합인포맥스, 3월 22일).

27)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2월 28일 증등 전쟁 개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불안이 재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쟁이 단기간에 그친다면 영향도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전망에서는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의 최신 전망을 참고하여 연평균 국제유가 기준 시나리오를 배럴당 75달러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최종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IMF 등 국제기구의 전쟁 이전 국제유가 전망치인 배럴당 연평균 61.8달러(단순평균 기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전쟁 개시 이후의 상황을 일정 수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여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별도의 시나리오로 분석하였다.²⁸⁾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에 대하여 ‘과잉 생산 관행’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²⁹⁾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과의)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28) 자세한 내용은 “[BOX 5] 증등 전쟁 장기화 위험과 우리경제 영향”을 참조할 수 있다(p.59).

29) USTR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국을 조사대상으로 발표했다.

2026년 NABO 경제전망

II

지출전망

제1장 |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 부문별 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026년 실질GDP 성장률은 2.0%로 지난 전망(2025.9월) 대비 0.1%p 상향 조정하였다. 지출 부문별로 보면 건설투자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설비투자, 총수출, 정부소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 여타 부문은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소비는 주요 사회보장현물수혜 항목인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액의 2025년 실적치와 202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직전 전망(2.7%) 대비 0.3%p 상향 조정하였다. 정부투자는 2026년 R&D 분야(35.5조원)와 SOC 분야(27.7조원) 확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각각 0.2조원, 0.3조원 증액된 것을 반영하여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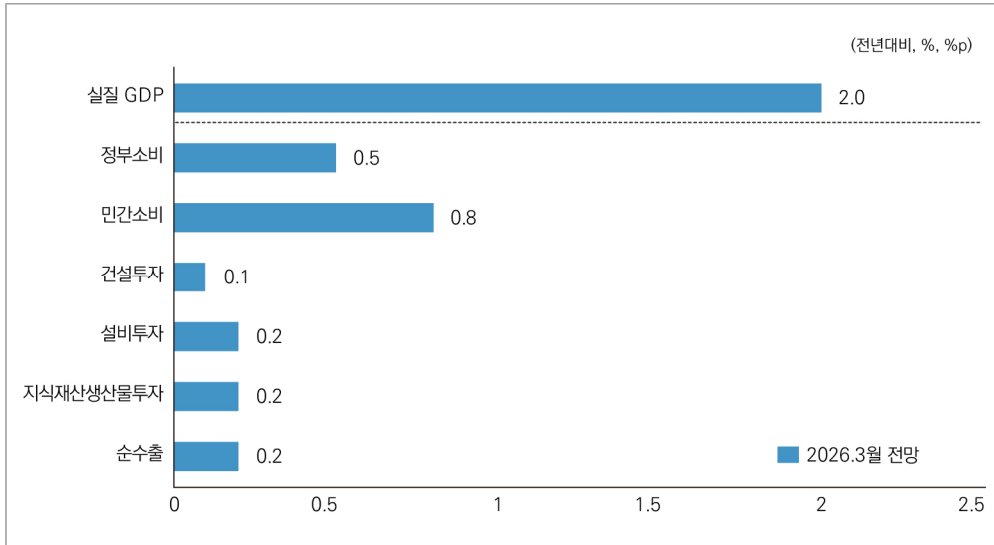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의 양호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가되어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점을 반영하여 직전(1.7%)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건설투자는 착공 부진, 미분양 누적 등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3.2%) 대비 2.4%p 하향 조정하였다. 설비투자는 AI 관련 반도체 수요 급증과 기계류 수입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1.7%) 대비 0.5%p 상향 조정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및 정부 R&D 예산의 확대 편성 등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3.1%) 대비 0.2%p 상향 조정하였다.

총수출은 세계교역량 증가 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반도체 수요 확대 효과를 반영하여 지난 전망(2.1%) 대비 0.4%p 상향 조정하였다. 총수입은 반도체 관련 자본재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직전 전망(2.7%) 대비 0.3%p 하향 조정하였다.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그림 II-1] 2026년 지출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II-1] 2026년 지출국민소득 수정 전망

(단위: %, %p)

	'25.9월 전망	'26.3월 전망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1.9	2.0	0.1
민간소비	1.7	1.7	0.0
정부소비	2.7	3.0	0.3
정부투자	1.9	2.0	0.1
건설투자	3.2	0.8	-2.4
설비투자	1.7	2.2	0.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1	3.3	0.2
순수출(총수출-총수입)	-0.6	0.1	0.7
총수출	2.1	2.5	0.4
총수입	2.7	2.4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장 부문별 전망

제1절 경제성장률

- 202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0%로 전망
- 2025.9월 전망에 비하여 0.1%p 상향 조정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2.0	0.3	1.7	1.0	2.5	1.6	2.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회복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수출 호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동 전쟁과 국제유가 상승

우리 경제는 2026년 2.0% 성장할 전망이다. 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2.5%, 하반기 1.6%로 예상한다.

성장의 모습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내수는 2026년 회복세가 뚜렷해질 예정이다. 최근 국내 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2%대 초반에서 안정되면서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도 내수 회복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³⁰⁾ 다만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르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점은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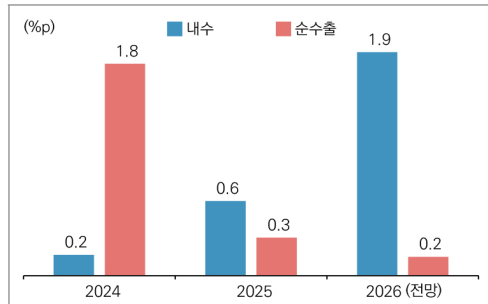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30)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을 위해 2025년 본예산 대비 8.1% 늘어난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12월 2일 확정하였다(정부안에서 1,000억 원 감액).

순수출(수출-수입)의 2026년 성장기여도는 2025년과 비슷할 전망이다(+0.2%p). 수출은 초호황기(슈퍼 사이클)에 들어선 반도체에 힘입어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반도체 생산능력이 높아진 수요와 가격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출(물량)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다. 수입은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전쟁의 여파로 높아진 국제유가가 원유 등 원자재 수입 증가를 둔화시킬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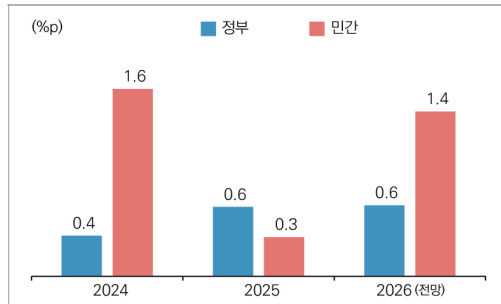
한편, 정부부문의 2026년 성장기여도는 0.6%p로 2025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반면,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2025년 0.3%p에서 2026년 1.4%p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그림 II-2]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3]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고유가 및 원유수급 차질 가능성은 2026년 경제전망의 가장 큰 하방위험이다. 현재 미국은 조기종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이란은 오히려 주변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전쟁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수급차질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 대비 0.2~0.3%p 정도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³¹⁾

주요 지출부문별로 2026년의 경제성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부문 성장률은 재정지출 및 SOC 예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2025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0%, 정

31)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75달러 내외인 상황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만일 고강도 분쟁이 지속되어 국제유가가 연평균 100달러 내외까지 오른다면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 등 전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BOX 5] 중동 전쟁 장기화 위험과 우리경제 영향” 참조)

부투자는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와 물류·항공·산단 등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2.0%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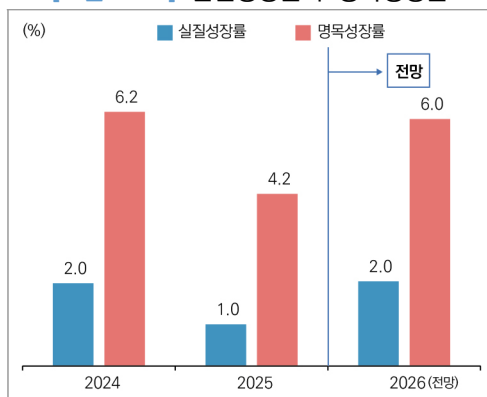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중 민간소비는 2025년 하반기 이후의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예상이나, 중동 전쟁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거나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 등 하방위험도 있다.

민간투자는 1.9% 증가하여 2025년의 침체(-3.9%)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투자 유형별로는 건설투자가 0.8%, 설비투자가 2.2%,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3.3% 증가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총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불확실한 교역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에 힘입어 2.5%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국제기구는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과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2025년보다 낮은 2.9%와 2.4%로 내다보았으며,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위헌판결 이후에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에 슈퍼 301조 발동을 위한 예비조사를 통보해 왔다. 총수입은 내수회복, 해외여행 증가 등의 요인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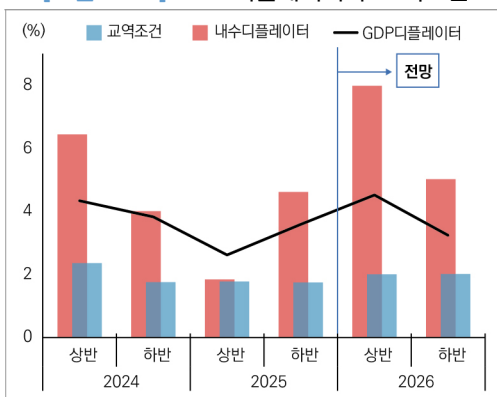
명목GDP 성장률은 2026년 6.0%로 2025년(4.2%)에 비해 상당 폭 높아질 전망이다. 실질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2025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실질GDP 1.0% → 2.0%, GDP디플레이터 3.1% → 4.0%). 특히, 2025년 4분기 이후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역조건 개선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2026년 중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그림 II-4] 실질성장률과 명목성장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5] GDP디플레이터와 교역조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표 II-2] 2026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2.0	0.3	1.7	1.0	2.5	1.6	2.0
최종소비	1.4	1.2	2.3	1.8	2.4	1.6	2.0
민간소비	1.1	0.7	1.9	1.3	2.1	1.2	1.7
정부소비	2.1	2.4	3.5	3.0	3.0	2.9	3.0
총고정투자	-0.8	-3.9	-2.5	-3.2	1.1	2.7	1.9
주체별							
민간투자	-1.0	-4.9	-3.0	-3.9	0.9	2.8	1.9
정부투자	0.8	1.2	0.2	0.7	2.2	1.8	2.0
유형별							
건설투자	-3.3	-12.2	-7.3	-9.8	-1.0	2.5	0.8
설비투자	1.7	4.5	-0.4	2.0	1.9	2.6	2.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2	1.9	3.7	2.9	3.6	3.1	3.3
총수출	6.8	3.0	5.4	4.2	3.3	1.8	2.5
총수입	2.5	3.3	4.4	3.8	2.7	2.2	2.4
경상수지(억달러)	1,000	479	752	1,231	798	902	1,700
상품수출(통관)	8.1	0.0	7.4	3.8	16.7	7.6	11.9
상품수입(통관)	-1.7	-1.5	1.5	0.0	7.6	4.9	6.2
GDP디플레이터	4.1	2.6	3.6	3.1	4.6	3.4	4.0
소비자물가	2.3	2.1	2.2	2.1	2.3	2.2	2.3
명목 국내총생산	6.2	2.9	5.4	4.2	7.2	5.0	6.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표 II-3] 명목GDP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대비, %)

	2024	2025			2026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6.2	2.9	5.4	4.2	7.2	5.0	6.0
실질국내총생산	2.0	0.3	1.7	1.0	2.5	1.6	2.0
GDP디플레이터	4.1	2.6	3.6	3.1	4.6	3.4	4.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BOX 5] 중동 전쟁 장기화 위험과 우리경제 영향

중동 전쟁의 장기화가 우리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하여 국제유가 예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예상 시나리오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되는 경우와 장기화하는 경우로 단순화하였으며, 세계은행,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 S&P Global 등의 최근 예상을 참고하였다. 이밖에 추가적으로 전쟁 발발 이전 국제유가 시나리오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해석의 편의를 도왔다.

- **(시나리오 1: 분쟁 조기 종료 및 정상화)** 연평균 국제유가 75달러/배럴
 - 미국이 전쟁종료를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도 조기에 정상화
 -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90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70달러 선에서 안정
- **(시나리오 2: 고강도 분쟁 지속)** 연평균 국제유가 100달러/배럴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고 주변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손상
 -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에도 90달러 선을 유지
- **(전쟁 이전 국제유가 시나리오)** 연평균 국제유가 61.8달러/배럴
 - IMF, 세계은행, EIA의 국제유가 전망을 단순 평균하여 설정

[예상 국제유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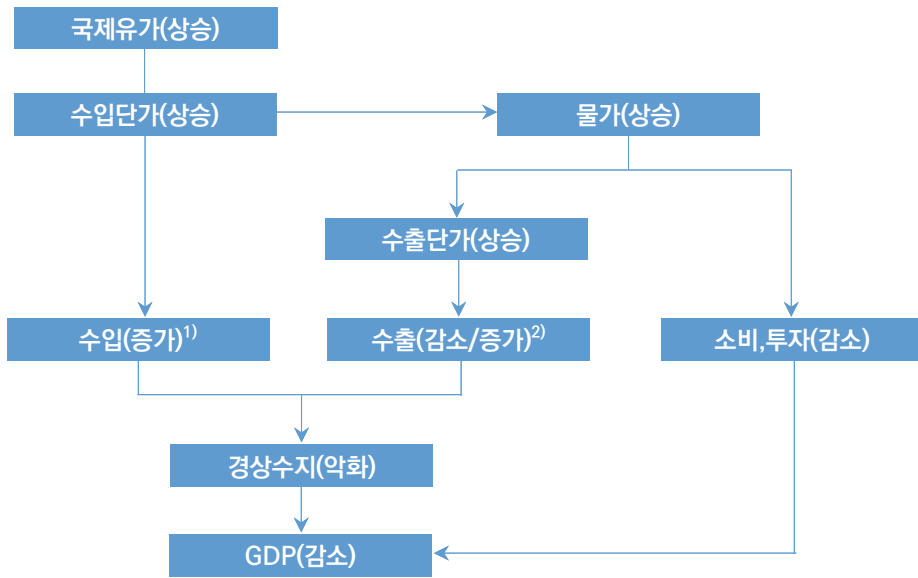
시나리오	국제유가(달러/배럴)	과거 유사사례	원유 공급차질 (일평균 백만배럴)
1	75달러 내외(연평균)	2018년 對이란 제재 (2018년)	0.9~1.5
2	100달러 내외(연평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3~5

주: 예상 시나리오는 세계은행, EIA, S&P 글로벌, Bloomberg 등의 외신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자료: World Bank, EIA, S&P Global, Bloomberg

다만, 이상의 시나리오에 제시된 국제유가의 변동 폭과 지속기간 등은 미국의 종전선언 시기, 양국간 협상 타결 가능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월 11일 전략비축유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억배럴 긴급 방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한국 2,246만 배럴 포함 32개국 참여).

국제유가 상승은 1차적으로 원자재 수입부담을 늘리며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고, 2차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국내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향은 원유 등 수입부담을 가중시키는 직접효과와, 물가상승을 통하여 소비, 투자를 감소시키는 간접효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국제유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경로]



주: 1)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가 GDP 감소에 의한 수입금액 감소 효과보다 큼
 2) 수출품목 중 석유·화학제품 등 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와 여타 공산품의 수출 감소 효과가 혼재

수출에 대한 효과는 다소 불분명해 보인다. 수출품목 중 원유 관련제품의 수출은 통상 국제유가와 함께 제품 단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수출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³²⁾ 여타 공산품의 경우에는 세계경제 위축으로 수출액이 감소하거나 생산원가 상승분을 수출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2)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등의 수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급 차질의 경우에는 정확히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사상초유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원료용 중동산 나프타를 구하지 못하여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중동 전쟁 및 그에 따른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은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물가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우리나라와 중동 간의 교역이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 12.3%이며, 특히 전체 원유 수입의 70.7%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전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 시기와 국제유가 변동 폭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이 수주 내에 전쟁종료를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조기에 정상화된다면 파급 효과가 비교적 작을 수 있겠으나(시나리오 1), 봉쇄가 지속되고 주변국의 에너지 인프라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우리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시나리오 2). 아래의 파급효과는 전쟁발생 이전 국제유가 시나리오 대비 각 항목의 변동 폭을 의미한다.

- (시나리오 1)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08억달러 감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p 상승하며, 성장률은 0.2%p 정도 감소
- (시나리오 2)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급감(649억달러)하고, 물가가 큰 폭(+0.9%p)으로 상승하며, 성장률도 상당폭(0.4~0.5%p) 하락

[유가전망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영향 시산 결과]¹⁾

시나리오	무역수지 (억달러)	수출(통관) / 수입(통관)		소비자물가	GDP 성장률
		수출(통관)	수입(통관)		
1	75달러 내외	-208	-0.3%p / 3.0%p	0.4%p	-0.2%p
2	100달러 내외	-649	-1.5%p / 8.6%p	0.9%p	-0.4~-0.5%p

주: 1)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GDP 성장률의 전쟁 이전 국제유가 기준 시나리오(2026년 연간 61.8달러/배럴) 대비 변동 폭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전망에서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인 상황(시나리오 1)을 기본전제로 삼아 중동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전망치에 반영하였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여 국제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에는(시나리오 2) 경제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유가 75달러) 대비 0.2~0.3%p 정도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제2절 정부소비 및 투자

- 2026년 정부소비 및 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3.0%, 2.0% 증가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정부소비	2.1	2.4	3.5	3.0	3.0	2.9	3.0
정부투자	0.8	1.2	0.2	0.7	2.2	1.8	2.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급여비 등 현물성 사회보장 지출 수요 증가 연구개발 및 SOC 투자지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출 디플레이터 오름세 확대

2026년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확장적 재정 기조 지속과 R&D 및 SOC 예산 확대 등으로 전년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정부투자는 R&D 투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1. 정부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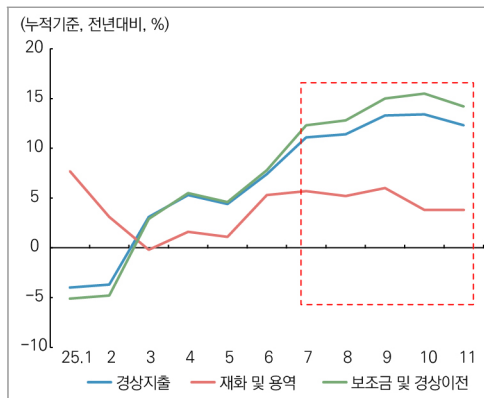
2026년 정부소비³³⁾는 대표적인 사회보장현물수혜 항목인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3.0% 늘어 전년과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소비는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경상지출 항목 중 인건비성 지출과 경상적 운

황중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33)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지출은 총산출물에서 상품·비상품 판매수입을 차감하고 정부가 구매하여 민간에게 현물로 이전한 사회보장현물수혜를 더하여 구한다. 총산출은 기간 중 정부서비스 생산자의 산출로 부가가치와 중간소비(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험연구비 등 물건비성 지출)의 합이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포상비 등 인건비성 지출)와 고정자본소모 및 기타생산세(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를 더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정부의 경상적인 운영비를 합산한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 건강보험급여와 무상급식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결산서를 입수하여 먼저 사회수혜금을 산출한 후, 이중 현금으로 지급된 사회수혜금을 차감하여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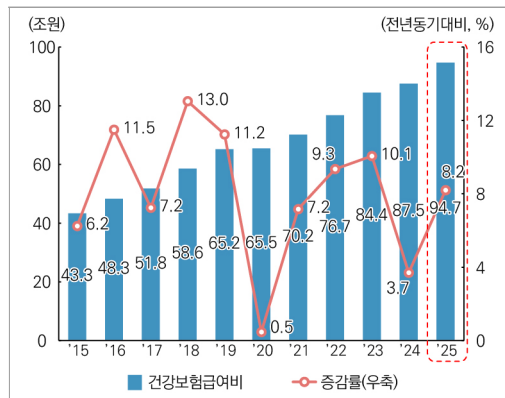
영비 등이 포함된 재화 및 용역 지출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2025년 상반기 중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재화 및 용역 지출에서 건설한 증가세(전년동기대비 5.6%)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4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그러나 2025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은 2024년 3.7%의 낮은 증가율에서 벗어나 전년대비 8.2% 증가하였다³⁴⁾. 2026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은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예년의 증가 추세를 회복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림 II-6] 중앙정부 경상지출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그림 II-7]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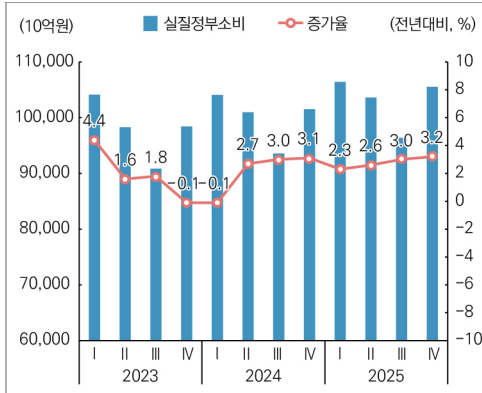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공단

2026년 정부소비 전망치는 2025년 건강보험급여비(사회보장현물수혜) 지급액 실적치와 202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직전 전망(2.7%) 대비 0.3%p 상향 조정하였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 총지출은 727.9조원으로 전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24.6조원(3.5%) 증가하여, 정부안(728.0조원) 대비 0.1조원 감액되었다. 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52.7조원 적자이며,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은 51.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전년(49.1%)에 비해 2.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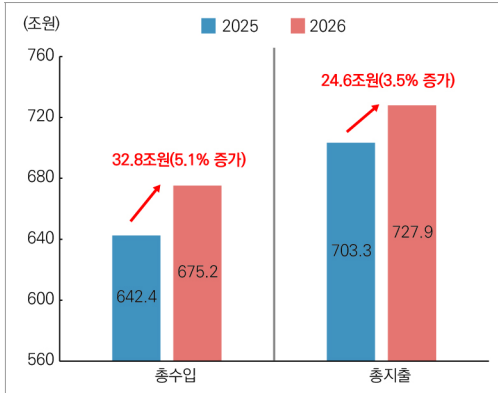
34) 2025년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액은 94.7조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고, 지난 2014~2024년 중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액은 연평균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액은 87.5조원으로 전체 명목정부소비(447.1조원)의 19.6%를 차지하였다.

[그림 II-8] 실질정부소비 분기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9] 2026년도 국회 확정예산



주: 1. 2025년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 2026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II-4] 2026년도 국회 확정예산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예산 (A)	예산안 (B)	확정예산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총수입	642.4	674.2	675.2	1.0	32.8	
총지출	703.3	728.0	727.9	-0.1	24.6	
통합재정수지	-60.8	-53.8	-52.7	1.1	8.1	
관리재정수지	-111.6	-109.0	-107.8	1.1	3.8	
(GDP대비)	(-4.2)	(-4.0)	(-3.9)	-	-	
국가채무	1,301.9	1,415.2	1,413.8	-1.3	111.9	
(GDP대비)	(49.1)	(51.6)	(51.6)	-	-	

주: 1. 예산(A)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 증감은 단순조정으로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실질정부소비는 명목정부소비와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전망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명목정부소비 전망은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 혹은 경기대응적 정책기조의 함수로 설정하고, 2000년부터 2025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명목정부소비/GDP 비율을 자기시차변수, 총지출/GDP비율, 통합재정수지/GDP비율, 건강보험급여비/GDP 비율의 시차변수로 회귀분석한 예측 방정식을 이용하였고, 정부소비 디플레이터는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안정적 관계를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표 II-5] 2026년 정부소비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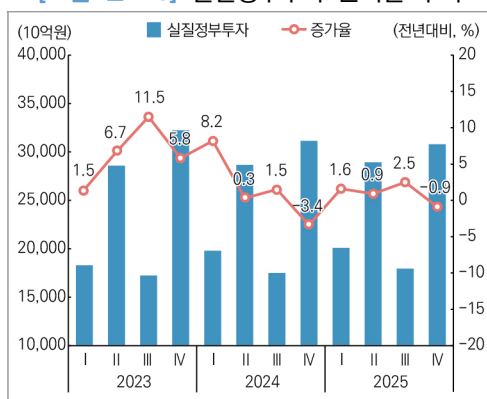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
명목정부소비	8.4	4.5	4.4	5.1	5.2
정부소비디플레이터	4.1	2.5	2.2	2.1	2.2
실질정부소비	4.0	1.9	2.1	3.0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 정부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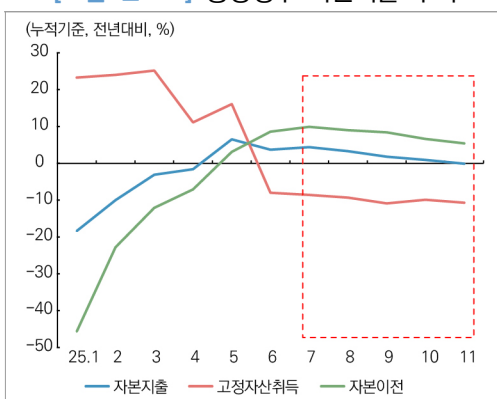
2026년 정부투자는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와 철도부문 SOC 투자³⁵⁾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전년(0.7%)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실질정부투자의 결정요인은 고정자산취득 관련 재정지출규모, R&D 및 SOC분야 예산, 명목정부투자를 실질화하는 가격변수인 정부투자 디플레이터 등이다. 2025년 정부투자는 상반기 중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의 고정자산취득이 감소세로 전환되며 전년대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5년 중앙정부의 자본지출 중 고정자산취득은 상반기 중에는 5월까지 전년대비 16.1% 증가하였다. 그러나 6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4분기 중 실질정부투자도 감소 전환되어 전년동분기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0] 실질정부투자 분기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11] 중앙정부 자본지출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35) 2026년 정부 SOC 분야 예산(27.5조원) 중 철도부문 예산은 8.8조원으로 전년(7.0조원) 대비 1.8조원(2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부문 중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2026년 정부투자는 2025년 실적치와 2026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직전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하였다. R&D 분야 확정 예산(35.5조원)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5.8조원(19.5%) 확대 편성되어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SOC 분야 예산(27.7조원)은 철도 부문 등을 중심으로 1.7조원(6.5%) 확대 편성되어 정부 건설투자 증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중동사태와 국제유가 불안, 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른 내수진작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등 정책당국에서 진행 중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 규모와 분야별 자원 배분이 전망의 주요한 불확실성 요인이다.

[표 II-6] 2026년도 12대 분야별 확정예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정부안 대비 증감(C-B)	전년 대비 증감(C-A)
		예산안(B)	확정예산(C)		
보건·복지·고용	251.7	269.1	269.1	-0.0	17.4
교육	96.2	99.8	99.9	0.1	3.7
문화·체육·관광	8.9	9.6	9.6	-0.1	0.7
환경	12.9	14.0	13.9	-0.0	1.0
R&D	29.7	35.3	35.5	0.2	5.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5.3	32.3	31.8	-0.5	-3.5
SOC	26.0	27.5	27.7	0.3	1.7
농림·수산·식품	27.0	27.9	28.0	0.2	1.0
국 방	61.3	66.3	65.9	-0.4	4.6
외교·통일	7.3	7.0	7.0	0.0	-0.3
공공질서·안전	25.8	27.2	27.3	0.1	1.5
일반·지방행정	127.2	121.1	121.4	0.3	-5.8
총지출	703.3	728.0	727.9	-0.1	24.6

주: 1. 예산(A)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상이할 수 있음
 3. 분류방식의 차이로 인해 12대 분야의 합계는 총지출과 상이함
 4. 12대 분야에 예비비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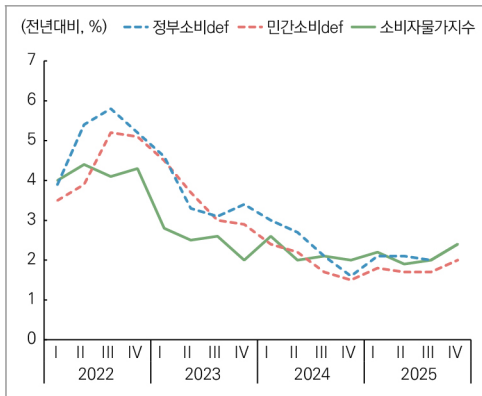
[표 II-7] 2026년 정부투자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명목정부투자	0.4	9.0	2.2	1.7	3.2
정부투자디플레이터	8.8	2.7	1.4	1.0	1.2
실질정부투자	-7.7	6.1	0.8	0.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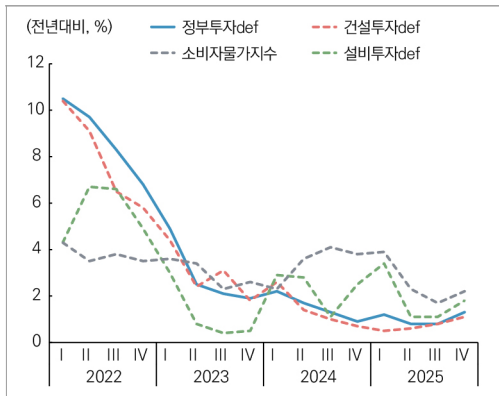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12] 정부소비디플레이터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13] 정부투자디플레이터



자료: 한국은행

제3절 민간소비

- 2026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1	0.7	1.9	1.3	2.1	1.2	1.7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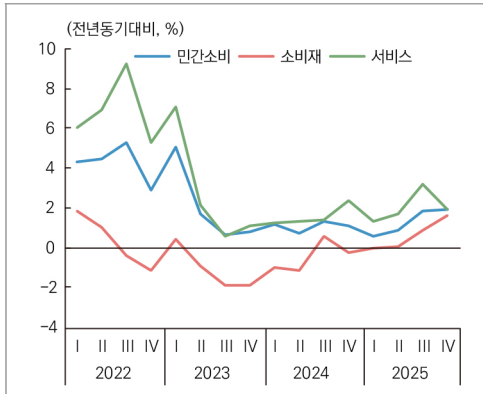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소득 증가 • 소비심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불확실성 및 물가 부담 •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잔액

2026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7%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 하반기 민간 소비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의 효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경기개선 기대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향후 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양호한 개선세를 보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잔액은 여전히 민간소비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향후 민간소비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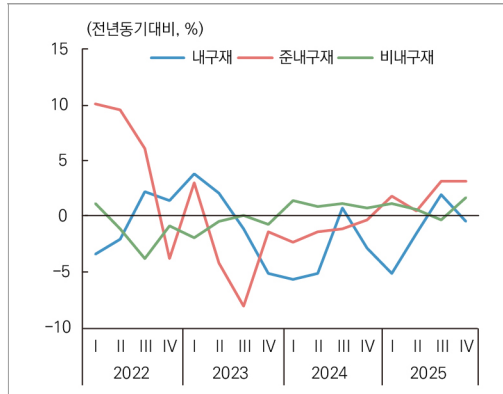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의복 등의 준내구재 소비와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 소비가 개선세를 보였고 서비스 소비 또한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며 민간소비 증가를 견인하였다.

[그림 II-14] 민간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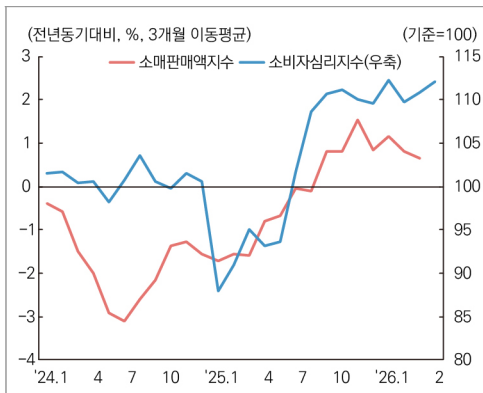
[그림 II-15] 재화형태별 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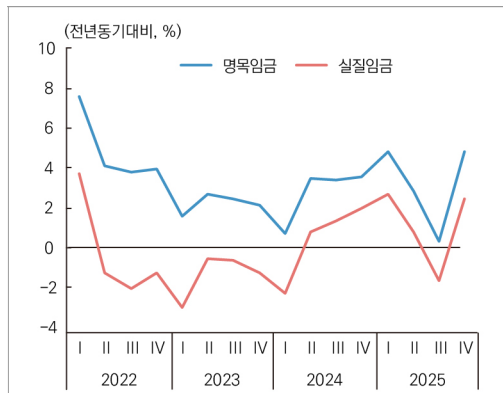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개선 기대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³⁶⁾ 가계의 소비 여건인 임금 증가율 또한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어 2026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증가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림 II-16]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그림 II-17] 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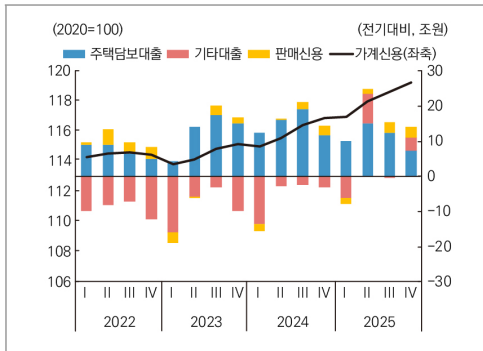
주: 5인 이상, 전체임금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36) 2026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 경기전망이 개선되어 전월대비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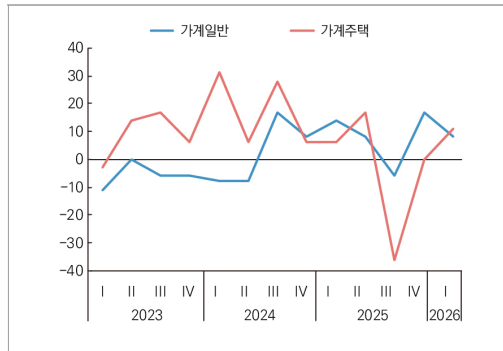
다만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민간소비의 하방요인이다. 2025년 4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1,171조 원이고 이는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약 63%를 차지한다.³⁷⁾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II-18] 용도별 가계신용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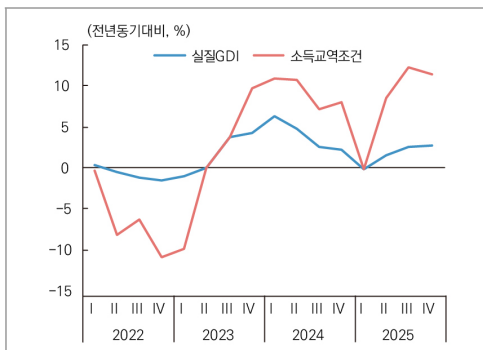
[그림 II-19] 국내은행 대출행태서베이



주: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부호는 그 반대를 의미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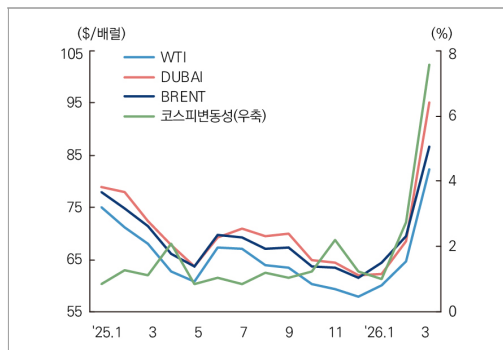
이번 전망은 직전 전망 수준을 유지하였다.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은 민간소비의 상승요인이나, 최근 유가 상승이 소비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며 국제유가 및 자산시장 가격 변동성이 큰 폭 상승할 경우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연결되어 민간 소비 전망의 하방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II-20] 실질GDI 및 소득교역조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21] 국제유가 및 코스피 변동성



주: 3월 코스피 변동성은 2~9일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국회예산정책처

37) 2015~2021년 기간 평균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56%이고 2022년부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제4절 건설투자

- 2026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8%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3.3	-12.2	-7.3	-9.8	-1.0	2.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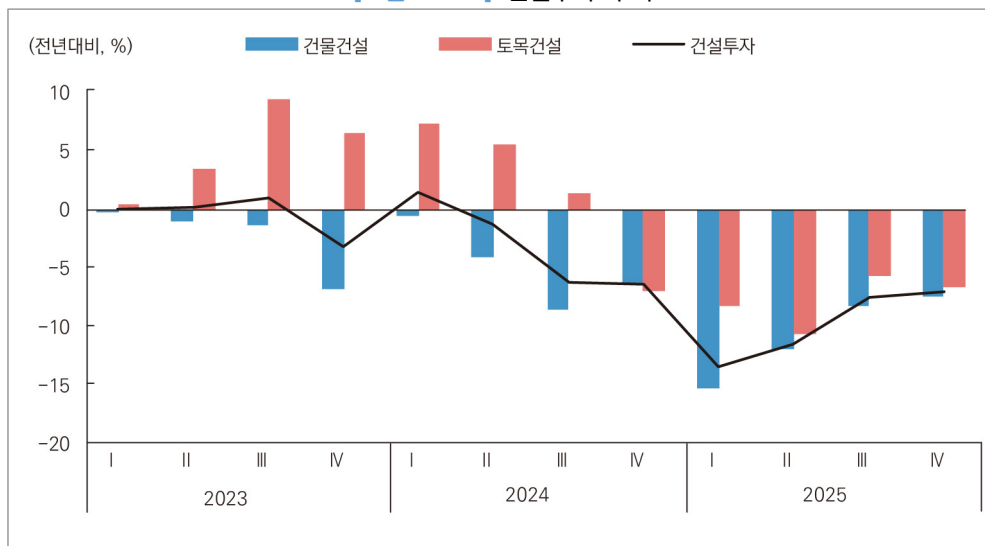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SOC 예산 확대	• 착공 부진 지속
•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 반도체 등 신산업 부문 공장 증설	• 주택 미분양 누적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연간으로 9.8% 감소하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자본재 형태별로 살펴보면 2025년에는 건물건설투자(-10.5%)의 장기적 부진에 더해 토목건설투자(-7.9%)의 감소 전환으로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II-22] 건설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2026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8%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주요 기업의 신산업 부문 공장 건설 계획은 건설투자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건축 착공 지연, 건설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미분양 누적 등은 건설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SOC예산은 철도건설·하천정비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3조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6년 토목건설의 주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 따르면 2026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27만 호의 신규주택 착공³⁸⁾이 예정되어 있어 공공주택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8] 2026년 SOC 부문별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증감액
도로	71,922	62,985	△8,937
철도	70,016	89,496	19,480
해운·항만	13,533	21,502	7,969
항공·공항	20,889	13,481	△7,408
물류 등 기타	33,467	40,993	7,526
수자원	21,878	23,824	1,946
지역 및 도시	19,860	22,663	2,803
산업단지	2,779	2,519	△260
합계	254,344	277,464	23,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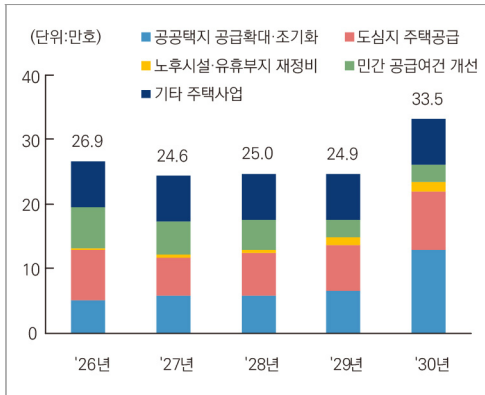
주: 국회확정 본예산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중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기업의 공장 건설 계획은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의 상방요인이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이며, 주요 IT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도 2026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38)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의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의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으로 관리(「주택공급 확대방안, 2025.9.7.)

**[그림 II-23] 향후 5년('26년~'30년)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 계획**



주: 착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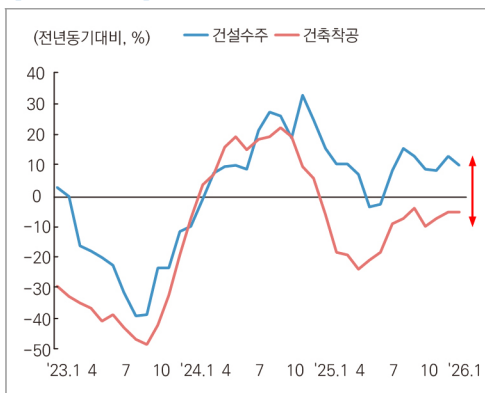
자료: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 관계부처 합동 자료: 신문 기사 재정리

[표 II-9] 지역별 신산업 부문 공장 건설 계획

지역	내용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남	국가 AI 컴퓨팅센터, OpenAI-SK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울산	SK텔레콤-AWS AI 데이터센터
구미	삼성 AI 데이터센터

그러나 건설수주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축착공면적 감소는 2026년 건설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축착공 지연은 공사 기간 확대 및 건설기성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의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인건비, 자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는 기업의 신규 건설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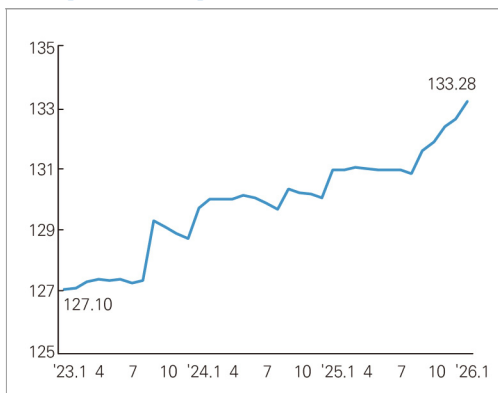
[그림 II-24] 건설수주 및 건축착공면적 추이



주: 6개월 이동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그림 II-25] 건설공사비지수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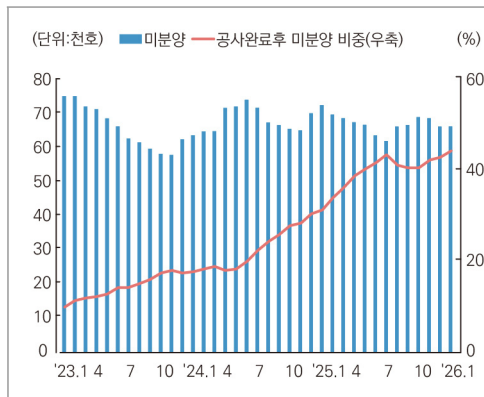


주: 1)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에 노무비 가격 (대한건설협회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을 결합하여 산출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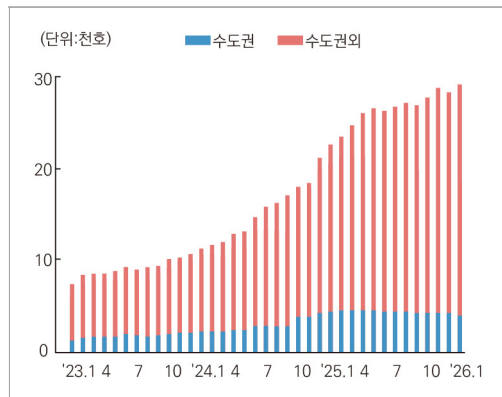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되고 있는 주택 미분양 또한 주거용 건물건설 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2026년 1월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44.4%를 기록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외 지역이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회복세 둔화가 2026년 건설투자의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6]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I-27] 준공 후 미분양주택 추이(지역별)



자료: 국토교통부

제5절 설비투자

- 2026년 설비투자는 2.2%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7	4.5	-0.4	2.0	1.9	2.6	2.2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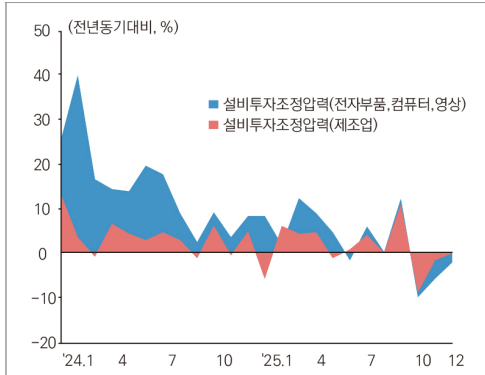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AI 관련 반도체 수요 급증 주요 선행지표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자본재 비용 부담 증가 무역 정책 불확실성

2026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2.2%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전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1.9% 증가, 하반기에는 반도체 설비 중심으로 성장이 좀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2.6% 증가를 각각 전망하였다. 2026년 설비투자의 주요 상방요인은 전 세계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국내 자본재 수입액 및 기계 수주와 같은 선행지표 역시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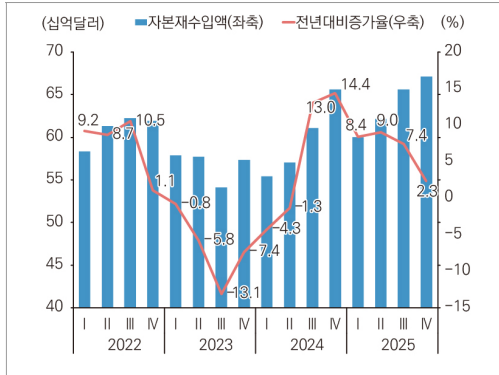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중립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대표적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은 2025년 전년 대비 증가세는 기저 효과로 인해 하향 추세를 보이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II-28]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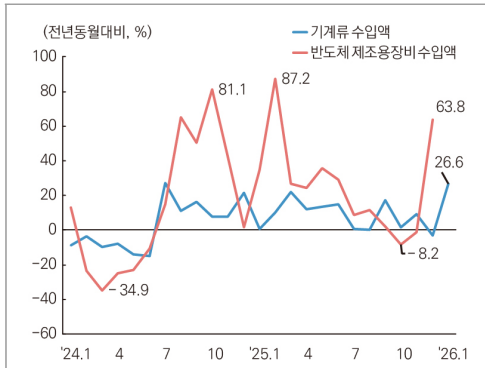
[그림 II-29] 자본재 수입액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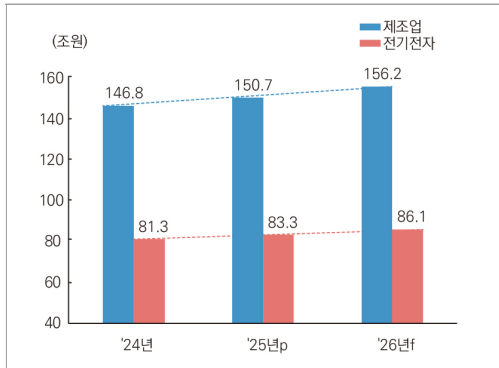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이 2026년 1월 중 전년동월대비 63.8% 증가하는 등 큰 폭의 확대를 보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에 의하면 기업은 설비투자에 대해 2024년 146.1조원에서 2025년 150.7조 원, 2026년 156.2조원으로 점진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림 II-30] 기계류 수입액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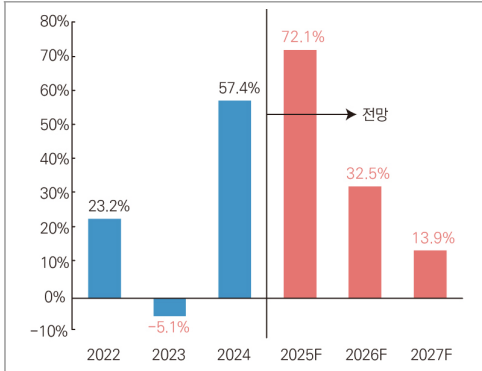
[그림 II-31]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주: p잠정, f전망
자료: 한국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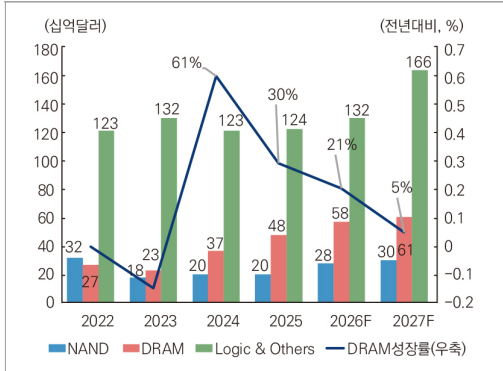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는 2024년부터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5년 이후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024~2025년 중 큰 폭으로 증가(72.1%)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32.5%, 13.9%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DRAM 반도체 설비투자는 2026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증가와 맞물려 국내 설비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32] 글로벌 빅테크 기업¹⁾의 자본지출 증감률



주: 1)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애플, 오라클, 코아위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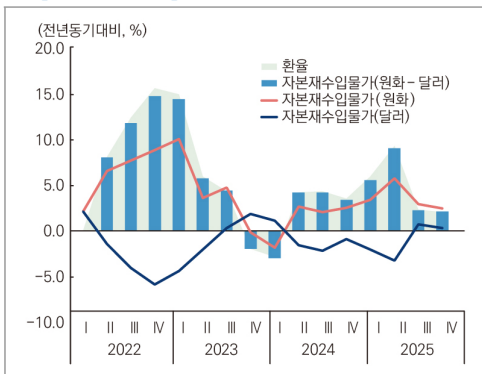
[그림 II-33] 세계 반도체 유형별 생산능력 전망



자료: Gartner,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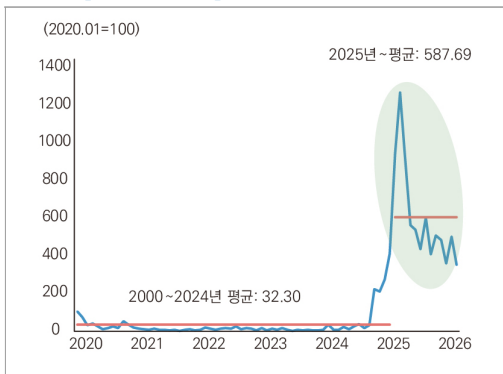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의 요인들은 설비투자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4년간 자본재 수입물가(달러기준)는 하향 안정되는 모습이나, 원화 기준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환율 상승이 수입 자본재 가격에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고환율의 상황에서는 자본재 수입가격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기업의 투자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설비투자에 점진적인 하방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³⁹⁾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II-34] 자본재 수입물가 및 환율



주: 자본재 원화기준 물가와 달러기준 물가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 차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5] 무역정책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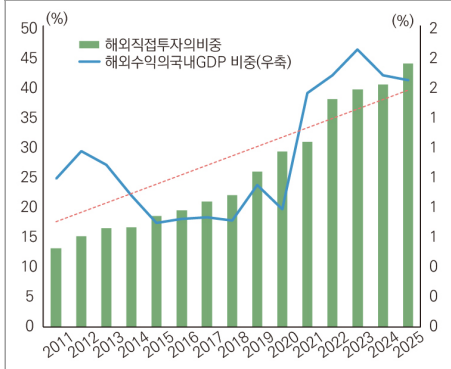
자료: policyuncertainty.com

39)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 2026년 2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근거하여 다시금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BOX 6]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설비투자의 영향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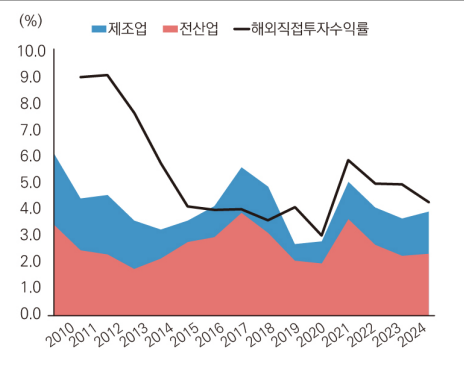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미국의 자국 중심 산업 정책 강화 등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12.1% 정도였으나,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 들어 44.3% 수준이 되었다. 또한 해외 직접투자 대비 수익률이 국내 총산업 및 제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수익의 GDP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국제수지'

[기업 ROA와 해외직접투자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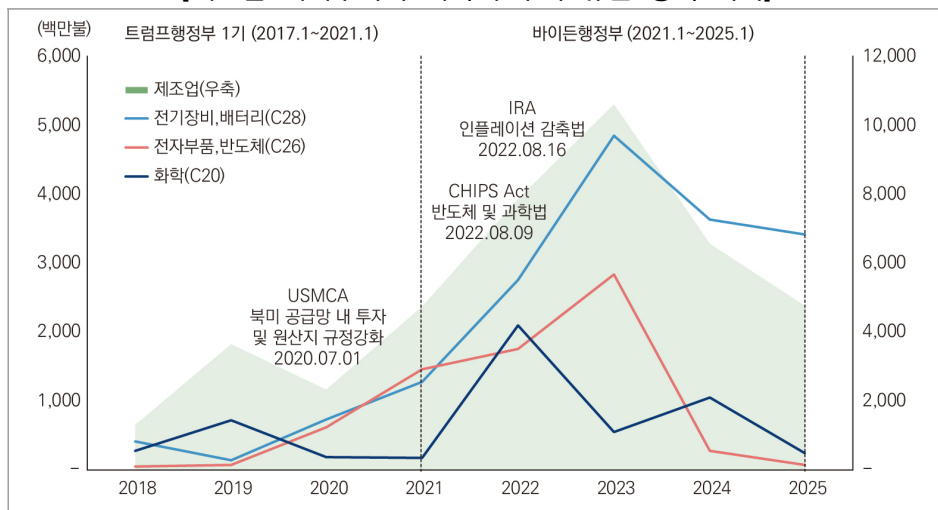
주: ROA = 당기순손익/자산총계,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은 직접투자소득수입/직접투자(잔액)으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국제수지' '기업경영분석-재무상태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까지는 아시아의 비중이 높았으나, 2021년 북미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아지면서, 2025년 기준 39.4%(미국, 29.0%)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금액은 9월까지 집계된 기준으로 16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대미 직접투자에서 금융보험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직접투자가 2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위 3개 투자 업종은 전기장비업종(C28, 37.1%), 전자부품 및 반도체 업종(C26, 16.8%), 화학 업종(C20, 13.9%)이며, 총 68%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 업종들은 그동안 시행된 미국 행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에 따라 2020~2023년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였다.

40) 본 내용은 「NABO 경제동향 & 이슈」 140호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조업 대미투자과 미국의 투자 유인 정책 시기]



자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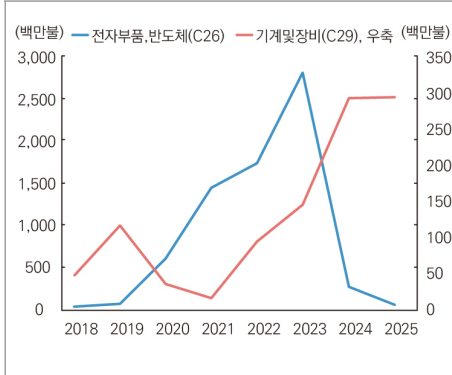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지 또는 보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산업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해외 생산거점 구축이 국내 본사의 연구개발 및 중간재 생산을 확대시키는 보완효과도 가능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황을 좀 더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관찰된다.

첫째, 우리나라 대미 투자기업은 중간재 및 부품을 약 60% 정도 한국 모기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한 수출 유발효과⁴¹⁾는 112.7%, 수입 유발효과는 6.3%로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106.4%로, 전 세계 평균이 39.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미 투자기업의 매출은 약 80% 정도가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미 진출은 내수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세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주요 대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는 협력업체의 동반 진출을 유도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확대 시점에 소재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업종의 투자 확대 이후, 시차를 두고 기계 장비 업종의 투자가 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새로운 공급망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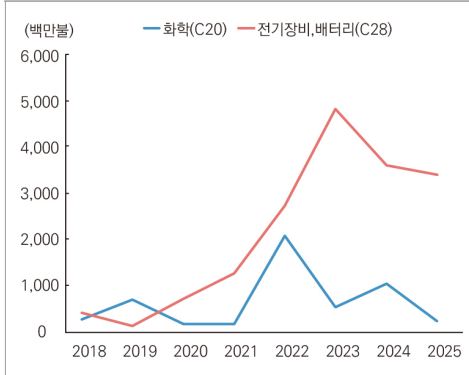
41) 한국수출입은행의 2025년 발간한 「2024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유발효과는 수출액(한국→현지법인)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값이고, 수입유발효과는 수입액(현지법인→한국)을 투자잔액으로 나눈 값이다. 수출유발효과와 수입유발효과를 차감한 것이 무역수지 개선효과이다.

[반도체 및 장비 제조업 대미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배터리 및 소재 제조업 대미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위와 같은 상황을 국내 설비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미 투자 확대로 해외 생산이 증가할 경우, 국내 본사가 공급하는 부품 및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과 설비투자가 유도하는 보완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대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와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은 국내 생산 기반의 일부를 약화시키는 대체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동시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거나,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공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보완효과도 함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연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 데이터 및 분석 단위

- 데이터 : 한국은행(ECOS) '기업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분석 단위 : 2010~2024년, 전산업, 제조업

○ 변수 정의

- 종속변수 : 설비투자(설비자산/자산총계), 설명변수 : 대미투자(차분)
- 통제변수($X_{i,t}$) : 매출액성장률, 수익성, 현금비중
- 산업(또는 기업군) 고정효과 : μ_i , 연도 고정효과: λ_t , 오차항 : $u_{i,t}$

$$\text{설비투자}_{i,t} = \alpha + \sum_{k=1}^2 \beta_k \text{대미투자}_{i,t-k} + \gamma X_{i,t} + \mu_i + \lambda_t + u_{i,t}$$

분석 결과, 전산업 및 제조업 전체에서 대미 직접투자 확대는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설비투자를 증가시키는 보완적 관계가 나타났다. 전산업 기준으로 대미 직접투자액이 전년 대비 1% 증가할 경우, 약 2년 후 국내 설비투자율이 약 0.07%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어,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다만 추정 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고, 산업별 이질성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한 보완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미 투자의 국내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 분석]

표본	대미투자(t-2)	p-value	비고
전산업	0.000718	0.0185	보완(+), 유의
제조업 전체	0.000670	0.0305	보완(+), 유의

이러한 결과는 대미 직접투자가 국내 생산기반을 단순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업의 생산 및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본사가 연구개발, 핵심 부품 생산, 정밀 공정, 고부가가치 공정 등을 계속 담당함에 따라 국내 투자 수요도 함께 유지·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외 진출 확대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과 고도의 정밀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이 다시 고부가가치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도록 정책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약 60% 수준인 중간재 조달률이 미국의 현지화 압박 등으로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⁴²⁾

42) 2026년 1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여기에는 소부장을 포함하여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같은 기업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제6절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2026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3%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2	1.9	3.7	2.9	3.6	3.1	3.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정부 R&D 예산 확대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비용 상승 컨텐츠 산업 성장세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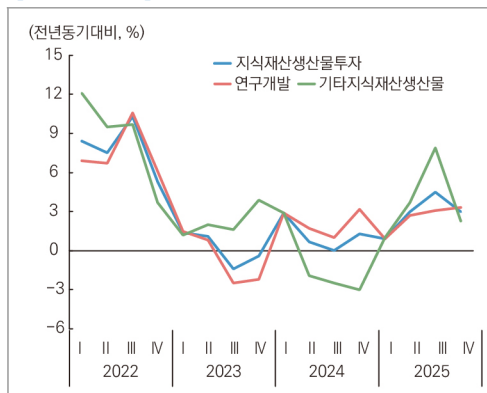
2026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3.3% 증가할 전망이다. 상반기 3.6%, 하반기 3.1%로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실적을 보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상반기 1.9%, 하반기 3.7% 증가하여 하반기 들어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2.9% 증가하였다.

구성 항목별로 보면 지식재산생산물투자액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자가 2.5% 증가하였고, 기타 지식재산생산물투자⁴³⁾는 3.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관련 서비스업 지표를 보더라도 최근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여건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생산은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2025년 10월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 역시 지난 6개월 동안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황소정 경제분석관(sjhwang@assembly.go.kr, 6788-4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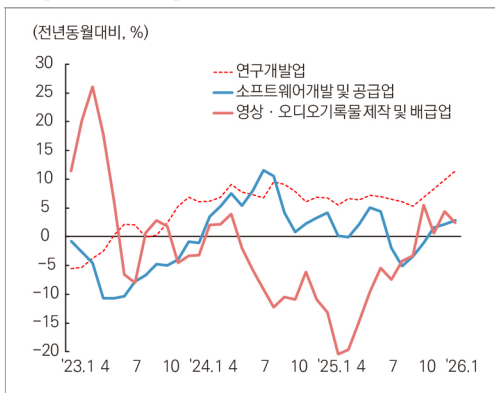
43)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광물탐사 등을 포함한다.

[그림 II-36] 유형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7]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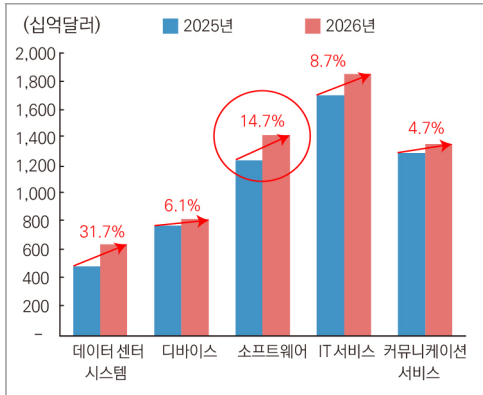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주요 상방요인으로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의 확대와 정부 R&D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AI 서버 수요 급증에 힘입어, AI 개발에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수요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수요 확산에 따라 관련 IT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6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지출이 전년 대비 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⁴⁴⁾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2025년~2029년 동안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련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역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정부 R&D 예산은 35.5조원으로 2025년 대비 19.9% 증가⁴⁵⁾하였다.

44)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Vertical SW)란 특정 산업이나 업종의 요구와 프로세스에 맞춰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뜻한다(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SW 융합 경쟁력 진단체계 구축 및 시사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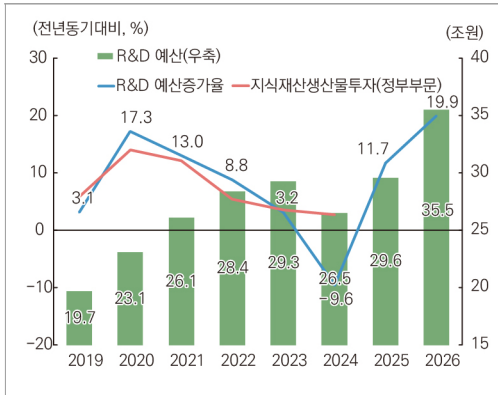
45) 2026년도 예산안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며, 그 중 AI 관련 투자 규모는 9조 9,000억 원이다.

[그림 II-38] 전 세계 IT 지출 전망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자료: Gartner(2026.2)

[그림 II-39] 정부 R&D 예산 추이



주: 본예산 기준
 자료: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한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연구개발 장비 가격 상승 등으로 연구개발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 투자 특성으로 투자의 변동성이 크며, 최근 기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세를 일부 제약할 수 있는 하방 위험 요소들도 나타나고 있다.⁴⁶⁾

46) 게임 콘텐츠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이 감소, K팝 음반 판매량은 정체되는 추세, 영상 콘텐츠는 중국이 우위에 있는 숏폼 위주의 플랫폼이 성장, 글로벌 OTT 구매 확대로 제작비가 상승하면서 제작 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한국수출입은행, '콘텐츠 산업 현황과 분야별 쟁점', 2025).

제7절 대외거래

- 2026년 총수출은 2.5%, 총수입은 2.4% 증가할 전망
- 2026년 통관수출은 11.9%, 통관수입은 6.2% 증가할 전망
- 2026년 경상수지는 1,7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총수출	6.8	3.0	5.4	4.2	3.3	1.8	2.5
총수입	2.5	3.3	4.4	3.8	2.7	2.2	2.4
상품수출(통관)	8.1	0.0	7.4	3.8	16.7	7.6	11.9
상품수입(통관)	-1.7	-1.5	1.5	0.0	7.6	4.9	6.2
경상수지	1,000	479	752	1,231	798	902	1,70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AI 관련 반도체 경기 호조	• 세계 수입 수요 위축
	•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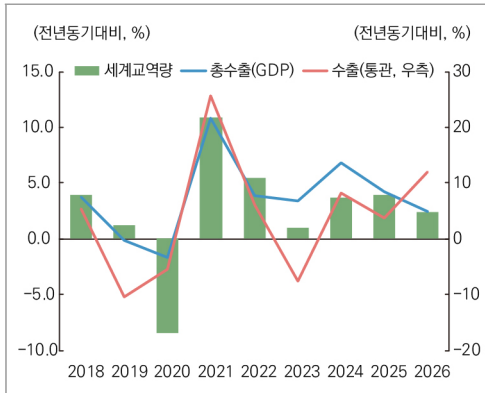
2026년 총수출(국민계정, 실질)은 전년대비 2.5% 증가할 전망이다. 높아진 AI 관련 세계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 호조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 예정이다. 하지만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와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반도체 이외 품목의 수출은 증가세는 제약될 전망이다. 2026년 총수입(국민계정, 실질)은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며 상품수입이 전년대비 늘겠으나, 서비스 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26년 통관기준 상품수출은 반도체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금액이 큰 폭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통관기준 상품수입도 최근 증동 전쟁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 상승하여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관련 품목의 수입 금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설경원 경제분석관(kwseol@assembly.go.kr, 6788-4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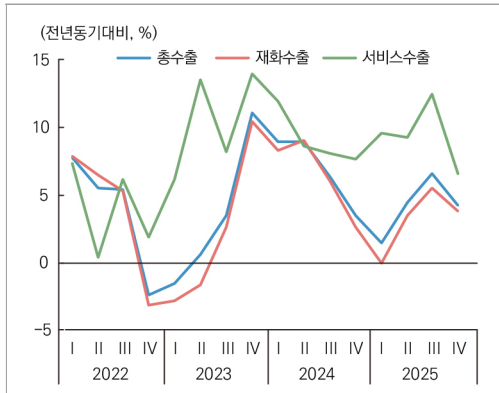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총수출은 세계교역량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선박 등의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 영향으로 재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 수출 역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지속되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II-40] 수출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관세청, IMF, World Bank,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C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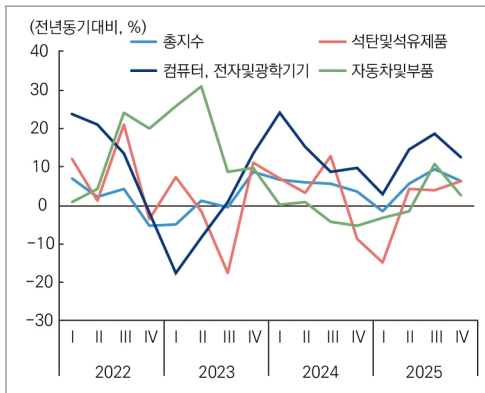
[그림 II-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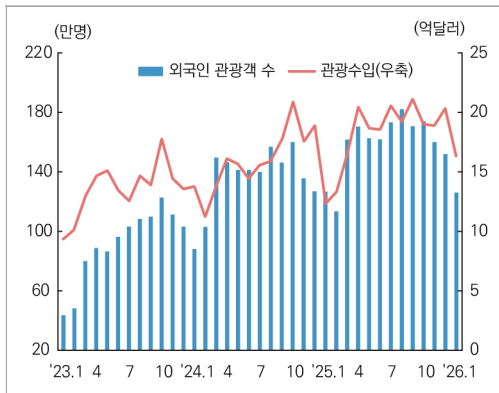
2026년 중에도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며 IT 관련 품목 수출이 우리 수출 증가세를 견인할 예정이다. 다만 세계교역량⁴⁷⁾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중동 전쟁으로 세계 수요가 위축되어 IT 이외 품목의 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수준에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수출 증가폭도 축소될 예정이다.

[그림 II-42] 품목별 수출물량지수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3] 외국인 관광객 수 및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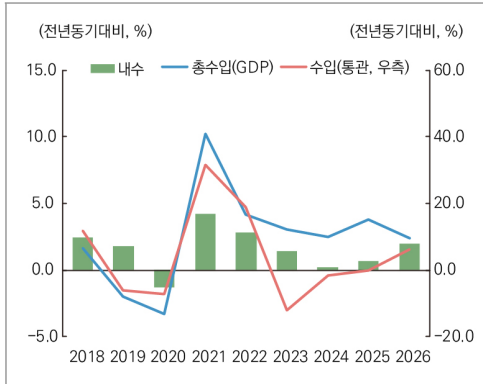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47) 세계교역량 관련 전망은 제1부 동향 제1장 세계 경제 부문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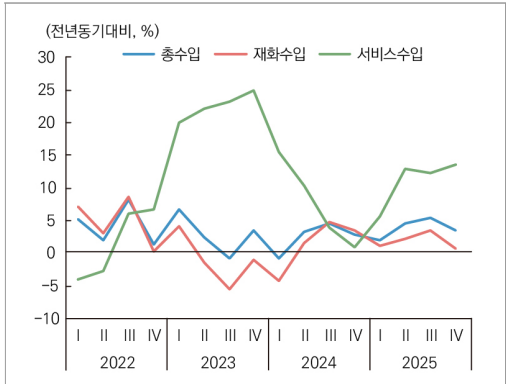
2026년 총수입은 2025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내수 회복세가 2026년에도 이어지며 소비재 및 반도체 관련 자본재 상품수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여 서비스 수입 증가폭이 축소되고 총수입 증가폭도 전년대비 축소될 예정이다.

[그림 II-44] 수입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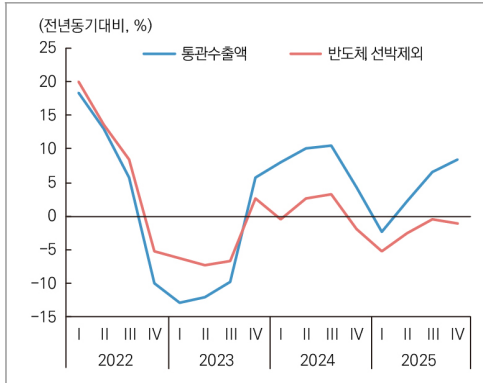
[그림 II-45] 재화 및 서비스 수입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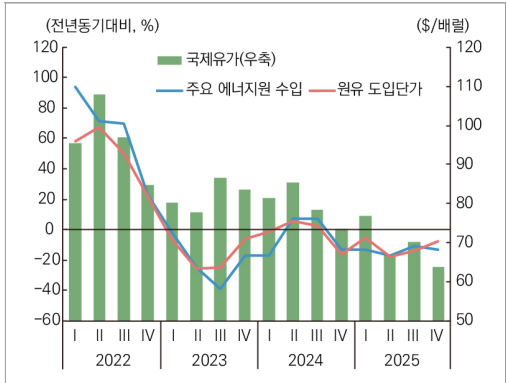
한편 2026년 통관수출은 반도체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6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39% 상승할 것으로 세계반도체협회(WSTS)는 전망하고 있으며 수요 확대와 함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한편 통관수입은 국내 수요 증가의 영향뿐 아니라 최근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관련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II-46] 통관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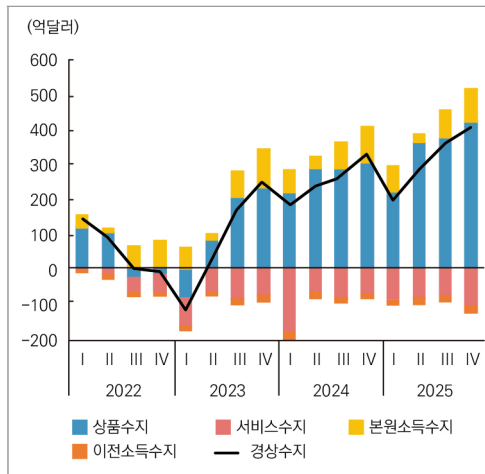
[그림 II-47] 국제유가와 주요 에너지원 수입



주: 주요 에너지원은 석탄, 가스, 석유, 석유제품을 의미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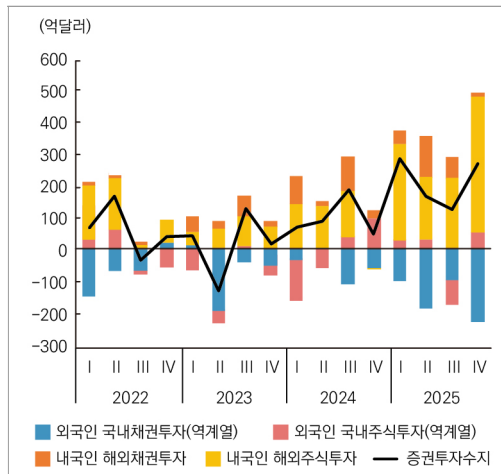
2026년 경상수지는 1,700억 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은 관련 재화 수입 금액을 증가시켜 상품수지 흑자 폭을 일부 축소시킬 예상이나 반도체 품목의 높은 단가가 수출 금액을 큰 폭 상승시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연구개발서비스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흑자 폭 확대가 예상된다.

[그림 II-48]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9] 증권투자수지 추이



주: 내국인 해외투자는 자산(+)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부채(-)

자료: 한국은행

제8절 소비자물가

- 2026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2.3	2.1	2.2	2.1	2.3	2.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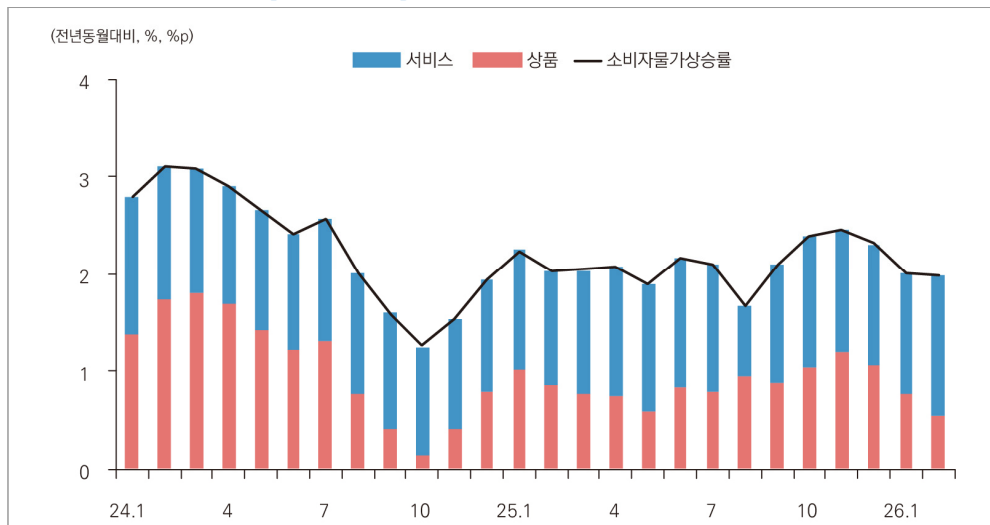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 글로벌 원유공급 안정
•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 서비스 물가 상승압력 지속	• 완만한 내수 회복세

소비자물가는 2022년 5.1%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며 2025년에는 연간 2.1%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상품물가(2.0%)와 서비스물가(2.2%) 모두 물가목표치인 2.0%에 근접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기여도 측면에서는 서비스물가가 상품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림 II-50]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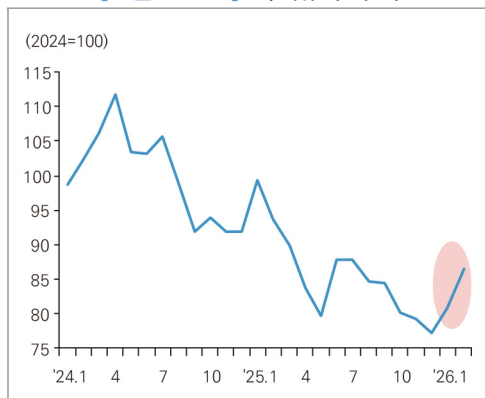
박선우 경제분석관(psw@assembly.go.kr, 6788-3733)

2026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상승할 전망이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물가 목표 대비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서비스 물가 상승압력 지속 등은 소비자물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글로벌 원유공급 안정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완만한 내수 회복세 등은 소비자물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던 국제유가는 2026년 2월 발생한 중동 지역 분쟁으로 최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제유가(3종 평균)는 2026년 1월 배럴당 63.7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전쟁 발생 직후인 3월 초에는 배럴당 94.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국제유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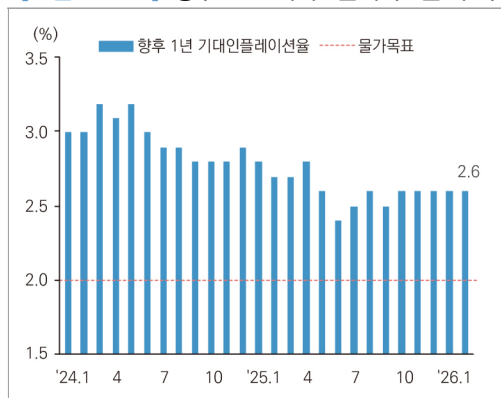
또한 2026년 2월 기준으로 민간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물가 목표(2.0%)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2.6%를 기록하고 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며 소비자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II-51]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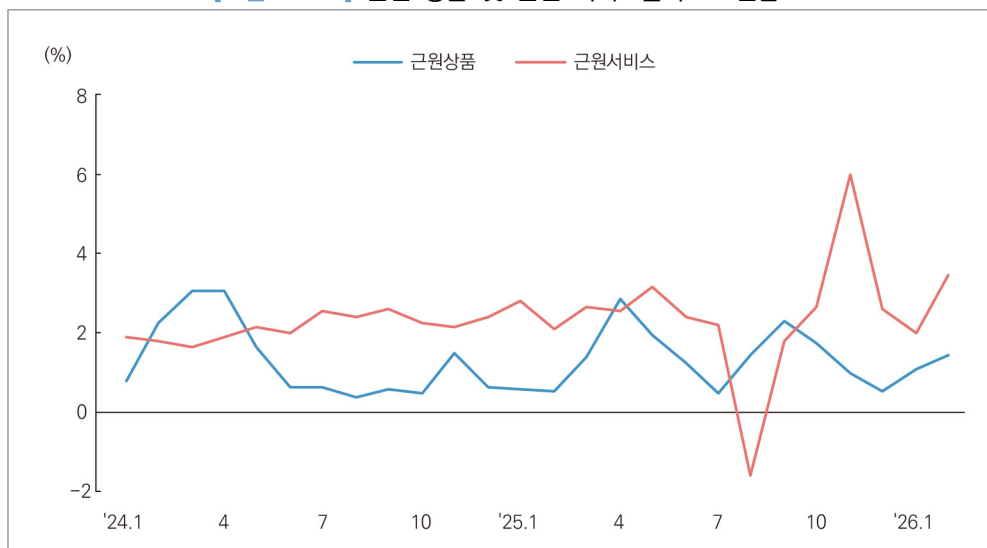
주: 국제유가 3종 평균
자료: Bloomberg

[그림 II-52]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최근 소비자물가상승이 주로 서비스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2026년 소비자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들어 보험료 상승, 장기수선충당금(공동주택관리비) 인상 등 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어 2026년에도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53] 근원 상품 및 근원 서비스¹⁾ 모멘텀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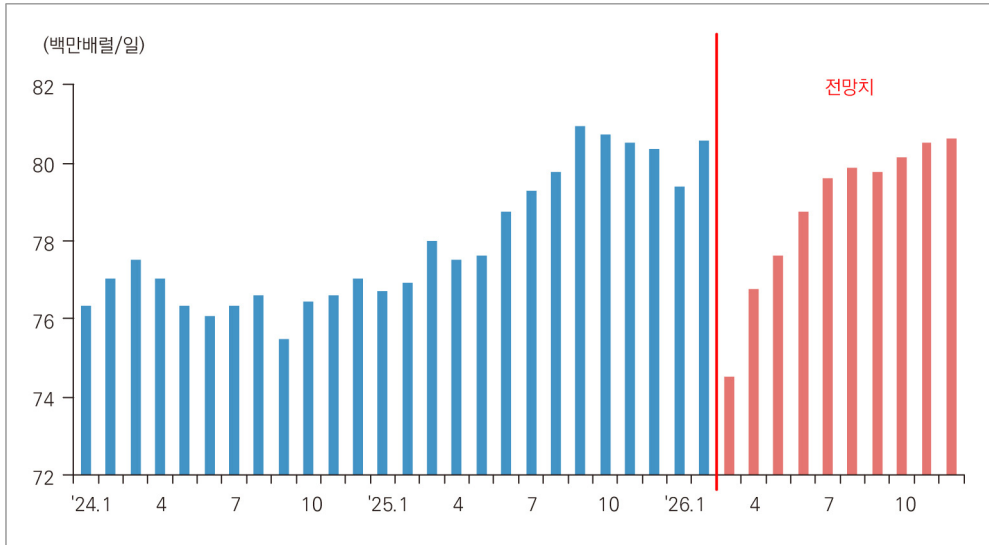
주: 1) 변동성이 큰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품목(309개)을 상품 및 서비스 품목으로 재분류하여 산출
 2) 계절조정지수의 3개월 변화율(연율)
 1. SK텔레콤 요금 50% 할인(25.8월) 이벤트에 따라 근원서비스물가 모멘텀은 8월에 한 번 크게 하락하였다가 11월에는 8월의 기저효과로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3개월 변화율(연율) 계산식에 따른 기저적 결과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원/달러 환율의 경우 2026년 1월 1,456.5원에서 2월 1,449.3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근 중동 분쟁 사태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쟁 장기화로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⁴⁸⁾

반면 글로벌 원유공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 될 경우 국제유가 상승이 제약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동 사태 이후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국제 에너지 위기 완화를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6년 세계 원유 생산량은 중동 전쟁 직후인 3월에 큰 폭으로 감소하겠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연간으로는 2025년 대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8) 고회환을 국면에서의 환율-물가 전가효과에 대한 분석은 [BOX 7] 참고

[그림 II-54] 세계 원유 생산량



자료: EIA(2026.3.10. 기준)

정부에서도 할당관세 지원 연장,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 지정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 정책은 2026년 중 소비자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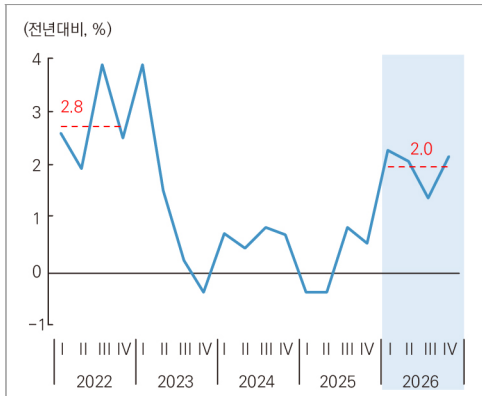
[표 II-10]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내용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26.4.30.)
• 할당관세 지원 연장: ① 계란가공품 등 12종 (~'26.6.30.) ② 설탕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 (~'26.12.31.)
• 용량 핏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 ('25.12~)
•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 발표 ('26.2.25.)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구성 ('26년 상반기 집중 가동 및 필요시 연장) -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국민 제안창구 개설 ('26.2.27.)
•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 ('26.3.13~)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6.3.13.)

자료: 관계부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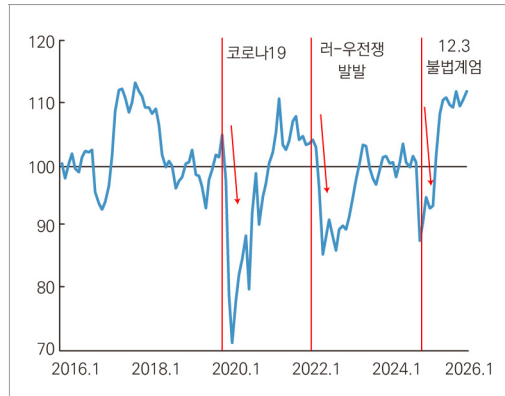
또한 최근 발생한 중동 사태로 내수가 예상보다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경우 수요측면에서 소비자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2026년 내수 성장률은 2.0%로 지난 3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과거 코로나19·러우전쟁 등 글로벌 충격 발생 직후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위축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소비자심리가 시차를 두고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림 II-55] 내수 성장률 추이



주: 1. 점선은 전년대비증감률
2.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림 II-56]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BOX 7] 환율 수준별 소비자물가 전가 효과 분석

환율 변동이 소비자물가 변동으로 이어지는 환율-물가 전가효과(pass-through)는 환율 수준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환율 수준이 낮을 때에는 기업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마진율을 조정함으로써 판매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으나, 환율 수준이 높아져 원가 부담이 누적되면 기업들이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유인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Jordà(2005)의 국소투영법(Local projection)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상태의존 국소투영법(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을 활용하여 환율 수준별 소비자물가에 대한 환율 전가 효과를 추정하였다.

$$y_{t+h} = \alpha_h + \sum_{j=1}^3 \beta_j X_{t-j} + \gamma Shock_t + \delta D_{t-1} Shock_t + \epsilon_{t+h}$$

y : 소비자물가상승률

X : 통제변수(GDP갭률, 수입물가상승률, 회사채금리, 유가상승률)

$Shock$: 환율충격

D : 고환율 상태더미(*dummy*)

상태더미 D 는 고환율 국면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원/달러 환율 수준이 분석 기간(2000.4월~2025.12월) 전체 분포의 상위 25% 이상인 경우를 $D = 1$ 로 정의하였다.

환율충격은 6변수(유가, 환율, 수입물가, GDP갭률, 회사채금리, 소비자물가) SVAR 모형을 이용하여 출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 방식⁴⁹⁾으로 식별하였다⁵⁰⁾. 이때 GDP갭률과 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차분 값을 사용하였으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기준과 잔차의 자기 상관 검정을 통해 3기 시차를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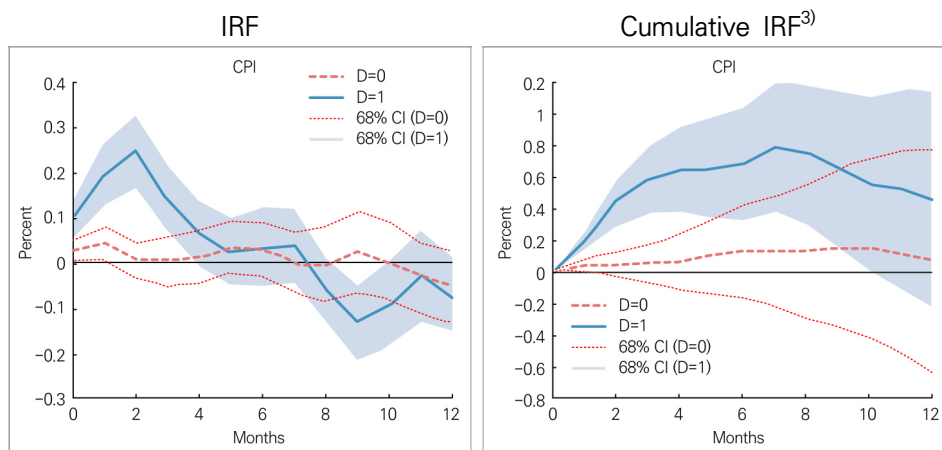
49)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식별 순서는 유가, 환율, 수입물가, GDP갭률, 회사채금리, 소비자물가 순서를 사용하였다.

50) 단, VAR 모형을 이용해 충격 변수를 식별하는 경우 해당 충격의 외생성은 추정된 VAR 시스템(본 분석에서는 선형 VAR)과 부과한 식별제약하에서만 성립한다는 한계가 있다.

분석 결과, 비(非) 고환율 수준 상태($D=0$)에서 1%p 환율충격은 소비자물가를 약 0.03~0.04%p 상승시키며 그 효과도 1개월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환율 상태($D=1$)에서 1%p 환율충격은 충격 발생 이후 3개월에 걸쳐 최대 0.25%p까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IRF 결과에서도 고환율 상태($D=1$)에서는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환율 전가 효과는 충격 발생 이후 9개월간 지속되었다.

2026년 연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증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⁵¹⁾에 따라, 2026년에도 환율은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환율 국면에서는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율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환율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상승률 충격반응함수(IRF)]



주: 1. Local projection에서는 $h>0$ 인 경우 오차항이 구조적으로 자기상관을 가지므로 Jordà (2005)에 따라 Newey-West 표준오차 사용

2. 음영은 68% 신뢰구간

3. Local projection의 cumulative IRF는 각 horizon별 누적 종속변수를 직접 추정함 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1) 국회예산정책처 내부 전망치 기준

2026년 NABO 경제전망

Ⅲ

생산전망

제1장 |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 부문별 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026년 실질 GDP⁵²⁾ 수정 전망(2.0%)은 이전 전망⁵³⁾(1.9%) 대비 0.1%p 상향 조정되었다.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3.3%)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공급과잉 압력이 성장의 폭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 전망(1.5%) 대비 1.8%p 상향 조정하였다.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1.7%)는 전년의 부진한 민간소비가 일부 개선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금융업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보건업 등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기 전망(2.0%)보다 0.3%p 하향 조정하였다.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0.3%)는 최근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사비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으로 인해 착공과 기성이 20개월 이상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공사원가 인상으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CBSI)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건설업 전반의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중기 전망(0.6%)보다 0.3%p 하향 조정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 부가가치(2.2%)는 전력 수요가 큰 반도체 등의 제조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정되어 가던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과 향후 원유 및 천연가스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중기 전망(4.2%)보다 2.0%p 하향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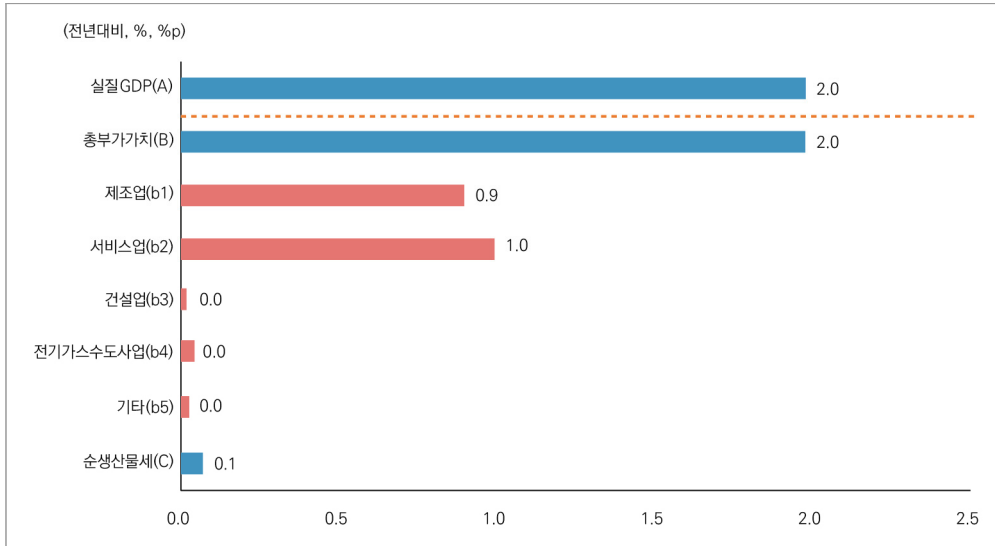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kwonil@assembly.go.kr, 6788-3781)

52) 국민계정에서 생산 GDP는 총부가가치와 순생산물세로 구성되고, 총부가가치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농림어업, 광업으로 구성된다. 단, 농림어업, 광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생산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작아 본 보고서에서는 기타로 통합하여 전망하였다.

5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2029」, 2025.9.

총부가가치(2.1%)는 제조업 부가가치 전망 상향 등의 영향으로 중기 전망(1.9%)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고, 순생산물세(1.0%)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에 따른 생산물세(부가가치세, 수입세 등) 환급 증가를 고려해 0.8%p 상향 조정하였다.

[그림 III-1] 2026년 생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 기여도



주: $A=B+C$, $B=b1+b2+b3+b4+b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III-1] 2026년 생산국민소득 수정 전망(전망 차이)

(단위: %, %p)

	25.9월 전망	26.3월 전망	차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1.9	2.0	0.1
총부가가치	1.9	2.1	0.2
제조업	1.5	3.3	1.8
서비스업	2.0	1.7	-0.3
건설업	0.6	0.3	-0.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2	2.2	-2.0
기타	2.9	1.6	-1.3
순생산물세	1.8	1.0	-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장 부문별 전망

제1절 제조업

- 2026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3% 증가할 전망
- 2025.9월 전망에 비하여 1.8%p 상향 조정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4.3	1.3	2.7	2.0	4.3	2.5	3.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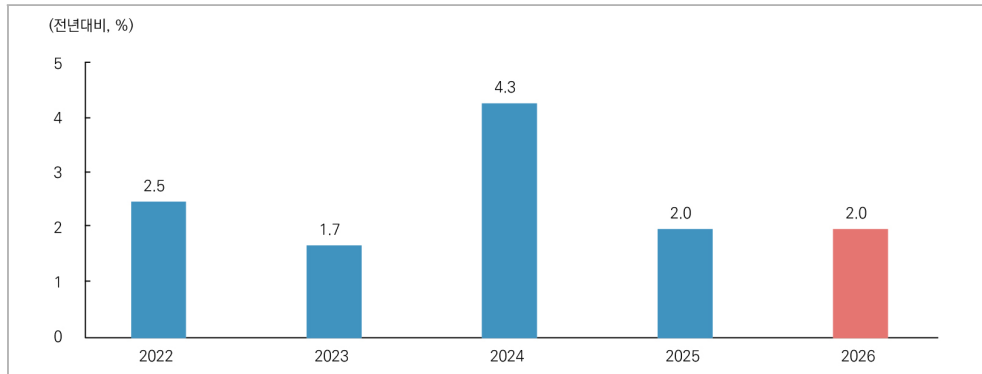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수요 확대 • 공급망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 상승 • 보호무역주의 및 관세 장벽 강화 • 중국발 공급과잉 및 기술 추격

2026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3.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2.0%) 대비 성장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며, 기존 전망치(1.5%)를 1.8%p 상회하는 수치로 제조업의 견조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에는 주요 수출 대상국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세부 성장 경로를 살펴보면, 상반기(4.3%)에 비해 하반기(2.5%)에는 성장률이 다소 완만해지는 흐름이 보이는데 이런 추세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저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중동 지역의 갈등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요 항로의 해상운송 차질을 야기하여 기업

의 수익성 악화 및 생산 원가 부담을 하반기까지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에 가해지는 중국의 공급과잉 압력은 전반적인 제조업 성장의 폭을 제한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III-2]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계경제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전반적인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⁵⁴⁾ 국제통화기금(IMF, '26.1월)에 따르면,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3%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2.4%)을 중심으로 선진국(1.8%)의 양호한 성장세와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4.2%)의 성장세 지속에 기인한다. 점차 안정화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3.8% 수준)과 주요국의 내수 진작 정책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공급과잉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60달러 초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일시적인 유가 급등(브렌트유 배럴당 100~150달러 예상)은 새로운 하방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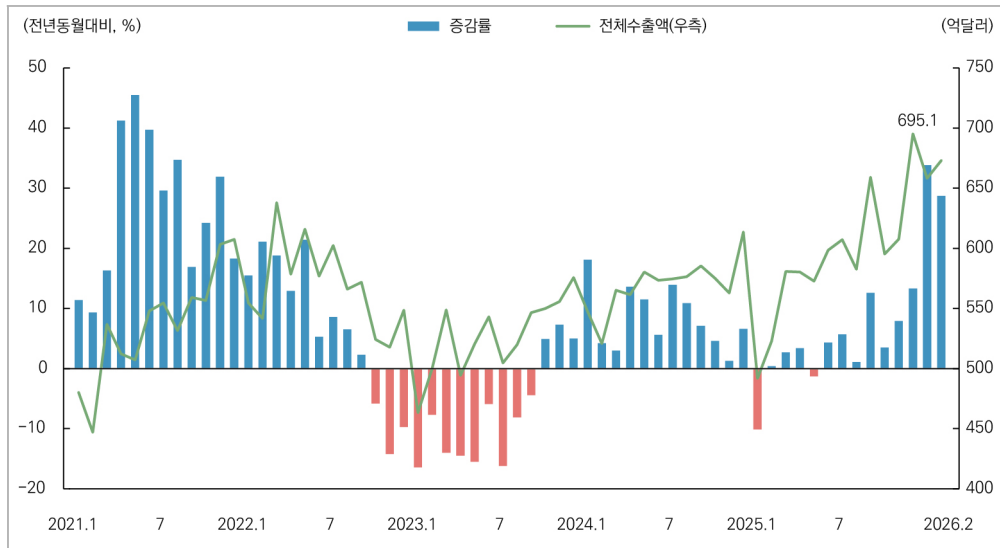
제조업 경기를 견인하는 수출의 흐름은 2023년 저점을 통과한 이후, 반도체 및 AI 신산업 중심의 수요 확대가 뒷받침되며 전년부터 지속적인 우상향 곡

54)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제 I 부 동향의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전망' 참조

55) IMF는 2025년 12월 이후 국제 유가가 약 50% 급등했으며,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글로벌 물가는 0.4%p 상승하고 실질성장률은 0.1~0.2%p 하락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IMF, "Coping and Thriving in a Fluid World," 2026.3.9.

선을 그리고 있다. [그림 III-3]에서 보면, 2025년 하반기 이후 월간 수출액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6년 1월에는 수출액 규모가 700억 달러 선에 근접하는 등 양적인 성장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감률 측면에서는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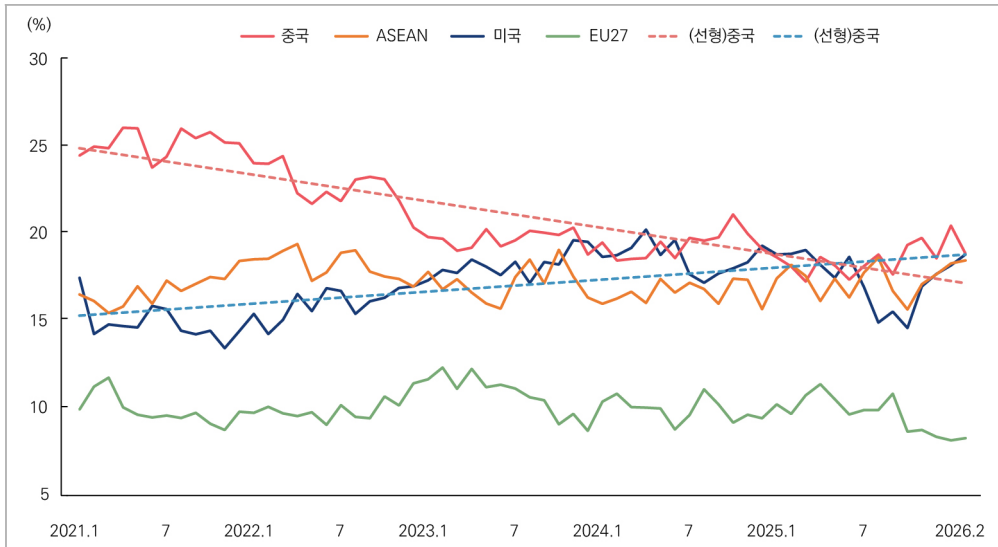
[그림 III-3] 월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무역 상대국별 수출액 비중을 보면, 2021년 25%를 상회하던 대중 수출 비중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중국 내수 구조변화의 영향으로 20%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북미 시장 내 우리 기업의 점유율 확대와 투자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며 중국과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2025년 전후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역전되거나 격차가 최소화되었다. 아세안(ASEAN) 시장 역시 안정적인 비중(최근 5년 평균 17.3%)을 유지하며 수출 다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EU는 1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나, 2025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출 지형의 다변화는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가 커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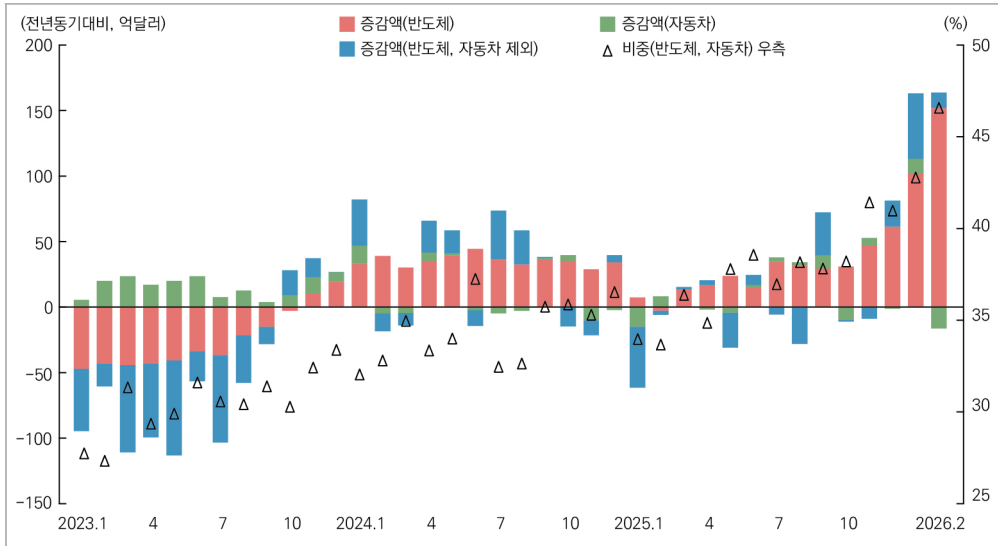
[그림 III-4] 주요 무역 상대별 수출액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5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회복 및 성장은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특정 주력 품목이 전체 수출 실적을 주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림 III-5]에서와 같이, 2023년 업황 부진으로 수출 감소를 주도했던 반도체가 2024년 이후 회복세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 들어서는 수출 증감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자동차 또한 견조한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 성장에 안정적인 기여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 폭이 다소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산업의 합산 수출 비중은 2023년 초 30%를 하회하였으나, 최근에는 46.6%(26.2월)를 보이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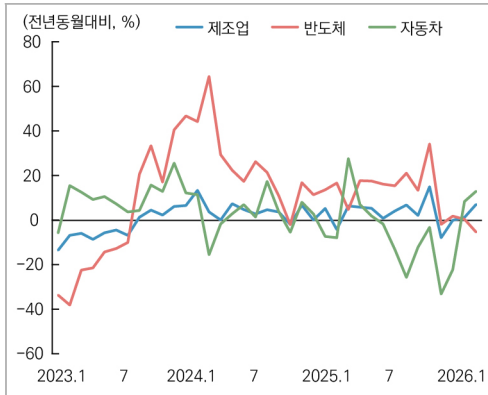
[그림 III-5] 반도체·자동차 수출액 증감액과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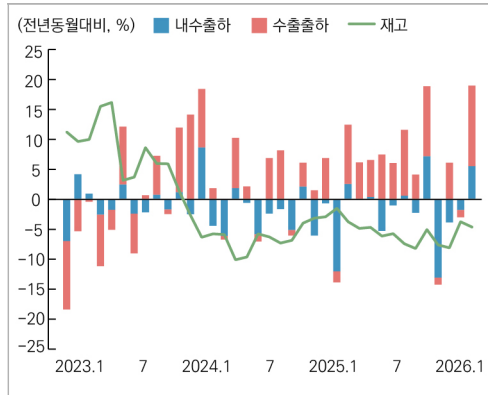
2026년 제조업은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품목이 이를 뒷받침하는 수출 주도형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보이는 수출 실적 호조는 과거 중국에 편중되었던 수출 시장을 미국 및 아세안(ASEAN)으로 다변화하며 이룬 구조적 체질 개선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2023년의 부진을 딛고 일어난 반도체가 생산과 수출을 견인하는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이를 견조하게 뒷받침하며 성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III-7]에서 나타나듯이 내수 출하의 상대적인 정체 양상은 지속되고 있으나, 재고 수준이 안정화된 가운데 수출 출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제조업 경기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사이클의 수혜에 힘입어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6] 제조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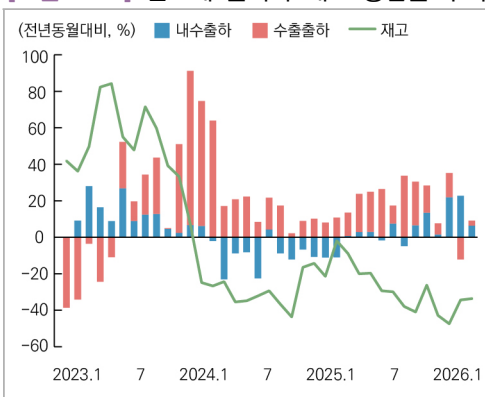
[그림 III-7] 제조업 출하와 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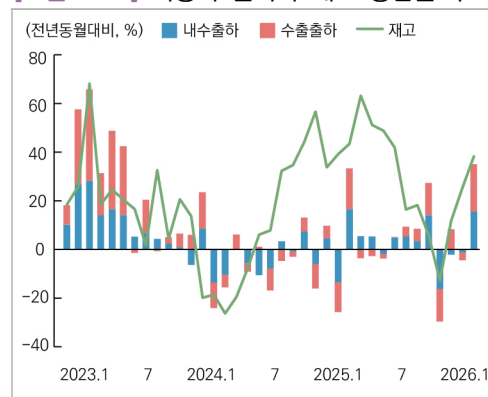
2026년 수출 실적은 반도체 산업의 효율적인 재고 순환과 수출 출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는 2023년의 재고 과잉을 완전히 해소하고 출하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며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 재고 부담 없이 수요 증가가 생산과 수출로 즉각 연결되는 확장 국면에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차 역시 2024년 말부터 2025년 사이 재고가 일시적으로 축적되며 부진을 겪었으나, 2026년 초에 진입하며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 출하가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주력 업종의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조한 대외 수요의 결합은 2026년 제조업 전체의 성장세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III-8] 반도체 출하와 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II-9] 자동차 출하와 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1. 반도체

- **2026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6.3% 증가할 전망**
 - 생성형 AI 수요 급증으로 '1조 달러 시대' 진입을 앞둔 구조적 성장기 진입
 - 로직 반도체(32.1% 증가)와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이 가속화된 메모리 반도체 (39.4% 증가)가 전체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주도
- **메모리 수출 증가율이 2026년 국내 수출 경기의 최고조를 견인**
 - 특히 고사양 메모리 제품의 비중 확대에 기반

세계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의 추정에 따르면⁵⁶⁾, 2026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대비 26.3% 급증한 약 9,754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사상 첫 '1조 달러 시대' 진입을 앞두고 본격적인 구조적 성장기(Structural Growth)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은 생성형 AI 인프라 수요 급증에 따른 로직 반도체의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HBM3E/4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메모리 시장의 매출 신장(39.4%)에 기인한다.⁵⁷⁾ 특히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미주와 핵심 공급망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기존의 경기 사이클을 넘어선 AI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가 공고화되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동반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III-2]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미주	1,951	2,519	3,386	45.2	29.1	34.4
유럽	513	541	604	-8.1	5.6	11.6
일본	467	448	502	0.0	-4.1	11.9
아시아-태평양	3,374	4,214	5,263	16.4	24.9	24.9
합계	6,305	7,722	9,754	19.7	22.5	26.3

자료: WSTS, 「WSTS Semiconductor Market Forecast Autumn 2025」, 2025.12.2.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56) 본 절에서는 대표적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인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와 Gartner의 추정과 전망을 활용하였다.

57) WSTS(25.12월)에 따르면, 2026년 메모리(Memory) 부문의 성장률 전망은 39.4%, 로직(Logic) 부문의 성장률 전망은 32.1%이다.

반도체 수요의 향방을 결정짓는 2026년 전 세계 IT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전년대비 10.8% 성장한 6조 1,555억 달러로 6조 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10.2%)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AI 기술이 실험 단계를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체계로 정착되면서 관련 IT 시장의 매출 상승이 가속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반도체 및 IT 인프라 수요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데이터센터 시스템 부문은 2026년에도 3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6,53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모델의 고도화와 기업용 SaaS⁵⁸⁾ 도입 확대에 의해 소프트웨어 지출 역시 전년대비 14.7% 증가한 1조 4,3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IT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IT 서비스 부문은 기업들의 AI 도입 및 시스템 통합(SI)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8.7% 성장한 1조 8,66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AI 기능을 탑재한 IT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시장도 교체 주기를 맞이하며 8,364억 달러(6.1% 상승) 규모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문의 경우 성장폭(4.7%)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나, AI 서비스 구동을 위한 필수적인 연결 인프라로서 1조 3,652억 달러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3] 세계 IT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IT 시장 매출액 합계	50,397	55,553	61,555	7.5	10.2	10.8
IT 서비스	16,148	17,176	18,669	4.8	6.4	8.7
소프트웨어	11,146	12,495	14,336	11.9	12.1	14.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2,563	13,037	13,652	2.2	3.8	4.7
IT 단말기	7,207	7,883	8,364	4.6	9.4	6.1
데이터센터 시스템	3,334	4,962	6,534	40.3	48.9	31.7

주: 전체 IT 시장은 기반 인프라(Foundational Infrastructure)인 데이터센터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토대로,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Intelligent Functions)와 IT 서비스(Implementation)가 결합되어 IT 단말기(User Devices)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이용되는 구조를 지닌다.

자료: Gartner('26.2월)

58)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기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반도체⁵⁹⁾ 집적회로(IC)의 세부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메모리(Memory)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⁶⁰⁾ 수요 증가와 차세대 규격인 DDR5 보급의 가속화로 2026년 39.4%의 매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비메모리(System) 부문에서 로직(Logic) 반도체는 AI 가속기 및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의 급증으로 바탕으로 2026년에도 32.1%의 고성장을 유지하며 전체 전체 집적회로(IC)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반도체 업종에서 나타났던 단기적인 경기 회복 국면을 넘어, 경제 전반이 AI 중심의 구조적 성장(Structural Growth)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⁶¹⁾ 또한, 아날로그(Analog) 반도체는 산업 자동화 수요 회복으로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마이크로(Micro) 반도체 역시 고성능 프로세서 수요를 바탕으로 7.7%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4] 집적회로(IC) 부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

	금액			증가율			
	2024	2025	2026	2024	2025	2026	
집적회로(IC)	5,395	6,838	8,821	25.9	26.7	29.0	
메모리	1,655	2,116	2,951	79.3	27.8	39.4	
비 메 모 리	로직	2,158	2,959	3,909	20.8	37.1	32.1
	아날로그	796	856	948	-2.0	7.5	10.7
	마이크로	786	848	913	3.0	7.9	7.7

자료: WSTS('25.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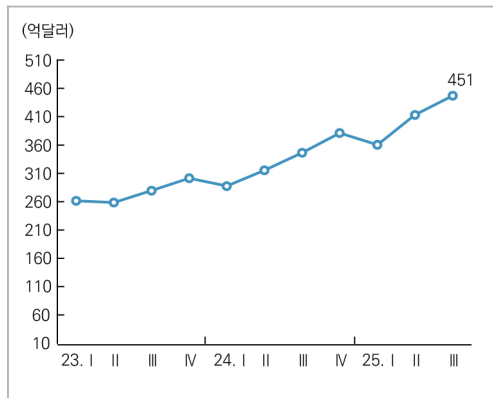
59) 세계 반도체 시장은 크게 집적회로(IC), 개별소자(Discretetes), 광전자(Optoelectronics), 센서(Sensor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0) 전 세계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약 90% 이상이다. TrendForce, "HBM Market Analysis: 12-hi HBM3E to Become Mainstream in 2025," 2025.1.

61) Gartner, 「Forecast: IT Spending, Worldwide, 2024-2026」, 2026.2. 및 IMF, 「World Economic Outlook (WEO)」, 2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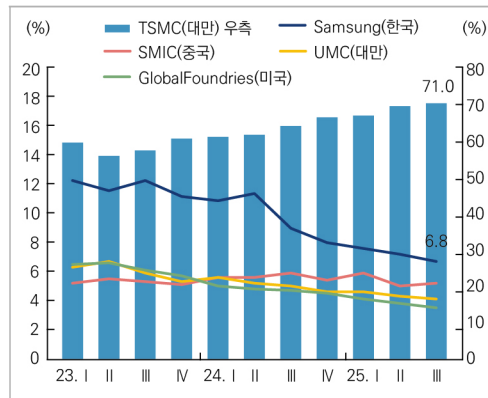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시장은 2025년 1분기 일시적인 조정을 거쳤으나,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3분기 합산 매출액이 45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력한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업계 1위인 TSMC(대만)는 선단 공정 독점을 바탕으로 2025년 2분기 사상 처음 점유율 70%를 돌파한 데 이어, 최신 3분기 기준 71.0%까지 비중을 확대하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2분기 7.3%에서 3분기 6.8%까지 하락하며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III-10] 파운드리 매출액 추이



주: 상위 10개사
자료: TrendForce('26.3월)

[그림 III-11] 파운드리 매출액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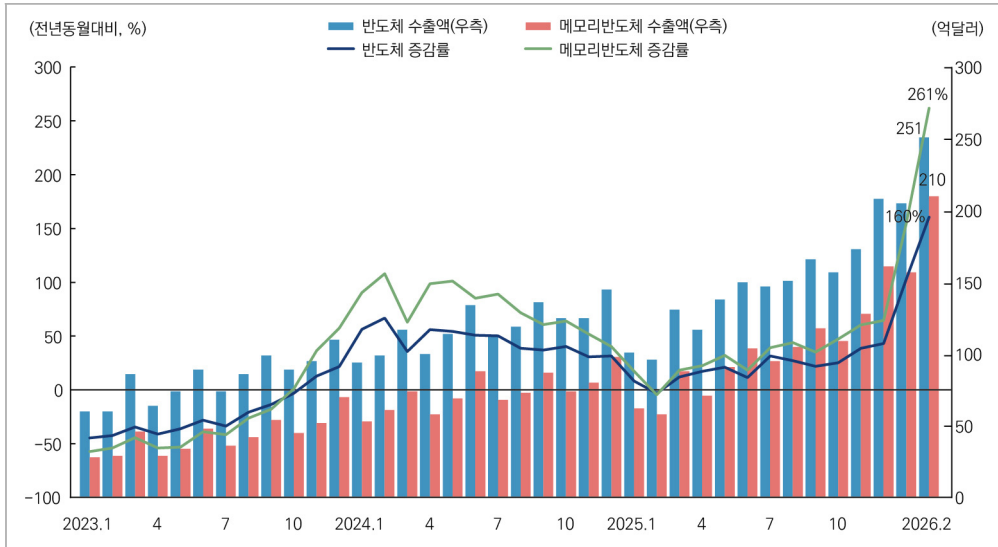
주: 상위 5개사
자료: TrendForce('26.3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2023년 하반기 저점을 통과한 이후, 2024년부터 본격적인 V자 반등을 나타내며 2026년 초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최근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6년 2월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251억 달러, 메모리 반도체는 2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고점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전체 반도체 수출 대비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상승력이 훨씬 크다.⁶²⁾ 2월 기준 메모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61%로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인 160%를 크게 상회하며 전년 동월 대비 기록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및 차세대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가 전체 반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⁶³⁾

62) 국가데이터처,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26.3.4.

63) 산업통상부, 「2026년 2월 수출입 동향」('26.3월)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기록적 상승은 HBM3E 등 차세대 제품의 공급 비중 확대에 기인한다.

[그림 Ⅲ-12]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과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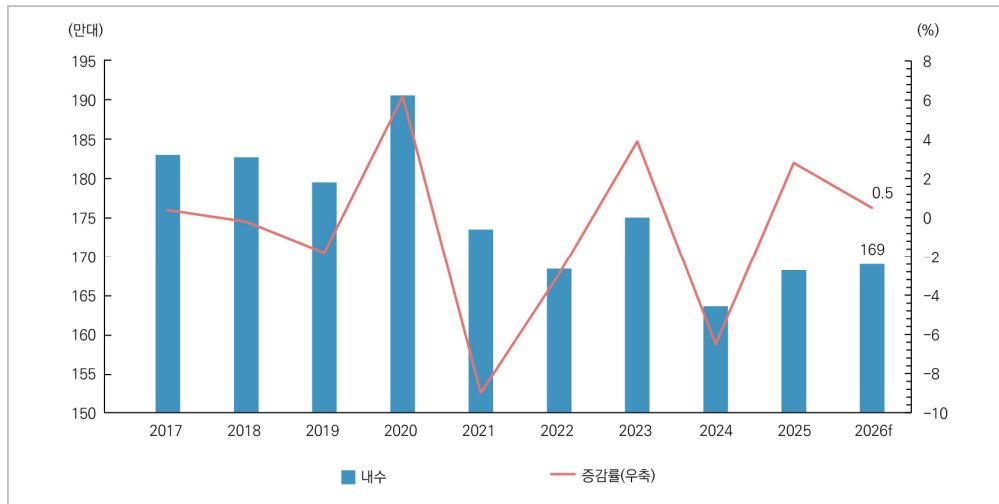
2. 자동차

-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9,712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⁶⁴⁾ 미국 시장은 친환경 지원정책 감소와 관세 효과로 인한 가격인상 압박 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 인하와 감세 정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시장은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수요를 제약하고 있으나 낮은 금리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 등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시장은 중국과 일본 시장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시장이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하방압력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13] 자동차 내수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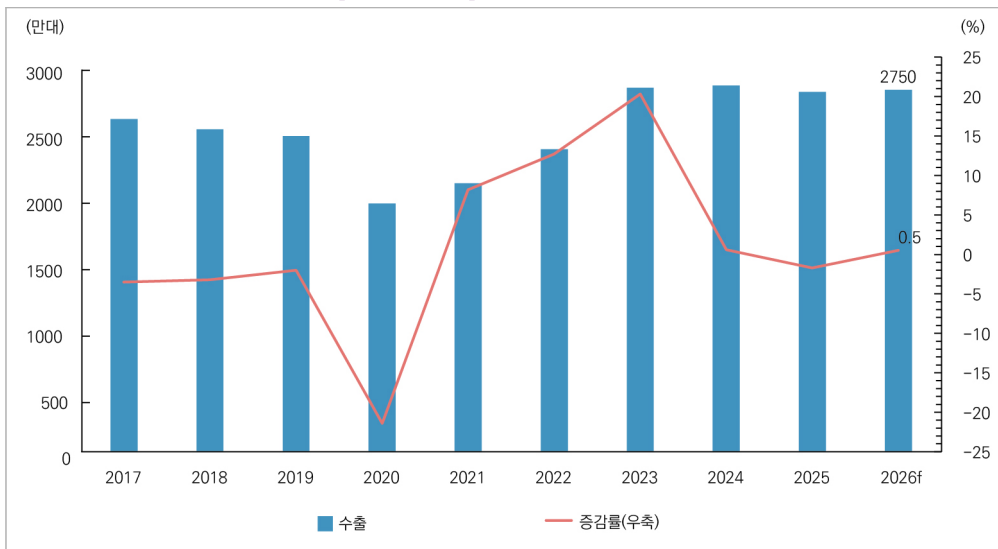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6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 2026.2.12.

미국의 전기자동차 지원정책은 폐지되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의 환경규제와 전기자동차 보조금 확대 등으로 친환경자동차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은 친환경자동차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국내 자동차 생산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회복과 더불어 신공장이 가동되며 생산능력이 향상되어 전년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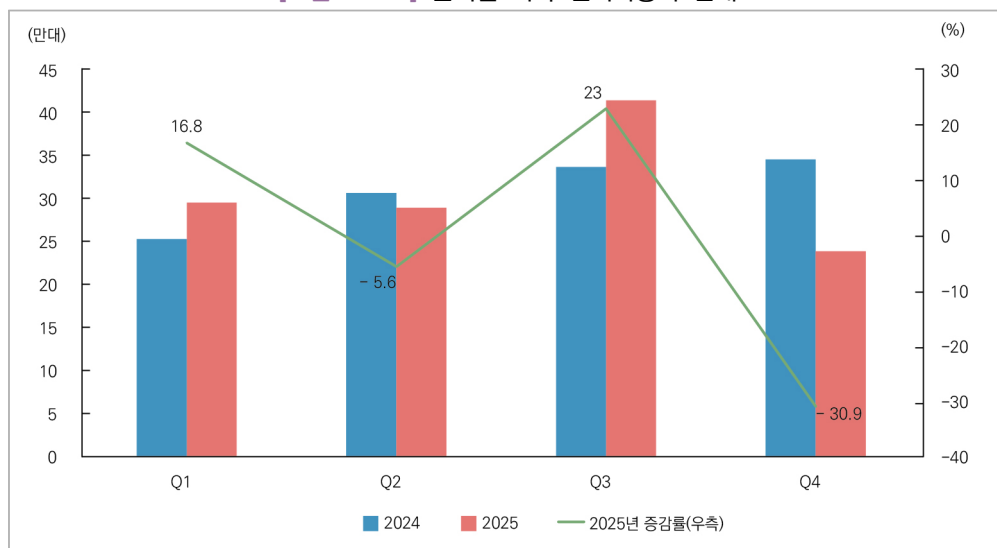
[그림 Ⅲ-14] 자동차 수출 전망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주요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였지만, 유럽은 친환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에 민감한 전기자동차 수출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 수요는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출은 지역에 따라 증가와 둔화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종료되면서 2025년 4분기의 전기자동차 판매가 30.9% 급감하였다. 그러나 고급형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감소한 전기자동차의 수요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5] 분기별 미국 전기자동차 판매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유럽의 경우 환경규제와 친환경자동차 판매를 장려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한국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품질에 대한 경쟁우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내수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수출을 강화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심화되는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EU는 2035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100%에서 90%로 낮춤과 동시에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유예기간을 늘리기로 하고, 영국은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 의무 판매제도의 전기자동차 목표 비중과 목표 미달성 시의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환경규제가 완화되며 전기자동차 판매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한국 또한 가계부채 누적, 인구구조 변화 등 하방압력으로 인해 내수 수요에 대한 제약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노후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확대, 새로운 차종의 출시 예정,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소폭 증가(0.5%)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화학

■ 2026년 세계 화학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9% 증가할 전망

-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침체와 중국의 기초유분 자급률 확대에 인한 수익성 악화 등에 기인
- 국내 석유화학 생산은 국내외 공급과잉, NCC 시설 구조조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 등으로 감소할 전망

세계 화학시장⁶⁵⁾은 2026년 5.7조달러(매출 기준)로 전년대비 1.9% 증가할 전망이다.⁶⁶⁾ 이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자동차, 건설 등 전통적인 전방산업의 수요 침체에 기인한다. 다만, AI 데이터센터 증가로 반도체 시장이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화학제품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기초유분 자급률 확대에 세계 기초유분 설비 가동률은 70%대 후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화학시장 전반에 걸쳐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동지역의 분쟁에 따른 원자재 조달 비용의 상승, 에너지 가격변동,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바이오 원료 사용과 청정기술 적용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는 올해 화학시장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4년 세계 화학제품 생산의 43.1%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생산시설 확충과 밀어내기식 수출 등으로 화학 생산이 2025년 약 5.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6년에는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 관세정책 및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에 따른 수출 감소로 화학제품 생산이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세계 화학제품 생산의 16.6%)의 경우 높은 에너지 가격, 저가 수입품의 공세,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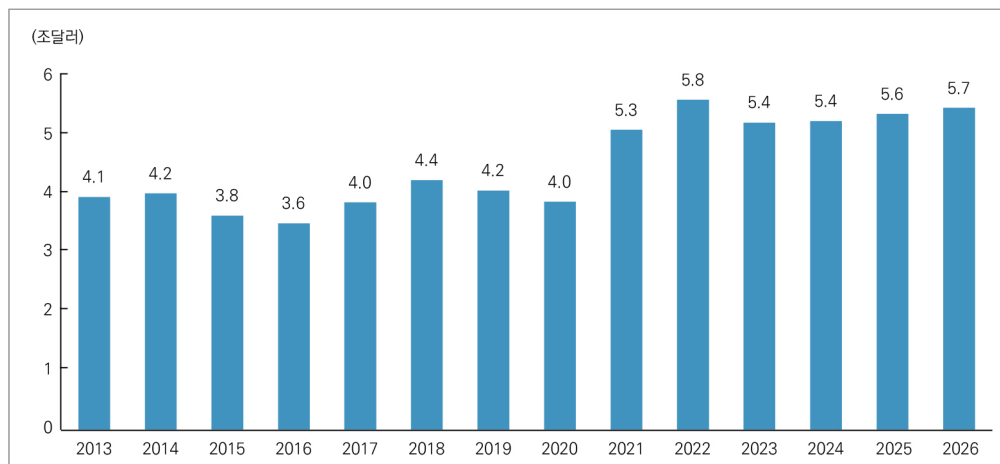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65) 화학은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으로 구분된다. 석유화학은 석유제품(나프타 등)이나 천연가스를 열분해하여 기초원료(에틸렌, 프로필렌, 유기용매 등),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등을 제조한다. 정밀화학은 이들 원료로 전방산업에 사용될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석유화학이 세계화학시장의 89.2%를, 정밀화학이 10.8%를 차지한다.

66) SCl, <https://www.soci.org/chemistry-and-industry/cni-data/2026/1/chemistry-in-2026-navigating-the-year-of-uncertainty?utm_source=chatgpt.com, 접속: 2026.3.13.>

둔화로 화학 생산이 2025년 2.4%, 특히 석유화학 부문이 약 11% 감소하였다. 이런 추세는 2026년에도 이어져 유럽 화학제품 생산 증가율은 정체 상태를 보이거나 소폭의 역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세계 화학제품 생산의 11.3%)의 경우 풍부한 셰일가스 등 원자재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및 아시아 기업들 대비 원가 우위를 누렸으나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로 인해 2025년 화학 생산 증가율이 약 0~1%대에 그쳤다. 2026년 미국의 화학제품 생산량도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 지속, 글로벌 공급과잉과 무역 불확실성 등으로 -0.2~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인도(세계 화학제품 생산의 2.6%)의 경우 내수 시장의 강력한 성장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2026년에 약 10.9%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⁶⁷⁾

[그림 III-16] 세계 화학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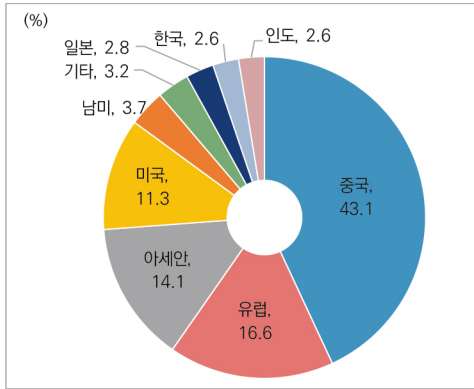
주: 2013~2024년 실적치, 2025~2026년 전망치

자료: Cefic

참고로 국가별 화학제품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2024년 13.4%로 가장 높고, 미국(9.4%), 독일(8.8%), 네덜란드(5.6%), 한국(5.0%) 등의 순이다. 수입은 중국(10.9%), 미국(6.4%), 인도(4.2%), 네덜란드(4.0%) 등의 순이며 한국은 2.8%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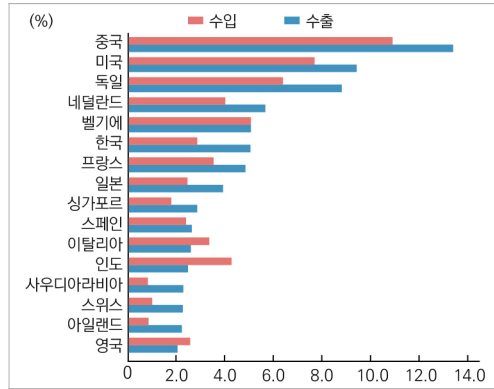
67) 김규남, “인도 화학전시회 CPX 2025로 보는 인도 화학산업 전망.” KOTRA 해외경제정보, 2025.12.4.

[그림 III-17] 세계 화학생산 비중



주: 2024년 기준
자료: Cefic

[그림 III-18] 국가별 화학 제품 수출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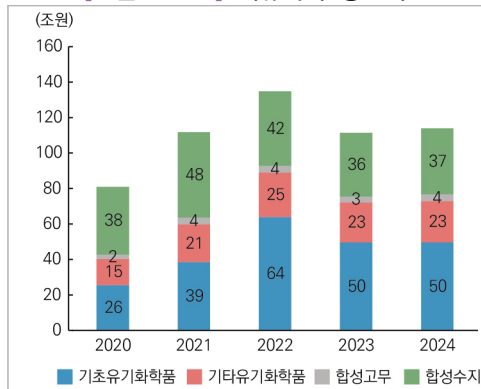
주: 1. 세계 화학제품 수출입 내 비중을 의미
2. 2024년 기준
자료: Cefic

국내 화학산업⁶⁸⁾의 생산은 2024년 기준 약 559조원(광의의 화학산업)으로 제조업 생산의 26.7%를 차지한다. 이 중 석유화학제품 생산은 약 114조원(제조업의 5.4%)이며,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다. 다만, 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는 2024년 26조원(제조업의 3.5%)으로 전년대비 10.4%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확대되면서 2024년 480억 달러(전년대비 5.0%)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에는 유가 하락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425억 달러(전년대비 11.4%)로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165억 달러), 미국(28억 달러), 베트남(26억 달러) 순이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34.9% 감소하였다. 이는 유가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미관세 장벽에 따른 화학소재 수요 감소, 미국의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화학제품 공급능력의 강화 등에 기인한다. 수입은 2025년 118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37억 달러), 일본(26억 달러), 미국(18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6억 달러) 등이다.

68) 화학산업은 범위에 따라 광의의 화학산업과 협의의 화학산업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화학산업은 산업분류번호 20번(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광의의 화학산업은 이 외에도 17번(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번(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번(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번(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번(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포함한다. (한국석유화학협회, 「2025 석유화학 전망」 참조)

2026년 석유화학산업은 국내외 공급과잉의 심화,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으로 역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올해 중국과 중동의 증설 지속과 더불어 단일 최대 규모인 에스오일(S-OIL)의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의 생산 개시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능력을 270만~370만 톤 감축하는 사업 재편이 계획되어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탄소비용의 증가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나프타 가격 급등은 석유화학산업의 하방리스크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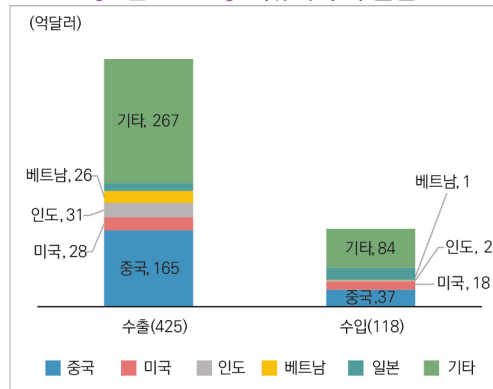
[그림 III-19] 석유화학 생산액



주: 2024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II-20] 석유화학 수출입



주: 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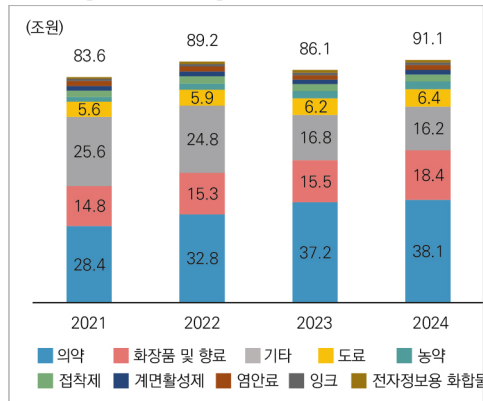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산업에서 생산되는 기초화학 제품을 공급받아 자동차, 전자, 섬유, 건축, 의료, 농업 등에 필요한 염·안료, 도료·잉크, 계면활성제, 접착제, 첨가제, 의약, 화장품·향료, 농약 등을 공급하는 산업이다. 정밀화학 생산은 2024년 91.2조원(제조업의 4.4%)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6.5% 증가하고 있다. 부가가치도 제조업의 5.1%(44.8조원)로 석유화학산업(3.5%)을 상회한다.

정밀화학산업의 수출은 2025년 392억 달러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117억 달러, 29.9%)이고 비누·치약 및 화장품(115억 달러, 29.3%), 정밀화학원료(105억달러, 26.8%), 염·안료(14억 달러,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21.2%), 미국(15.6%), 일본(7.1%), 헝가리(5.4%) 순이다. 수입은 2025년 369억 달러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다.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으로 167억 달러(45.2%) 이고 정밀화학원료(112억 달러, 30.2%), 비누·치약 및 화장품(18억 달러, 4.9%), 염·안료(14억 달러, 3.9%) 등의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28.5%), 미국(13.6%), 일본(10.3%), 독일(7.6%)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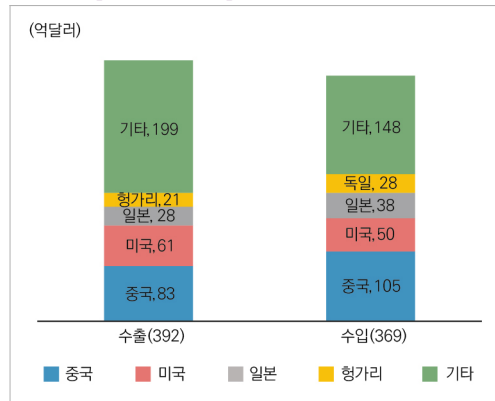
2026년 정밀화학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소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및 신소재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특별법)」의 시행으로 기존 범용 화학에서 고부가가치 정밀화학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핵심 광물을 재자원화는 정책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21] 정밀화학 생산액



주: 2024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II-22] 정밀화학 수출입



주: 2025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4. 철강

- **2026년 세계 철강 수요는 전년대비 1.3%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수요 감소, 인도·아세안 등 신흥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가 수요 증가를 견인
 - EU·영국은 경기 회복으로 수요 반등, 미국도 주거·민간 투자로 점진적 회복
- **보호무역 강화와 탄소 규제 확대로 글로벌 철강 교역 환경 변화**
 -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무역 장벽 강화
 -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악화가 탈탄소 전환 투자를 제약
- **2026년 국내 철강 수요는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치고 철강 수출은 감소 전망**
 - 건설·자동차 수요 부진 지속, 조선용 후판 수요가 일부 보완 역할 수행
 - 미국 관세 정책과 EU CBAM 시행 등 무역 규제 강화로 철강 수출 감소 압력 확대

2026년 세계 철강 수요⁶⁹⁾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17억 7,300만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철강 수요는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지역별로는 상이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시장에서는 중국과 여타 신흥국 간 상반된 흐름이 전망된다. 중국은 주택시장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철강 수요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철강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기보다는, 인도와 아세안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9.1% 수준의 높은 수요 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 철강 수요 증가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진국 시장에서도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국방·인프라 지출 확대에 따라 3.2%의 수요 증가가 전망되며, 미국 역시 주거용 건설과 민간 투자의 점진적 해소와 금융 여건 완화⁷⁰⁾에 힘입어 1.8%의 성

이진희 경제분석관(jinhee@assembly.go.kr, 6788-4677)

69) 세계 철강 수요는 World Steel Association의 「Short Range Outlook, October 2025」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70)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2025년 9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 0.25%p씩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 목표 범위는 4.25~4.50%에서 3.50~3.75%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장이 전망되며, One Big Beautiful Bill Act⁷¹⁾에 따른 제조업·국방 인프라 투자 확대가 추가적인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2026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중국 중심 구조에서 점차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 축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5] 세계 철강 수요전망

지역	2025년		2026년	
	물량(mmt)	전년대비(%)	물량(mmt)	전년대비(%)
전세계	1,749.2	0.0	1,772.5	1.3
중국	839.5	-2.0	831.1	-1.0
인도	161.1	8.9	175.7	9.1
EU·영국	142.0	1.3	146.6	3.2
미국	90.7	1.8	92.3	1.8
일본	48.1	-3.1	47.7	-0.8
한국	44.8	-6.3	45.1	0.6

주: 완제 철강제품(finished steel products) 기준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Short Range Outlook, October 2025.

그러나 이러한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구조적 과잉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계 철강산업은 수요 증가를 웃도는 신규 설비 확대로 인해 만성적인 공급 과잉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⁷²⁾ 역시 2026년 수요가 약 1% 수준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설비 증설이 이를 상회하는 속도로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조강 생산능력은 2025년 약 25억 4,700만 톤에 달하며, 2028년까지 약 1억 900만 톤의 신규 설비가 추가 가동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 과잉 설비는 2025년 6억 8,000만 톤을 상회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

71)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발효한 법으로, 국방 예산 1,500억 달러 추가 확대, 감세 연장, 국경안보 강화 등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산업 정책 패키지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적격 생산시설의 설비 즉시상각 및 국방 산업기반 투자 확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72) OECD, "98th Session of the Steel Committee - Statement by the Vice-Chairs", 2025.11., <https://www.oecd.org/en/about/news/speech-statements/2025/11/98th-session-of-the-steel-committee-statement-by-the-vice-chairs.html>

로 확대되고 있어, 무역 왜곡과 산업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철강 산업의 장기적 과제인 탈탄소화 및 녹색 전환 투자 여력을 제약⁷³⁾한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구조적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 글로벌 철강 교역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와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고율 관세 중심⁷⁴⁾의 보호무역 정책을 유지하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적으로 시행⁷⁵⁾하면서 탄소배출 수준을 고려한 새로운 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철강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저탄소 증빙'이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의 철강 수출 확대에도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정점을 기록했던 중국의 철강 순수출 규모는 2026년 약 9,800만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⁷⁶⁾된다. 이와 같이 철강 교역 환경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탄소 경쟁력과 정책 대응 능력이 시장 접근성을 좌우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 환경 변화와 함께, 2026년 철강산업의 원가 구조도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반된 흐름 속에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철광석 가격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년 하반기 톤당 약 100달러 수준에서 등락하던 철광석 가격은 2026년 톤당 약 84~97달러⁷⁷⁾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조강 생산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철강 수요 둔화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원료탄(coking coal) 가격은 비교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글로

73) OECD(2025)에서도 글로벌 철강 과잉 설비는 가격과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탄소 철강 프로젝트의 약 19%가 보류되는 등 탈탄소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74) 미국은 2025년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어 6월부터 이를 50%로 상향 조정하였다(「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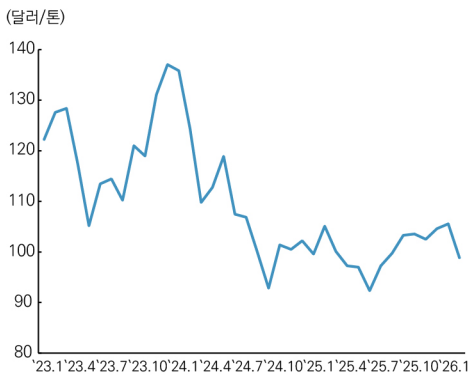
75)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026년 1월 1일부터 EU 전 회원국에서 정식 시행되었으며 EU 관세 시스템과 연동되어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탄소집약적 제품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

76) 현대차증권, 『2026년 철강산업 전망』, 박현욱, 2025. 11.

77) 철광석 가격은 62% Fe CFR China(중국 칭다오항 도착도) 기준이며, 하단(84달러/t)은 현대차증권 『2026년 철강산업 전망』(박현욱, 2025. 11.), 상단(97달러/t)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기준이다.

별 탈탄소화 정책으로 인해 신규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축소되면서 구조적 공급 확대가 제한되고 있으며, 2026년 1월 호주 퀸즐랜드 지역 기상 악화로 주요 광산업체들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는 등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철강 생산국의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2025년 하반기 톤당 20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원료탄 가격은 톤당 약 190~235달러⁷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23] 철광석 가격 추이



주: 철광석 현물가격(Fe 62% 분광석, 중국 항구 도착 기준, cfr)

자료: 세계은행,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그림 III-24] 원료탄 가격 추이



주: 호주 저휘발성 점결탄 FOB 기준

자료: IEA (2025), Coal 2025

이상의 글로벌 환경 변화는 국내 철강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국내 철강산업은 경기 회복보다는 산업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광석 가격 안정화로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료탄 가격 강세가 이를 상쇄하면서 원가 구조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요 측면에서도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2026년 국내 철강 수요는 전년대비 약 0.6%⁷⁹⁾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2025년의 큰 폭 감소(-6.3%)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나, 수요 회복세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78) 원료탄 가격은 호주산 PLV HCC(Premium Low Volatile Hard Coking Coal) FOB Australia 기준이며, 기관별 전망치는 BMI 190달러/t, 호주 재무부 205달러/t, UBS 235달러/t 수준이다.

79) World Steel Association. Short Range Outlook. October 2025.

수급 측면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부담 구조가 예상된다. 2026년 국내 철강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3.3% 감소한 29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⁸⁰⁾되며,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CBAM 시행 등 무역 장벽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수입 시장에서는 중국의 내수 부진에 따른 잉여 물량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유입되면서 저가 철강재 수입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열연강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⁸¹⁾하는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 물량 축소를 통한 수급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표 III-6] 철강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2027년	2028년
수출액	352 (-8.5)	333 (-5.4)	303 (-9.0)	290 (-3.3)	285 (-1.7)	300 (5.2)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6 경제 산업 전망』, 2025. 12.

2026년 국내 철강 수요는 산업별로 양극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은 민간 주택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소폭 회복⁸²⁾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철근과 형강 등 봉형강류 제품의 수요 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 역시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국내 생산 증가가 제한되면서 철강 수요 증가를 크게 견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 산업은 기존 수주 물량과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힘입어 후판 수요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조선 산업의 수요만으로 전체 철강 수요의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6 경제 산업 전망』, 2025. 12.

81)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26년 2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 3개사·중국 6개사의 가격인상약속 제의 수락 및 약속 미참여 업체에 대해 28.16~33.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의결하였다. 적용 대상은 탄소강 및 합금강 열연제품이며, 부과 기간은 향후 5년간이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02.23.)

82) 『2026년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6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0.8%, 건설업 성장률은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서비스업

1. 2026년 전망

- 2026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7%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6	1.0	2.4	1.7	2.1	1.3	1.7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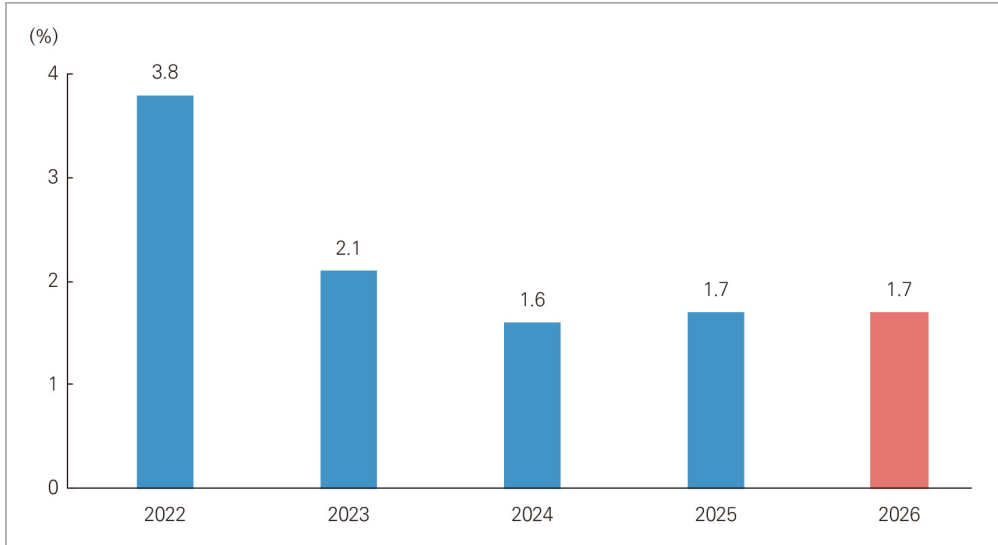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AI 관련 등 설비 및 R&D 투자,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으로 도소매업의 수요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잔액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 증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분양 주택의 누적, 높은 공사비 부담 등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건설 관련 서비스업의 회복 지체

2026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은 1.7%로 지난 9월 전망에서 0.3%p 하락하였다. 상반기 실질 부가가치 성장은 2.1%로 2025년 상반기 1.0%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2025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민간소비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업 전반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5년 하반기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료보건업(5.5%), 금융업(5.1%)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소매업(3.8%), 부동산업(1.4%), 사업서비스업(0.3%), 문화기타업(1.2%)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하반기 실질 부가가치 성장은 1.3%로 이전 전망치(2.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도 실적이 2.4%로 지난 9월 전망치(1.7%)를 크게 상회한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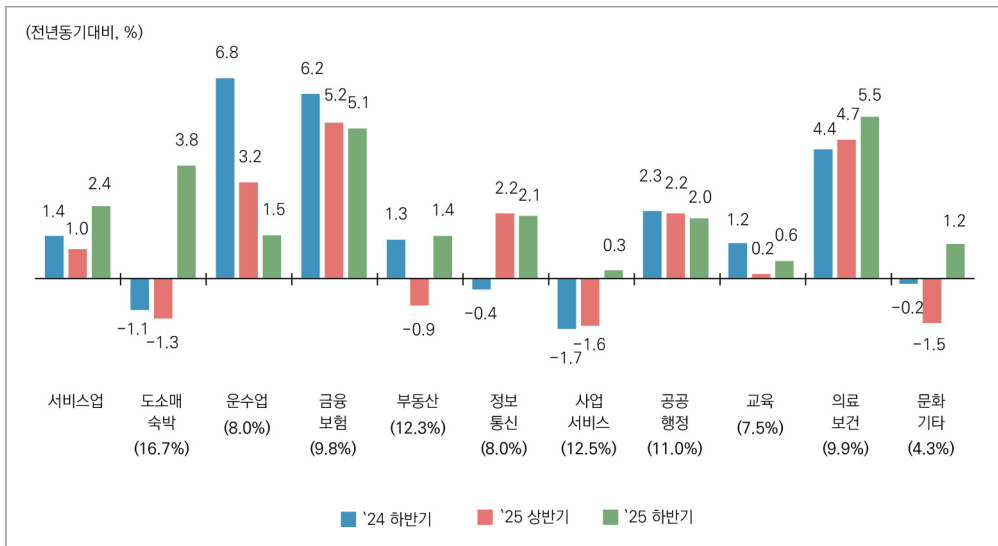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그림 III-25] 서비스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감률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I-26]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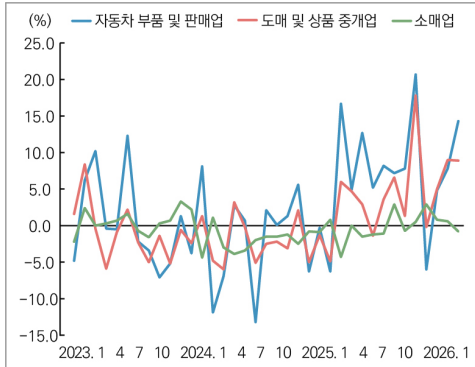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가. 상방요인

반도체, AI 관련 등 설비 및 R&D 투자,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에 따른 수요 회복이 2026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⁸³⁾에 따르면,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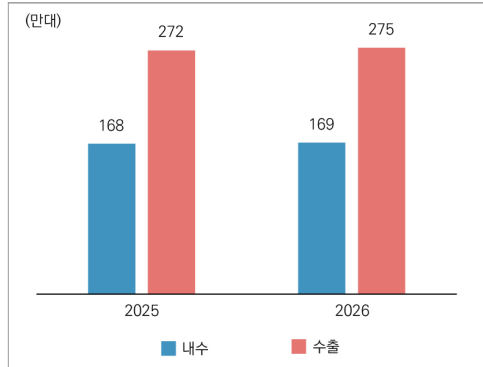
2025년에 개별소비세 인하와 전기차 보조금 지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2025년 자동차 내수는 168만대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산이 136만대(전년대비 1.0%), 수입차가 32만대(전년대비 9.7%) 판매되었고 친환경차 내수 수요는 81.4만대로 전년대비 27.5% 증가하였다. 도매업의 경우 2025년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호조, AI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장비의 판매 증가와 골드바 등 귀금속의 수요 지속 등으로 생산지수가 4.2% 증가하였다. 2026년에도 AI 관련 반도체 수출 호조와 관련 투자 등으로 도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27] 도소매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II-28] 국내 자동차 내수 및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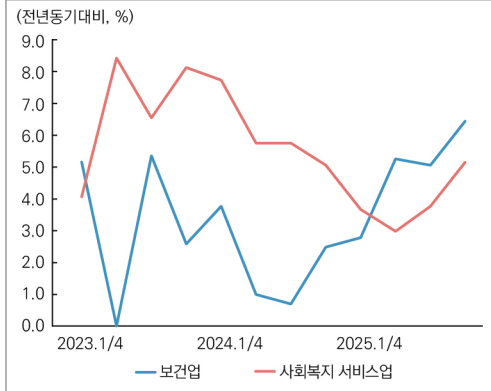
주: 2025년 실적치, 2026년 전망치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2024년 의정갈등에 따른 기저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병원급(7.1%)과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4.5%)을 중심으로 5.1% 증가하였다. 2026년에도 필수 의료 공급과 의료격차 축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건강보험급여 지출은 2024년 96.7조원으로 2018년(62.3조원) 이후 연평균 8.1% 증가하였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⁸⁴⁾은 2024년 기준 64.9%로 2018년(63.8%) 대비 1.1%p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본인부담급여와 비급여진료비의 증가에 기인한다.

83)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업, 소매업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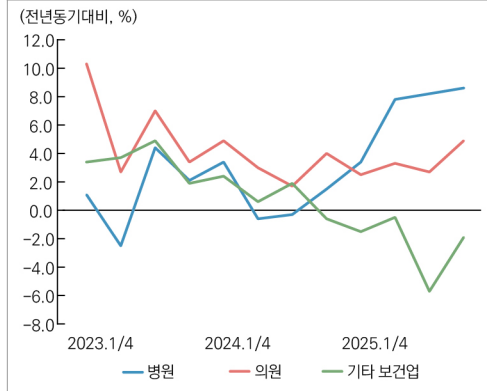
84)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보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 100

[그림 III-29] 보건사회복지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II-30] 보건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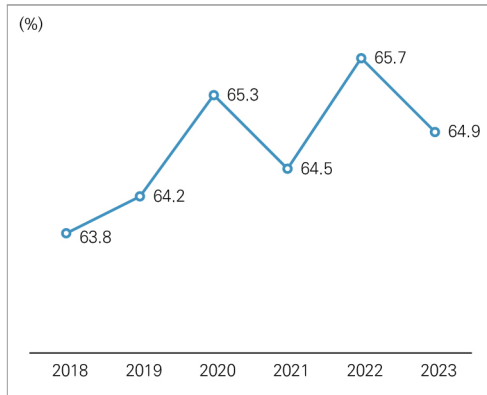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II-31] 건강보험재정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그림 III-32] 건강보험보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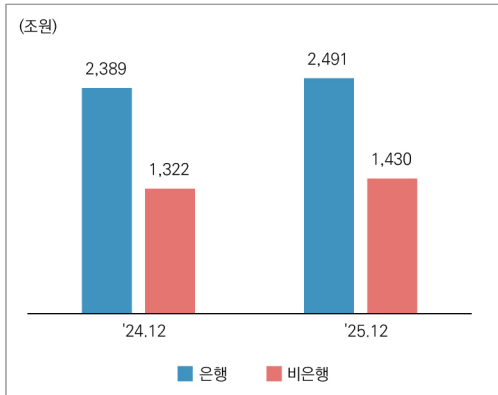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나. 하방요인

대출잔액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지속이 소비 및 투자 여력 회복을 제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2월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대출잔액은 3,921조원으로 전년대비 5.6%(210조원) 증가하였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전년대비 8.1로 증가하여 1,430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이 2025년 말 1,327조원으로 전년대비 4.2%(53.5조원)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금리인하 기대의 약화, 미국 금리의 상승, 추경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고채 발행 물량의 증가,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고채 금리(3년물)가 2025년 5월 2.331%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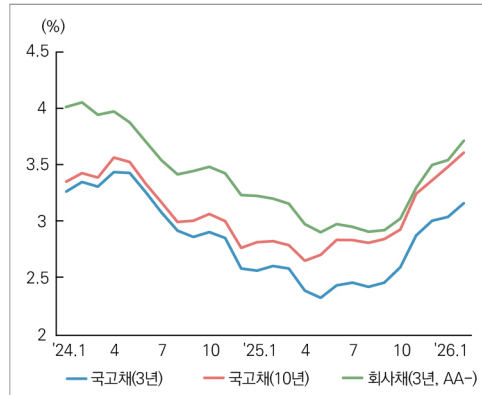
2026년 2월 3.167%로 상승하였다. 2026년 국고채 금리(3년물) 전망치는 3.0%로 9월 전망치(2.4%)에서 0.6%p 상향되어 소비 및 투자 여력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그림 III-33] 대출 잔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34] 시장금리



자료: 한국은행

한편 지방의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의 누적과 높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착공 지연이 발생하면서 부동산업의 회복이 지체될 전망이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5년 6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27대책과 10·15대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제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 강화, 실거주 의무 부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026년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5%로 상승한 반면, 미분양 비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0.5% 하락하였다. 미분양 주택도 2025년 66,510호로, 2022년 이후 누적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1년 이후 높게 형성된 공사비⁸⁵⁾로 건설착공실적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제고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부동산업의 2025년 실질 부가가치상승률은 0.2%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상승률(1.7%)을 하회하였다.

85)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마비, 철근·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 급등,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숙련공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에 기인한다.

제3절 건설업

1. 2026년 전망

- 2026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는 0.3%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202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3.8	-11.6	-7.9	-9.5	-1.3	2.0	0.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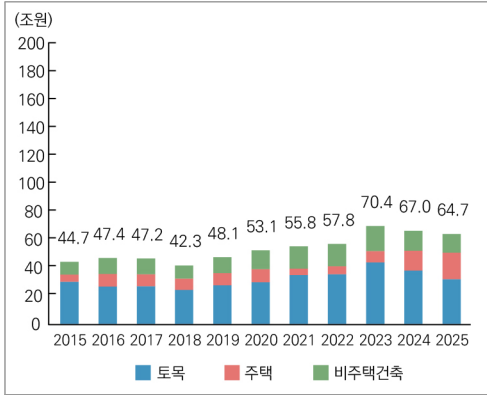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정부 SOC 예산 확대	• 건축착공의 지속적 감소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	• 건설비용의 증가
	• 주택 미분양 누적

2025년의 공공 부문의 건설수주는 64.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4% 감소하였는데, 토목은 16.6% 감소하였고, 건축은 14.0% 증가하였다. 민간 부문의 건설수주는 155.5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2.9% 증가하였는데, 토목은 28.8% 감소하였고, 건축은 10.4% 증가하였다. 공공, 민간 모두 토목수주가 크게 감소하여 건설수주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의하여 2026년 SOC 예산이 전년대비 9.1% 증가한 27.7조원으로 확정되었다. SOC 예산 확대 편성은 토목수주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축수주의 증가세가 유지되며 토목수주 또한 증가로 전환된다면 건설수주의 회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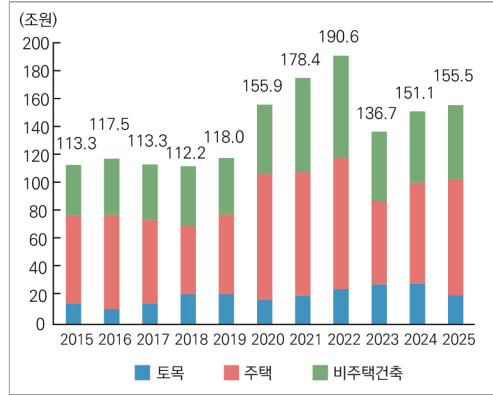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그림 III-35] 공공 건설수주



주: 2025년 11월, 12월 통계는 잠정치
자료: 대한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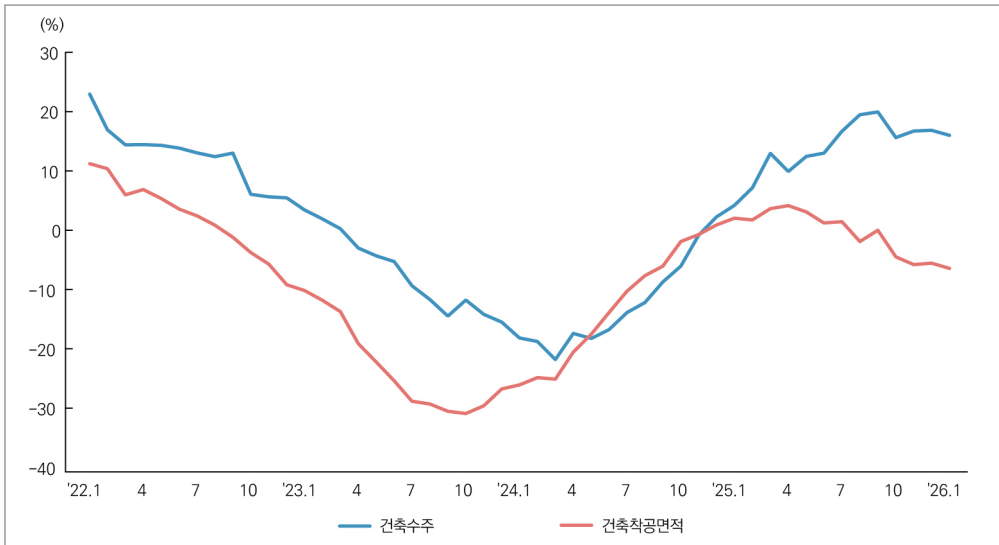
[그림 III-36] 민간 건설수주



주: 2025년 11월, 12월 통계는 잠정치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축수주와 건설착공은 유사한 추세를 갖고 움직이는 지표였으나 최근 두 지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지표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수주는 이루어지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간의 괴리는 건설기성과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SOC 예산의 확대가 그대로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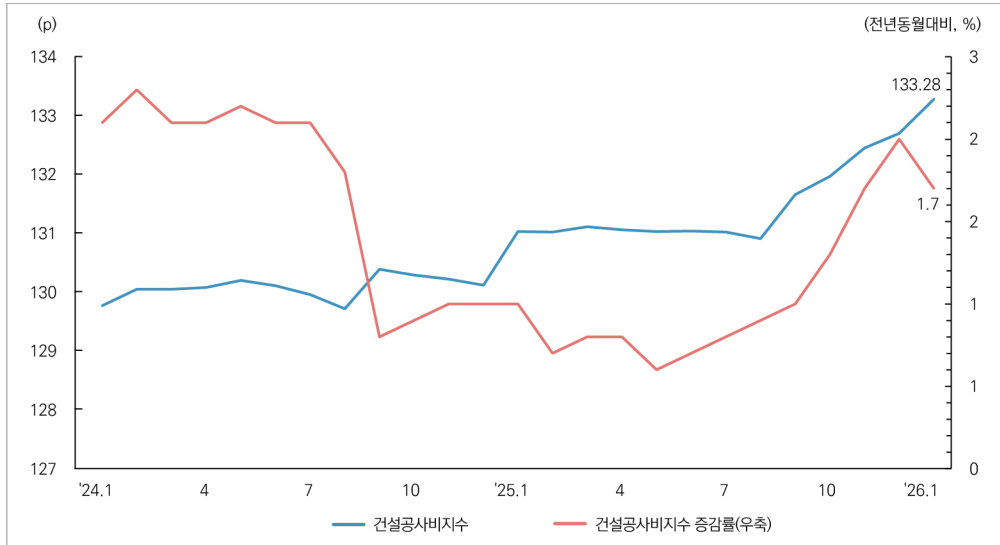
[그림 III-37] 건축수주와 건축착공 간 격차



주: 지표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에 대한 18 개월 이동평균
자료: KDI, 「KDI 경제동향」, 2025.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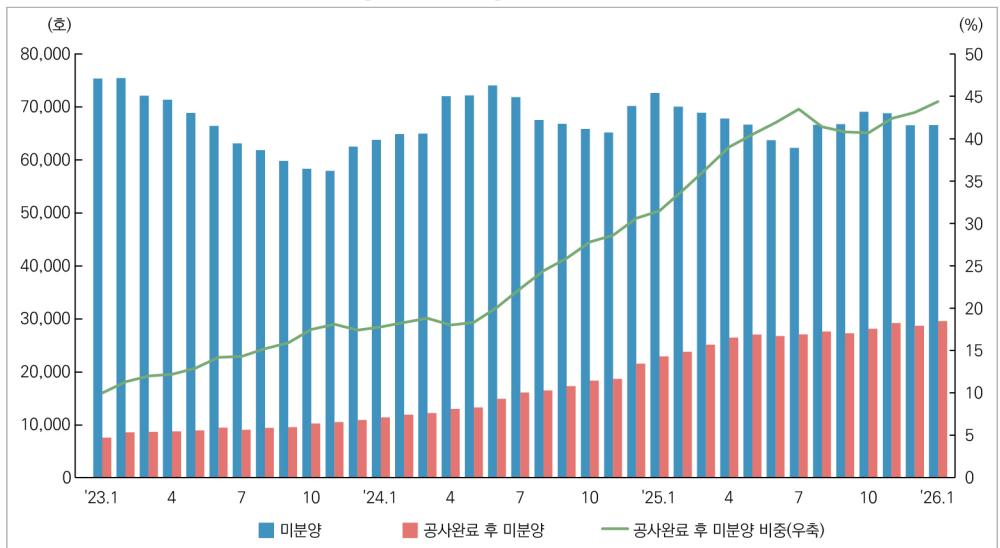
더욱이 높은 금융비용과 자금경색,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와 주택 미분양의 증가는 건설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III-38] 건설공사비지수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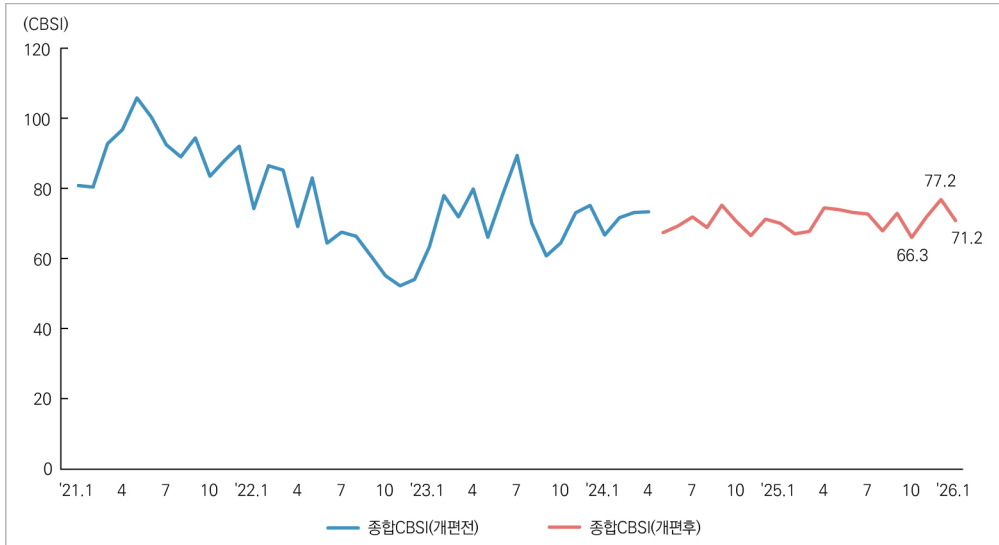
[그림 III-39] 주택 미분양



자료: 국토교통부

이러한 구조적 하방압력들이 건설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며 종합 건설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는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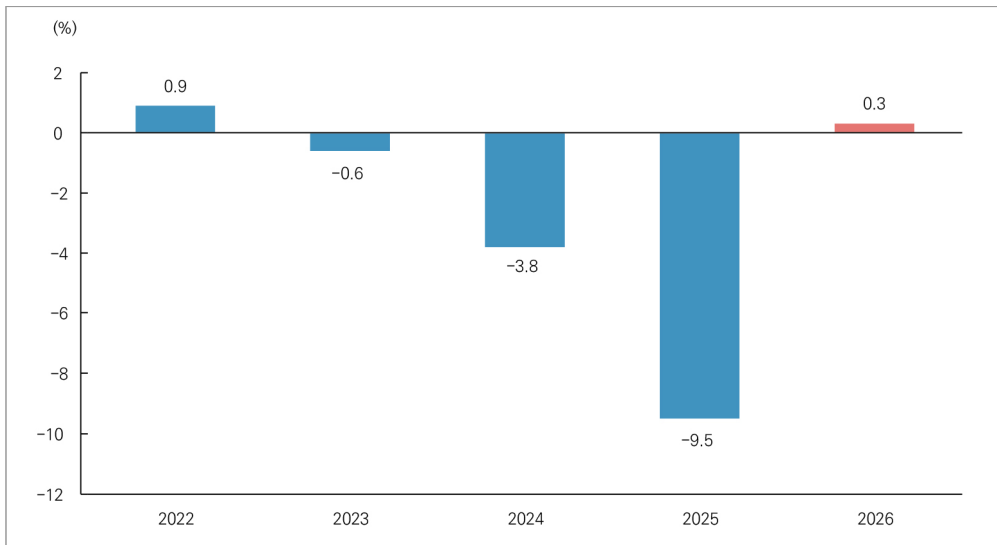
[그림 III-40] 종합 건설경기실사지수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의 누적된 구조적 하방압력 요인들로 인해 건설업경기의 회복세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실질부가가치는 전년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I-41] 2026년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6년 NABO 경제전망

IV

소득전망

제1장 |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 부문별 전망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1절 국민총소득

2026년 국민총소득은 지난 전망(2025.9월) 대비 2.5%p 상향 조정된 6.1% 증가를 전망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영업잉여가 큰 폭 상향 조정되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투자소득 증가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가 주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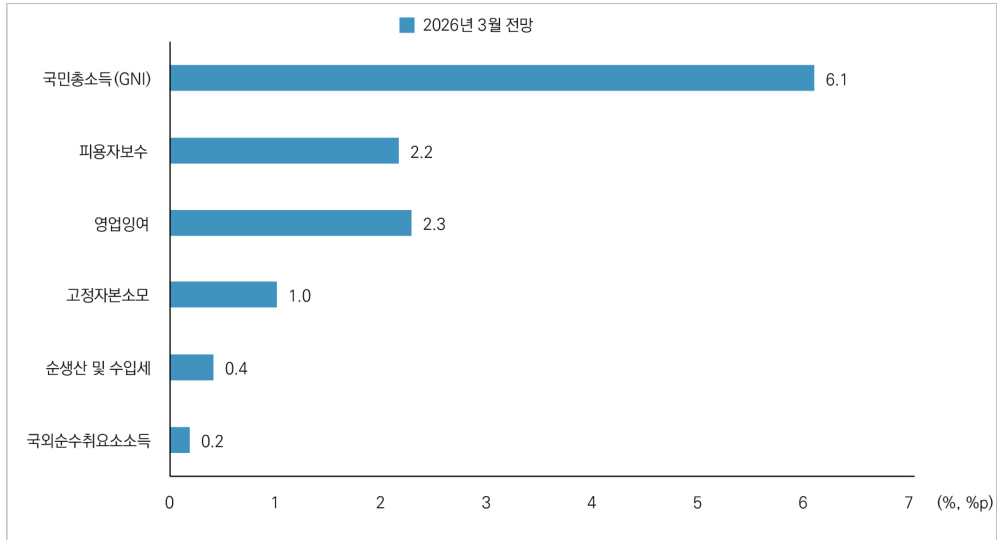
비용자보수는 증기전망(4.2%) 대비 0.4%p 상향 조정된 4.6% 증가를 전망하였다. 예상보다 빠른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세와 2026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의 상향 등이 비용자보수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영업잉여는 증기전망(3.1%) 대비 7.7%p 상향 조정된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AI 관련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아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정자본소모는 지난 전망(4.8%) 대비 0.2%p 하향된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실질가치로 계산된 건설투자 증가율이 -9.8%를 기록하여 건설자산의 증가율이 크게 위축되었다. 전체 고정자산 중 건설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건설투자의 큰 규모의 감소는 고정자본소모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지난 전망 대비 2.2%p 상향 조정된 5.1% 증가로 전망하였다. 2025년 주요 국세 6종 수입은 전년대비 1.7조 원 감소하여 낮은 기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기저효과를 이번 전망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명목 GDP 성장률이 지난 전망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고, 증권거래세입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세 수입 실적 개선 흐름과 상품 수입 증가율의 전망 상향을 반영하였다.

[그림 IV-1] 2026년 국민총소득 전망의 분배부문별 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IV-1] 2026년 국민총소득 수정 전망

(단위: %, %p)

	'25.9월 전망	'26.3월 전망	차이
국민총소득(GNI)	3.6	6.1	2.5
사용자보수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4.2 (48.0)	4.6 (46.5)	0.4 (-1.5)
영업잉여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3.1 (20.1)	10.8 (22.1)	7.7 (2.0)
고정자본소모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4.8 (22.4)	4.6 (21.7)	-0.2 (-0.7)
순생산 및 수입세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2.9 (8.0)	5.1 (8.0)	2.2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17.2 (1.5)	11.0 (1.8)	28.2 (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절 고용 및 임금

2026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4만 명으로 중기전망(16.0만 명)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2025년 하반기 고용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노동시장 여건에 대한 판단이 일부 수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구대비 취업자 수 전망이 상향됨에 따라 고용률은 63.0%로 0.2%p 상향 조정되었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세를 고려하여 실업률은 중기전망의 2.9%를 유지하였다.

2026년 명목임금상승률은 중기전망(3.2%) 대비 0.1%p 상향 조정된 3.3%로 전망하였다. 상반기는 전년동기(3.3%) 대비 0.2%p 상향 조정, 하반기(3.1%)는 0.1%p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하였다.

[표 IV-2] 2026년 고용 및 임금 수정 전망

(단위: 전년대비, 만명, %, %p)

	'25.9월 전망	'26.3월 전망	차이
취업자 증감 (증가율)	16.0 (0.6)	17.4 (0.6)	1.4 -
고용률	62.8	63.0	0.2
실업률	2.9	2.9	-
명목임금상승률	3.2	3.3	0.1



제2장 부문별 전망

제1절 국민총소득

- 2026년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6.1% 상승 전망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11.0% 상승 전망

(전년대비, %)

국민소득	2024	2025	2026 ^f
국민총소득(GNI)	6.2	4.4	6.1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4	24.0	11.0

주: f는 전망치를 의미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 신산업 중심의 수익 증가 •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상승 • 국외투자소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 둔화 • 외국인 취업자 증가 •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2026년 국민총소득(이하 'GNI')은 전년대비 6.1%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의 확장에 따라 국내총소득(이하 'GDI')⁸⁶⁾이 전년대비 상향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인 본원소득수지도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할 전망에 따른 것이다⁸⁷⁾. 반기별로는 상반기의 증가세가 비교적 높으며 하반기에는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총생산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부터의 본원소득 유입이 국민총소득을 추가로 끌어올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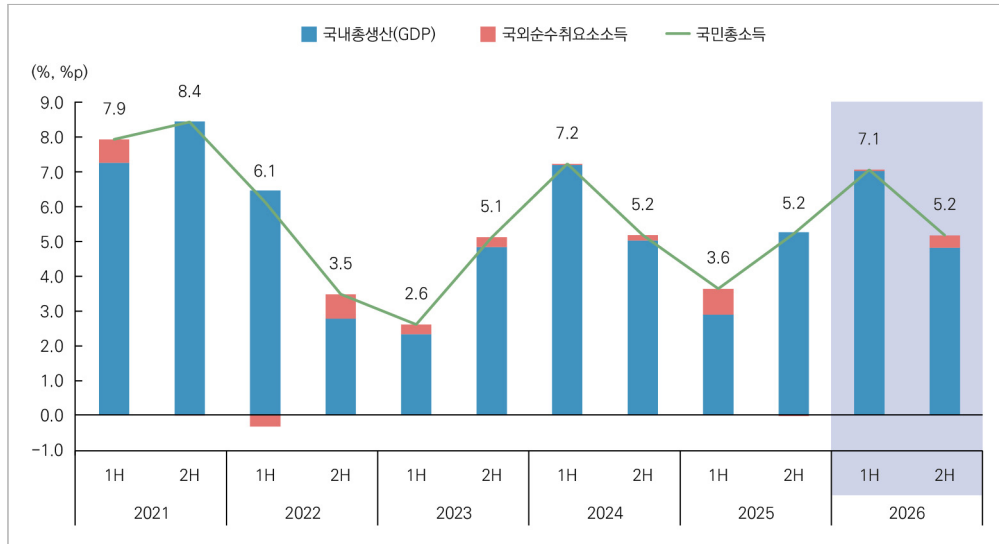
86)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국민경제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합한 총 소득으로 국내총소득(GDI: Gross Domestic Income)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합이다.

국내총소득(GDI)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및수입세로 구성되며, 국민소득 삼면등가원칙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과 동일하다. 국내총생산 전망은 본권 'II장 지출'에서 설명한다.

87)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 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경상수지 전망은 본권 '제 II부 지출전망'에서 설명한다.

리는 구조에 기인한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GNI대비 비중은 2016년 0.3%였으나 꾸준히 높아져 2021년 1.0%까지 높아졌고, 2023년은 1.4%였으며 2026년에는 1.8%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림 IV-2] 국민총소득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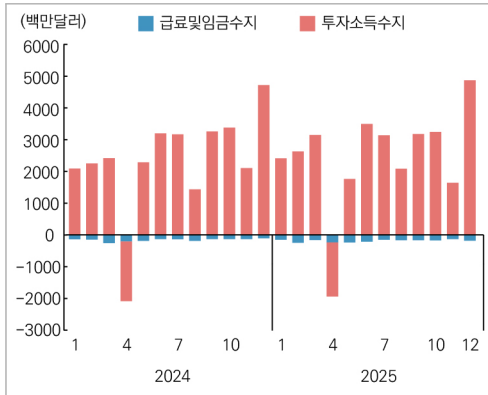
주: 음영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변동은 주로 본원소득수지 중 투자소득수지의 움직임에 의해 설명된다⁸⁸⁾. 국외순수취비용자보수에 해당하는 급여 및 임금수지는 규모가 크지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국외순수취기업 및 재산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소득수지는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변동폭이 큰 편이다. 유형별로는 직접투자소득수지와 기타투자소득수지가 대체로 흑자 기초를 유지하고 있어 해외 자회사 수익과 배당·이자 수입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은 2026년에도 투자소득수지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배당·이자수입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익 증가를 고려할 때, 2026년에도 본원소득수지는 흑자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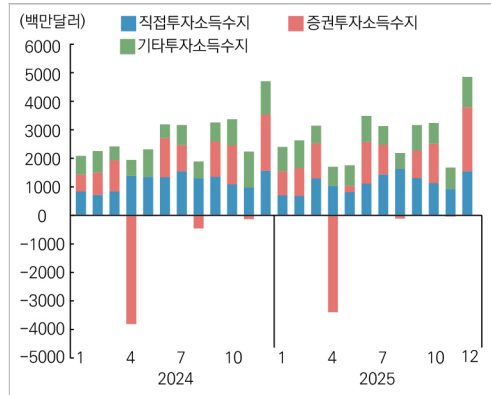
88) 2025년 상반기 본원소득수지는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했으나, 하반기는 보합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2025년에는 본원소득수지와 국외순수취요소소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분기 GNI 잠정치가 국제수지 소급수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2025년 명목치는 향후 한국은행의 확정치 발표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 전망의 2026년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본원소득수지 증가를 전망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IV-3] 본원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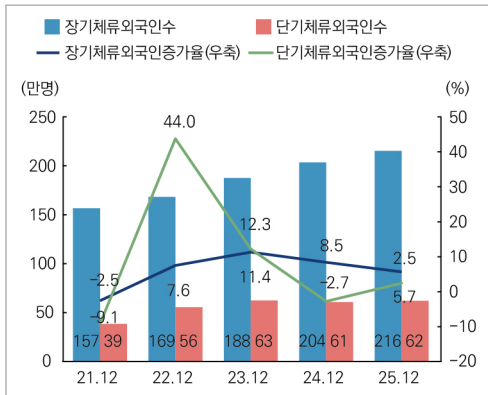
[그림 IV-4] 투자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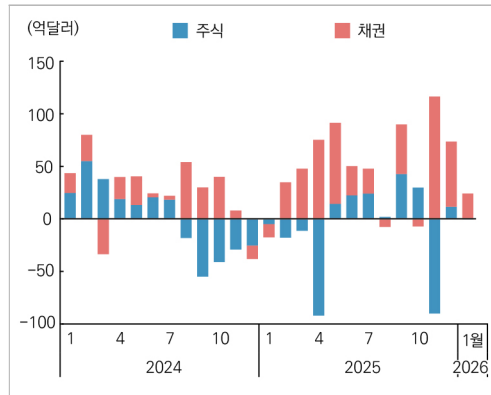
한편, 장기 체류외국인은 2025년말 216만명으로 2021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외근로소득 지급 확대와 주주환원 강화에 따른 국외 배당지급 증가는 2026년 본원소득수지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확대는 향후 배당 지급 증가로 이어져 투자소득수지 흑자폭을 일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림 IV-5] 장단기 체류외국인



자료: 법무부

[그림 IV-6]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자료: 한국은행, 2026년 1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2026년의 GNI의 구성은 영업잉여 중심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국민총소득 증가가 기업소득 확대에 견인됨에 따라 GNI 대비 영업잉여 비중은 전년 대비 1.0%p 상승한 22.1%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22%대 비중을 회복하는 수준이다. 한편 피용자보수와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은 각각 0.6%p, 0.3%p 낮아진다. 생산요소별 구성비를 보면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46.5%, 영업잉여 22.1%, 고정자본소모 21.7%, 순생산 및 수입세 8.0%, 국외순수취요소소득 1.8%이다.

[표 IV-3] 국민총소득(GNI) 성장률 및 구성비

(단위: 전년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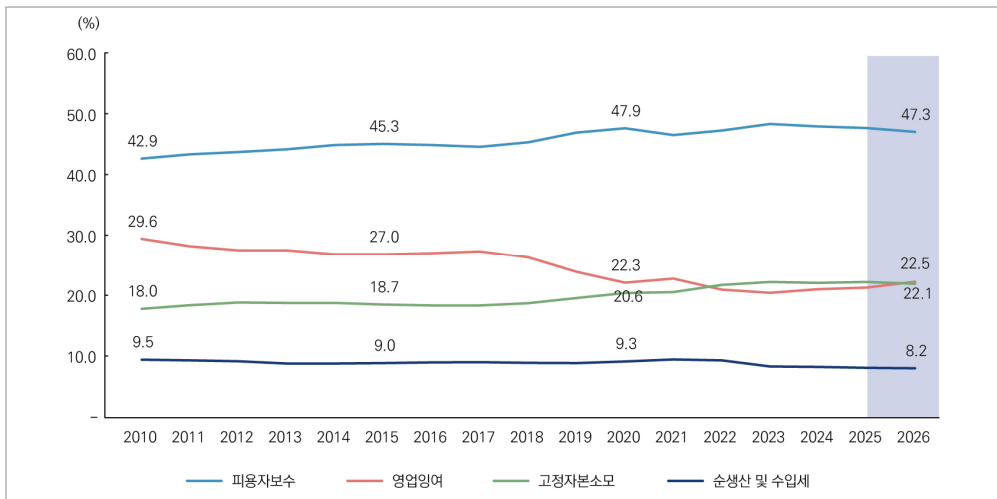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민총소득(GNI) 성장률	0.9	8.2	4.7	3.9	6.2	4.4	6.1
피용자보수	47.5	46.3	46.9	47.9	47.5	47.1	46.5
영업잉여	22.1	22.7	20.9	20.3	20.9	21.1	22.1
고정자본소모	20.4	20.5	21.7	22.1	21.9	22.0	21.7
순생산 및 수입세	9.2	9.5	9.4	8.3	8.3	8.1	8.0
국외순수취요소소득	0.8	1.0	1.2	1.4	1.4	1.7	1.8

주: 2025년 음영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소득부문 구성비를 GDP 대비 장기 추세로 보면, 2026년의 영업잉여 확대를 소득분배 구조의 추세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영업잉여 비중은 2010년대 초반 20% 후반 수준에서 낮아졌다가 최근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6년에도 과거 수준 회복에는 이르지 못한다. 피용자보수 비중 역시 2020년 고점 이후 다소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2026년의 영업잉여 중심 성장은 기업 수익여건 개선에 따른 단기적 성격이 강하며, 이를 곧바로 노동소득 증가 구조의 약화나 기업소득 중심 구조로의 추세 전환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림 IV-7]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 피용자보수

- 2026년 피용자보수는 전년대비 4.6% 증가할 전망

	2024	2025	2026 ^f
피용자보수	5.2	3.6	4.6

(전년대비, %)

주: f는 전망치를 의미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상승률 증가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수 증가 속도 둔화 • 국민연금 가입률 하락세

2026년 피용자보수는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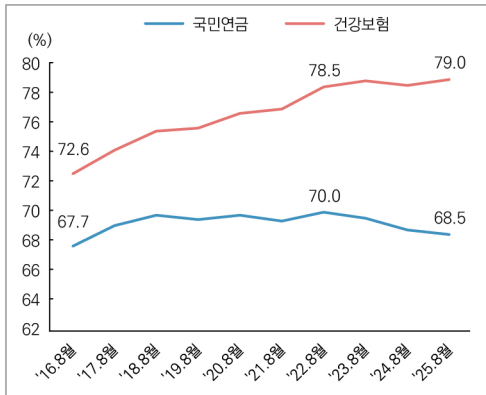
피용자보수는 노동의 몫으로 임금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임금근로자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통해 기본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2026년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의 3.1% 대비 0.2%p 증가한 3.3%로 예상되어 피용자보수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2026년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은 전년(1.2%) 대비 둔화된 1.1%로 전망되어 하방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피용자보수에는 임금 및 급여 이외에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사회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포함되는데, 해당 부분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보험료율 증감의 영향을 받는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주의 사회부담금에서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2026년 현재 요율이 각각 근로자 보수월액의 9.5%, 7.19%이다(이 중 사용자는 절반을 부담한다). 기존에 9.0%였던 국민연금 요율은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될 계획으로, 이를 피용자보수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70.0%를 기록한 뒤 완만하지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망의 하방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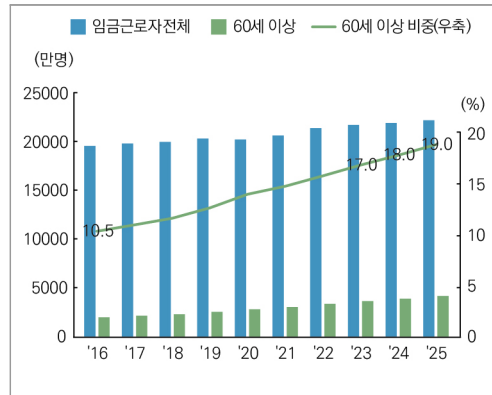
이 높아지는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6년 10.5%에서 2025년 19.0%로 매년 1.0%p씩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가입 연령 상한이 없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률은 2022년 78.5%를 기록한 뒤 큰 변동이 없다.

[그림 IV-8] 주요 사회보험 직장가입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V-9]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추세



자료: 국가데이터처

2. 영업잉여

- 2026년 영업잉여는 전년대비 10.8% 증가할 전망

	2024	2025 ^e	2026 ^f
영업잉여	9.3	5.5	10.8

(전년대비, %)

주: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를 의미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AI 관련 고부가가치 반도체 업황 개선	• 관세정책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2026년 영업잉여 증가율은 10.8%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영업잉여 증가율은 전년대비 5.5% 수준으로 추정된다.

AI 관련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수출 증가세는 기업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며 영업잉여 증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⁸⁹⁾⁹⁰⁾ AI 관련 반도체의 구조적 수요 증가는 수출 단가 상승 및 기업 수익성으로 직결되어, 2026년 코스피 상장기업의 전체 영업이익 증가를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FnGuide('26.3.5일 기준)에 따르면 2025년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01조원(+12.6%), 2026년은 616조원으로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섹터별로는 전기·전자 기업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30.9%, 2분기에는 48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관세정책과 환율 변동성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마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영업잉여 증가를 제약하는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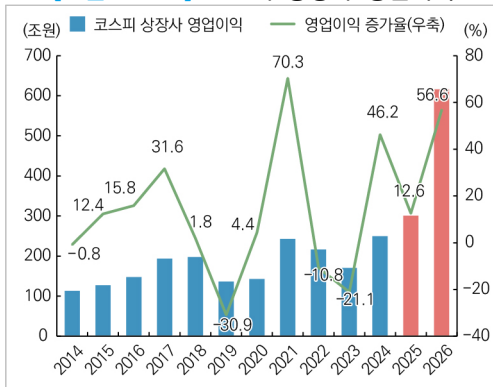
백기홍 경제분석관보(ghbaek@assembly.go.kr, 6788-4750)

89) 소득발생계정의 균형항목인 영업잉여(영업잉여 = 총산출 - 중간소비 - 피용자보수 - 고정자본소모 - 순기타생산세)는 기업회계의 영업이익(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과 개념상 유사하나 통계적 정의와 회계처리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90) 2024년 기준 영업잉여 대비 상장사 영업이익의 비율은 46.1%, 법인 영업잉여 대비 상장사 영업이익의 비율은 57.8%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잉여는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 영업이익의 영향을 반영하여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실제로 영업잉여 증가율이 급증했던 2021년(11.2%)과 2024년(9.3%)에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각각 70.3%, 46.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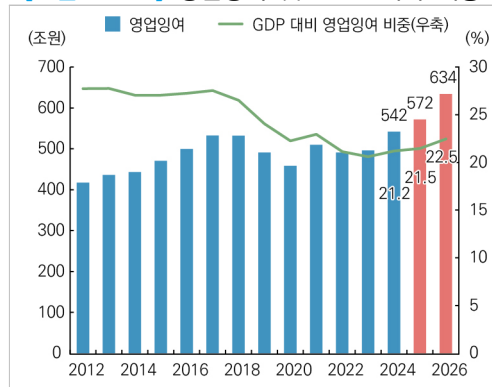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 특히 대중국 고율 관세 인상은 시차를 두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발하여 대중국 등 한국의 중간재 수출 물량에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는 헤지비용 증가와 수입 원가 상승 등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이 있을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의 증가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IV-10]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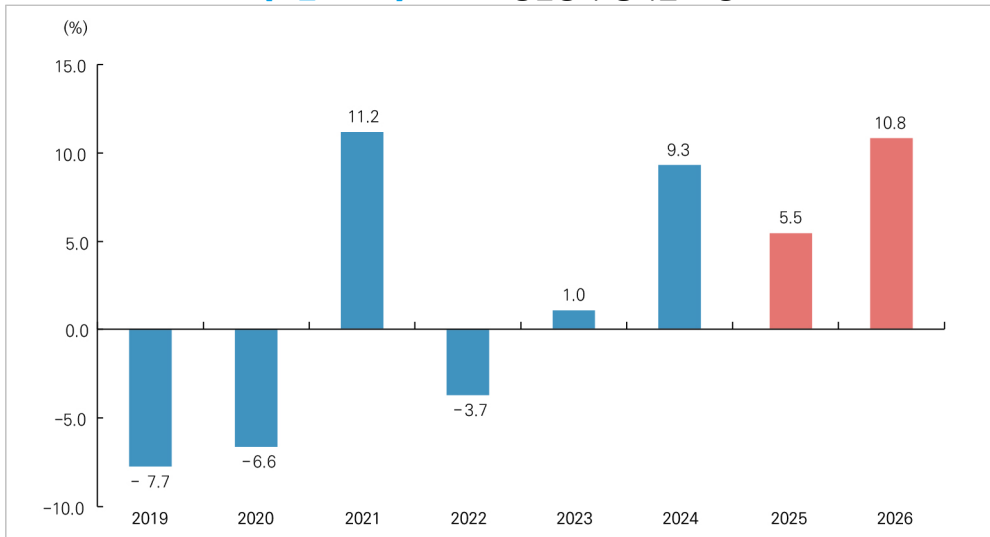
주: 2025, 2026년은 시장 컨센서스 수치
자료: 한국은행, FnGuide('26.3.5일 기준)

[그림 IV-11] 영업잉여 및 GDP 대비 비중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V-12] 2026년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3. 고정자본소모

- 2026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대비 4.6%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4	2025 ^e	2026 ^f
고정자본소모	5.6	4.8	4.6

주: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를 의미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건설자산 증가세 둔화

2026년 고정자본소모는 전년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5년 고정자본소모는 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5년 9월 발표된 2026년 NABO 경제전망의 고정자본소모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2025년 고정자본소모는 0.2%p 하향 조정되었다. 하향 조정된 주요 이유는 2025년의 실질 건설자산형성 증가율이 -9.8%를 기록하여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고정자산 중 건설자산의 비중이 70% 이상인 상황에서 건설투자의 위축은 전체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율을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는 생산활동 중 상실된 고정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고정자본의 소모에는 기술이 진부화되어 더 이상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자본도 포함된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경제구조가 자본 및 기술집약형으로 변할수록 고정자본소모도 커지게 된다. 특히 지식재산생산물은 고정자산 중 고정자본소모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축적방정식⁹¹⁾⁹²⁾을 활용하여 순고정자산, 건설자산,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추정해 보면, 지식재산생산물의 감가상각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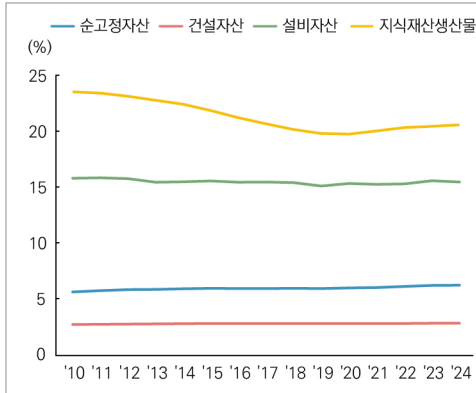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91) $K_t = I_t + (1 - \delta_t)K_{t-1}$, I_t 는 당기의 고정자본형성(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K_t 는 당기의 순자본스톡, δ_t 는 당기 감가상각률을 의미

92) 한국은행에서는 영구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 PIM)이라 부르며, 위 방식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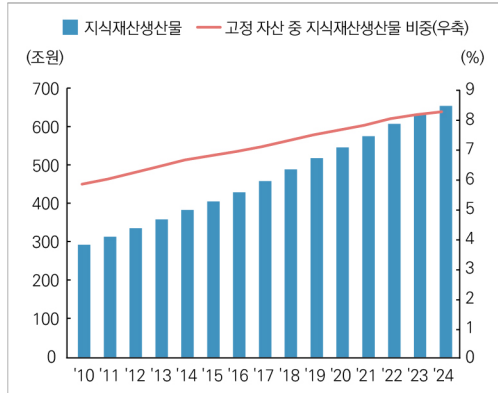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정자산 중 지식재산생산물의 형성에는 R&D 투자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R&D 투자는 실패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R&D 투자가 실패할 경우 고정자본소모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식재산생산물의 감가상각률은 높게 형성된다. 전체 고정자산 내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 확대는 고정자본소모 증가율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전체 고정자산 중 지식재산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8%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8.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감가상각 속도가 빠른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자본스톡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증가세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림 IV-13] 자산별 감가상각률 비교



주: 실질 가치로 환산된 자산별 감가상각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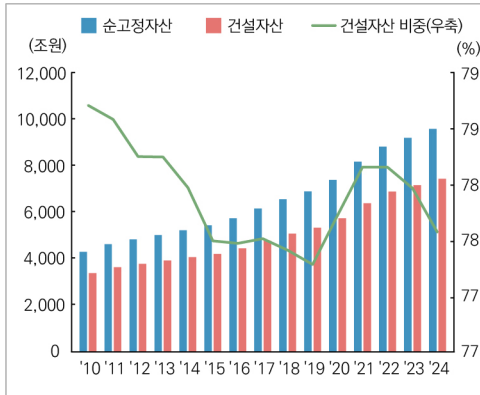
[그림 IV-14] 고정자산 중 지식재산생산물 비중



주: 고정자산의 실질가치를 활용하여 계산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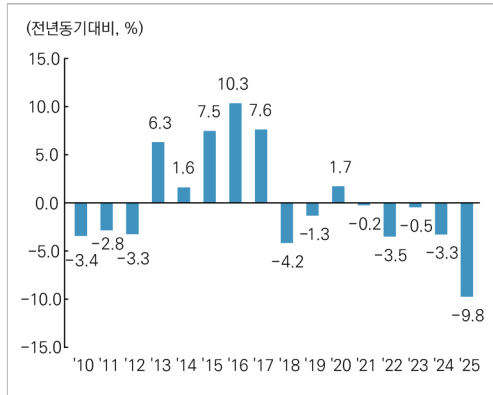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고정자산 내에서 건설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대로 높기에, 건설자산의 투자 동향은 전체 고정자본소모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된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투자의 급격한 둔화는 고정자본소모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규 건설투자의 감소는 자본 스톡의 순증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대체되어야 할 고정자본의 절대량 증가 폭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IV-15] 순고정자산 중 건설자산 비중



주: 명목 순고정자산 중 명목 건설자산 비중을 표시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16] 건설자산형성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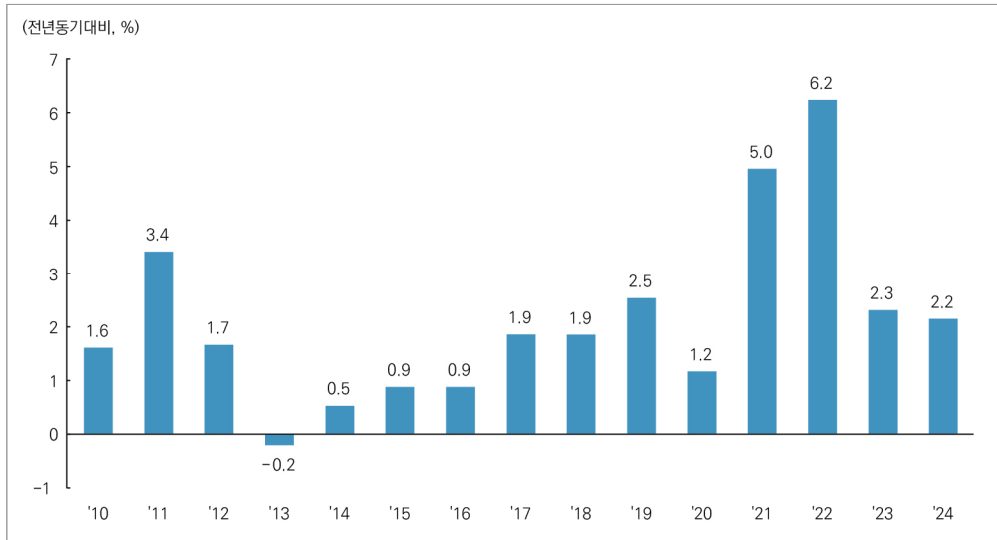


주: 실질가치로 계산된 건설자산 증가율을 표시
자료: 한국은행

고정자본소모 전망은 유형별 자본스톡의 실질 가치 감소분을 자본축적 방정식을 통해 추정한 후, 이를 화폐가액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실질 고정자본소모를 명목 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디플레이터 추정이 수반된다.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는 별도의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거 수치는 기 추정된 명목 및 실질 고정자본소모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향후 전망 시에는 자본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설비·지식재·생산물 투자 등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를 활용하는데, 이는 자본형성과 자본소모의 가격 변동 추이가 유사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자본축적방정식을 활용하여 계산된 실질 고정자본소모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명목 고정자본소모를 활용하여 계산된 고정자본소모의 디플레이터는 [그림 IV-17]과 같다.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역성장 기였던 2020년 1.2% 수준에 그쳤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0%, 6.1%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고물가 현상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후 2023년과 2024년에 접어들어 전반적인 물가 지표가 진정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고정자본소모 디플레이터 또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IV-17] 고정자본형성 디플레이터 추이



자료: 한국은행

4. 순생산 및 수입세

- 2026년 순생산 및 수입세⁹³⁾는 전년대비 5.1% 증가할 전망

	(전년대비, %)		
	2024	2025	2026 ^f
순생산 및 수입세	5.5	2.2	5.1

주: f는 전망치를 의미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세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부동산세입 증가 	

2026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5.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25년의 증가율인 2.2%에 비해 2.9%p 높은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나, 순생산 및 수입세는 2.2% 증가에 그쳤다. 2025년 국세수입⁹⁴⁾ 증가는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의해 나타난 반면, 생산 및 수입세에 해당하는 주요 6종 세목 수입의 합은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특히 순생산 및 수입세에서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3.7%, 27.7% 감소하였다. 한편 지방세입은 취득세입 1.6조 원 증가 등 전년대비 6.8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⁹⁵⁾

한승룡 경제분석관(hsr1678@assembly.go.kr, 6788-4752)

93)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값으로,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본원소득 중 정부에 1차로 분배되는 몫이다. 또한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입도 포함하므로, 국세만을 현금주의로 집계한 국세수입 실적과는 차이가 있다.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에는 명목 GDP 성장률, 총수입, 총수출을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생산 및 수입세 관련 국세 6개 세목(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과 기타 세목 수입도 함께 고려하였다.

94) 2015~2024년 현금주의 국세수입과 발생주의 순생산 및 수입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상관관계수 0.96으로 강한 양(+)의 선형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세수입은 순생산 및 수입세 전망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95)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 수입 잠정 실적 발표」

[표 IV-4] 최근 3개년 국세 수입 실적

(단위: 조 원, %)

	2023년	2024년	2025년	'24~'25년	
	실적	실적	실적	증감	증감율
■ 총 국 세	344.1	336.5	373.9	37.4	11.1
■ 일 반 회 계	333.9	326.2	361.5	35.3	10.8
○ 내 국 세	306.1	298.3	330.2	31.9	10.7
- 소 득 세	115.8	117.4	130.5	13.0	11.1
- 법 인 세	80.4	62.5	84.6	22.1	35.4
- 상속증여세	14.6	15.3	16.5	1.2	7.8
- 부가가치세	73.8	82.2	79.2	△3.1	△3.7
- 개별소비세	8.8	8.7	8.5	△0.1	△1.6
- 증권거래세	6.1	4.8	3.4	△1.3	△27.7
- 인 지 세	0.8	0.8	0.8	0	0
- 과년도수입	5.7	6.5	6.8	0.3	4.6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	11.4	13.2	1.8	16.2
○ 관 세	7.3	7.0	7.6	0.7	9.6
○ 교 육 세	5.2	5.4	5.7	0.3	5.6
○ 종합부동산세	4.6	4.2	4.7	0.5	11.2
■ 특 별 회 계	10.1	10.4	12.4	2	19.2
○ 주 세	3.6	3.3	3.2	△0.1	△3.0
○ 농 특 세	6.6	7	9.2	2.2	31.2
생산 및 수입세 관련 국세 6개 세목 수입의 합	111.4	118.3	116.6	△1.7	△1.4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에 따라 내수분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한편, 상품 수입의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도 확대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조정⁹⁶⁾과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세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⁹⁷⁾이 9.16% 상승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2억원 초과 주택이 약 17만 가구 증가하

96)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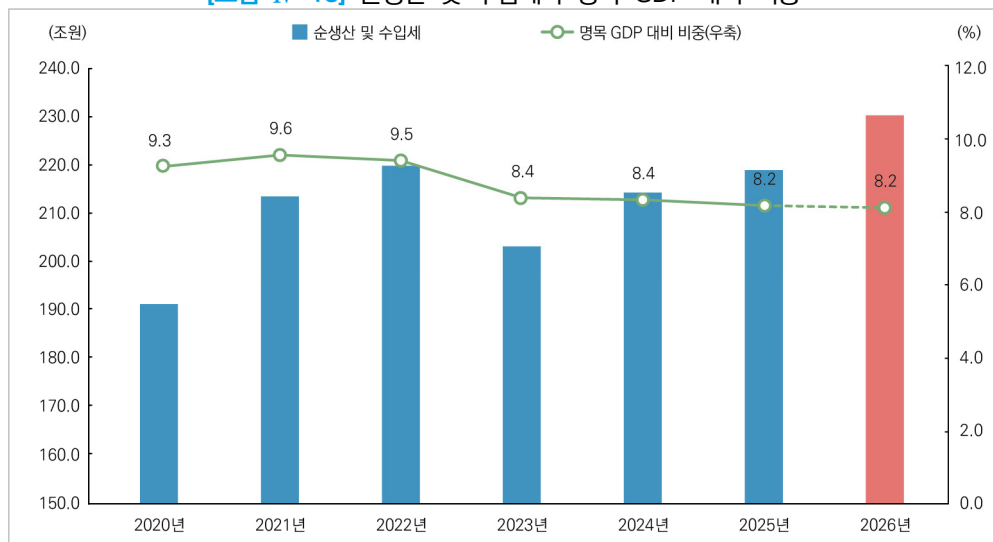
97) 국토교통부,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면서 관련 세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득세수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6년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⁹⁸⁾

한편, 전망의 불확실성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변동성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있다. 유가 및 환율의 변동은 수입 관련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행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⁹⁹⁾ 여부에 따라 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

2025년 순생산 및 수입세는 약 219조 원이고, 명목 GDP 대비 비중은 8.2%로 2021년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에도 8.2%로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IV-18] 순생산 및 수입세와 명목 GDP 대비 비중



주: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98) 국토교통부, 「'26년 1월 주택통계」

99) 정부는 2026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를 동년 4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하였다.

5. 국민총소득의 분배

- 2026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전년대비 6.1%, 가계 총처분가능소득(HGNDI)은 4.6% 증가할 전망
 - 총저축률은 36.5%로 3년 연속 증가하며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2026년 1인당 GNI는 5,550만원,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HGNDI)는 3,002만원으로 예상

(단위: 전년대비 %)

분배구조	2024	2025	2026 ^f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6.2	4.4	6.1
가계 총처분가능소득(HGNDI)	5.5	3.6	4.6
총저축률(%)	34.8	35.3	36.5
1인당 GNI(만원)	5,012	5,242	5,550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만원)	2,774	2,878	3,002

주1: f는 전망치를 의미

주2: 2026년 1인당 소득은 NABO인구전망(총인구 연안인구)을 이용하여 전망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자산소득 및 투자소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호조의 낙수효과 시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소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소비지출 부담

2026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이하 'GNDI')은 전년대비 6.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GNI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이전수지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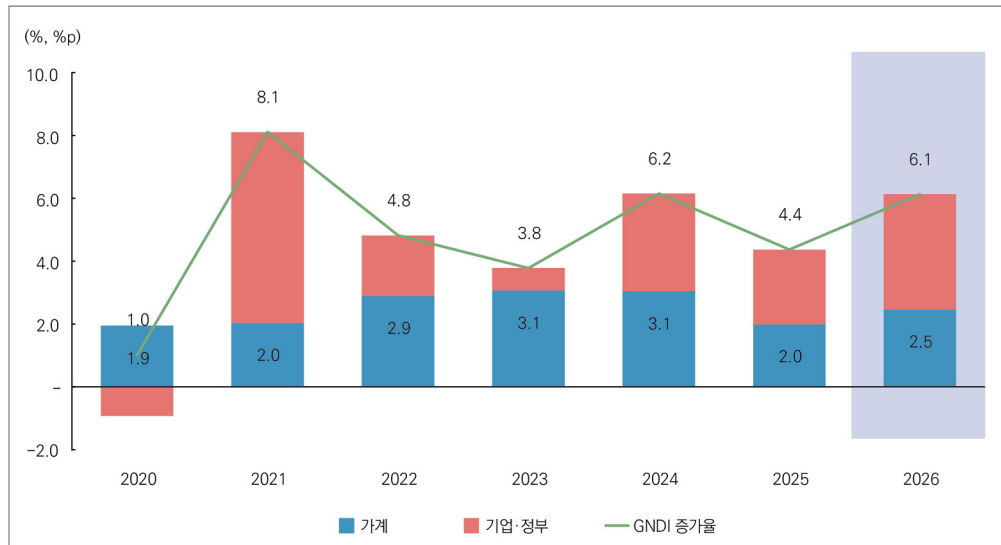
경제주체별 분배로 볼 때, 가계총처분가능소득(HGNDI: Household GNDI)은 전년대비 4.6% 증가하여, GNI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¹⁰⁰⁾. 이는 2026년 소득증가가 노동소득이 아닌 영업잉여를 중심으로 나타날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hurgh@assembly.go.kr, 6788-4749)

100) 가계 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소득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소비와 저축 등에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으로 정의한다. 가계소득이 정체되면 소비 위축 및 내수 성장 둔화로 이어지므로 “분배와 소비 기반”을 보강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는다. 본 고에서는 파용자보수와 정부최종소비지출, 총저축을 설명변수로 전망하였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2026년의 상방요인으로는 기업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나 공적이전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세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 등은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경제의 성장률 변동이 큰 시기에다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당시에는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¹⁰¹⁾.

[그림 IV-19] 경제주체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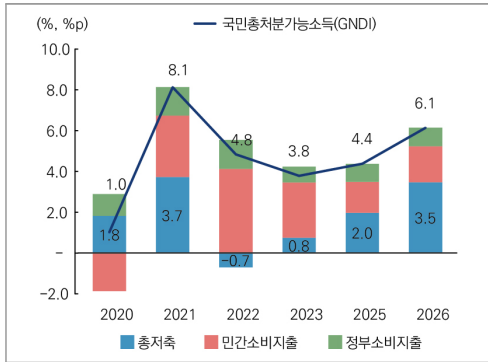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소비와 저축의 분배로 볼 때, 2026년 소비에 비해 저축의 증가가 큰 폭으로 나타나, 총저축율은 36.5%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20년 중 가장 높은 총저축율을 기록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번 증가는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내수 기반 강화나 가계의 후생 개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총저축 확대는 향후 투자재원 확충과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므로 향후 얼마의 시차를 두고 임금·배당·소비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경제적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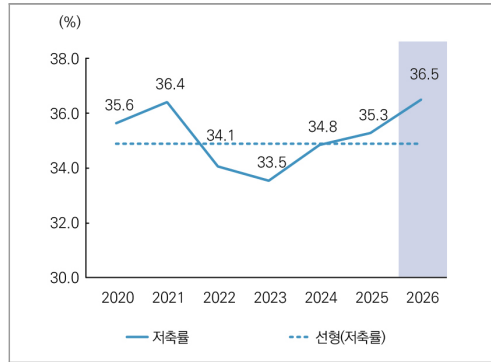
101) 가계 순처분가능소득의 항목별 구성의 변화는 국회예산정책처(2025), 「NABO 경제전망: 2025~2029」, p.145에서 설명한다.

[그림 IV-20] 소비와 저축의 분배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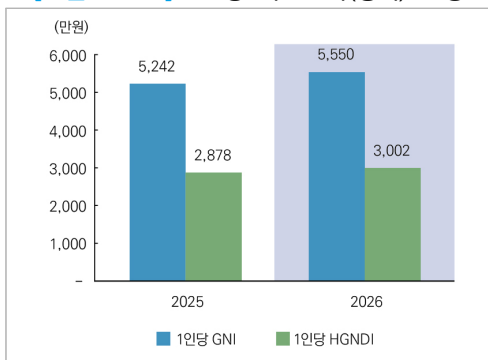
[그림 IV-21] 저축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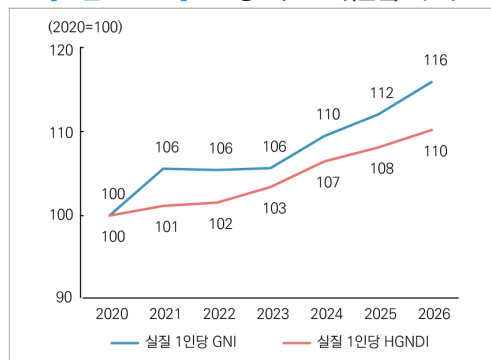
2026년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 기준 5,550만원으로 2025년 5,242만원보다 5.9% 증가할 전망이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¹⁰²⁾도 2025년 2,878만원에서 2026년 3,002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 전체와 가계의 소득여건은 모두 개선되겠으나, 증가폭은 1인당 국민총소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기준으로도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실질 1인당 국민소득은 2025년 112에서 2026년 116으로, 실질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108에서 110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을 보여주지만,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은 국민 전체 소득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2] 1인당 국민소득(명목)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V-23] 1인당 국민소득(실질) 추이



주: 1인당 국민소득(실질)은 2020년을 100으로 하는 CPI를 적용하여 산출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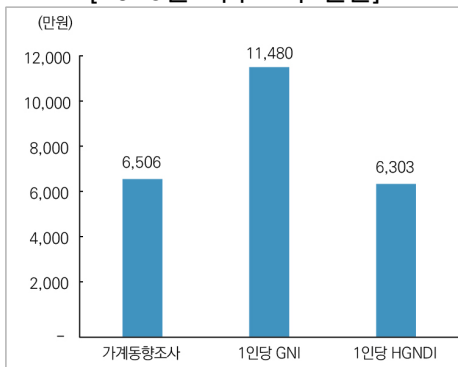
102)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PGDI(Per Capita Household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으로 부른다.

[BOX 8] 국가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 1인당 GNI와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HGNDI)

2026년 1인당 국민소득은 5,550만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1인당 GNI는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으로, 국가경제의 규모와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인구 규모가 다른 국가 간 경제수준을 비교하는 데에도 널리 활용된다. 다만 1인당 GNI는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 수준이나 가계의 소비여력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1인당 GNI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인 반면, 실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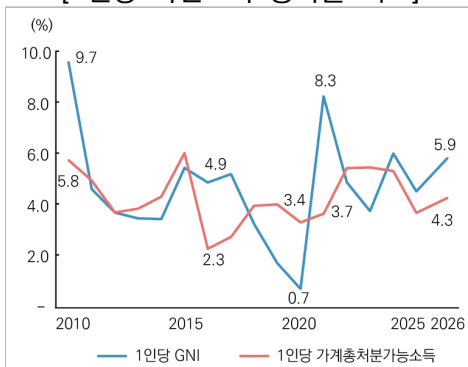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가구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5년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2만 원으로, 연간 약 6,506만 원 수준이다. 2025년 평균 가구원수(2.19명)를 적용해 1인당 소득지표를 가구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당 GNI는 약 1억 1,480만 원으로 나타나 가계동향조사상 평균 가구소득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반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2,878만 원)을 적용하면 약 6,303만 원으로, 가계동향조사상 평균 가구소득과 비교적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비교는 1인당 GNI보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 가계의 체감 소득수준에 더 근접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2025년 가구소득 환산]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비교]



또한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경기 변화뿐 아니라 국민소득이 정책개입과 분배 과정을 거쳐 가계에 귀속된 결과를 반영한다. 1인당 GNI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교역·요소소득 변화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공적이전, 사회보장급여, 조세 및 사회부담금 조정 등을 거친 뒤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나타낸다. 코로나19와 같은 충격기에는 1인당 GNI 증가율이 국민경제 전반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여 0.7%로 낮아진 데 비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이전소득 등을 통한 소득 보전 효과가 함께 반영되면서 3%대의 보다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경기 흐름을 평가할 때에는 1인당 GNI가 유용하지만, 내수 여건이나 가계의 소비여력을 판단할 때에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26년과 같은 수출 주도 성장 국면에서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더라도, 그 성과가 임금·배당·이전소득 등을 통해 가계에 충분히 이전되지 않으면 소비 회복은 제약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인당 GNI와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간의 차이는 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 개선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향후 내수와 민생 흐름을 점검할 때에도 1인당 GNI뿐 아니라 실질 가계처분가능소득, 피용자보수, 민간소비 등 소득부문 지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고용

- **2026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7.4만명(0.6%) 증가할 전망

-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63.0%로 전망

- **2026년 실업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2.9%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만명,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취업자 (증가율)	15.9 (0.6)	18.1 (0.6)	20.6 (0.7)	19.3 (0.7)	19.1 (0.7)	15.7 (0.5)	17.4 (0.6)
고용률	62.7	62.6	63.1	62.9	62.8	63.2	63.0
실업률	2.8	3.1	2.5	2.8	3.1	2.8	2.9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민간소비의 회복세 지속	• 실질 수출 성장률 조정
•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	
•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2026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7.4만 명(0.6%) 증가할 전망이다.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을 반영하여 취업자 증가폭은 상반기(19.1만명)가 하반기(15.7만명)보다 높겠다.

상반기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고용 감소세가 완화 또는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수출 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다소 둔화할 전망으로, 이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연관 업종의 고용 감소 또는 둔화가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인 노인일자리 수를 2025년 110만개에서 2026년 115만 개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령자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

취업자 수가 15세 이상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용률은 2026년 역대 최고 수준인 63.0%를 기록할 전망이다.¹⁰³⁾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세가 지속되며 높은 고용률을 뒷받침하겠으나, 노동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지는 못하여 2026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2.9%를 기록하겠다.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103) 고용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인구는 「NABO 인구전망: 2025~2045」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제3절 임금

- 2026년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3.3% 상승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2.9	3.6	2.6	3.1	3.5	3.0	3.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수익성 개선 • 내수회복에 따른 노동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시간 일자리 비중 증가

2026년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¹⁰⁴⁾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5%, 하반기에 3.0% 상승하여 연간으로는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명목임금상승률(3.1%) 대비 0.2%p 높은 수준이다.

명목임금은 제도적 요인(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회복에 따른 노동 수요 확대 등으로 상방 압력이 존재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어 저임금일 자리를 중심으로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노인일자리 등 단시간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전체 평균임금 상승을 제약 시킬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노동 수요 확대는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 중 정액급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특별급여는 기업 실적과 연동되는 특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임금 상승률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FnGuide 컨센서스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개선된 기업 수익성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부 특별급여 증가로 반영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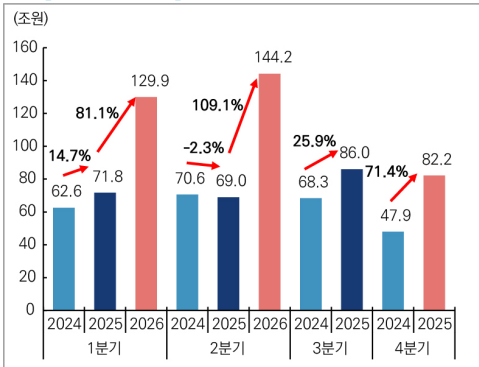
백기홍 경제분석관보(ghbaek@assembly.go.kr, 6788-4750)

104)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파악되는 전체임금총액(상용 1인 이상 전규모 사업체 임금근로자 평균) 기준의 임금을 말한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I 관련 반도체 산업 등 특정 산업 중심의 성장구조는 임금 상승 압력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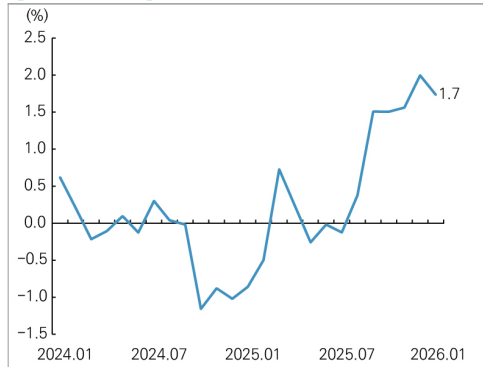
한편 일부 고용지표의 완만한 둔화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 흐름은 임금 상승 폭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실업률 상승과 구인배수 하락세 지속 등 고용 여건이 점차 악화될 경우 노동자의 임금상승세가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되는 흐름은 명목임금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증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그림 IV-24]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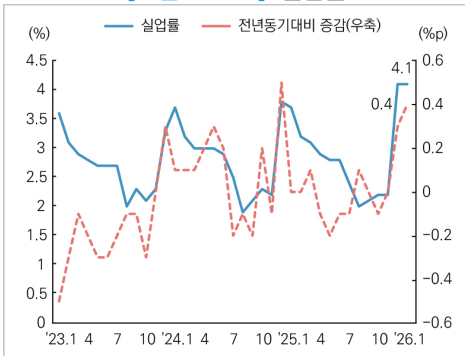
주: '25.3분기 이후는 시장 컨센서스 수치
자료: FnGuide('26.3.5일 기준)

[그림 IV-25] 내수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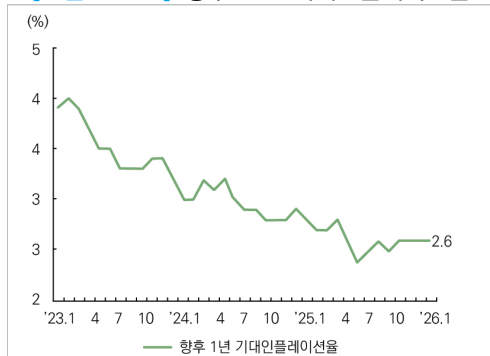
주: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예술스포츠여가, 기타개인서비스업 포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V-26] 실업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IV-27]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 한국은행

2026년 NABO 경제전망

V

지속성장

제1장 |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제2장 | 부문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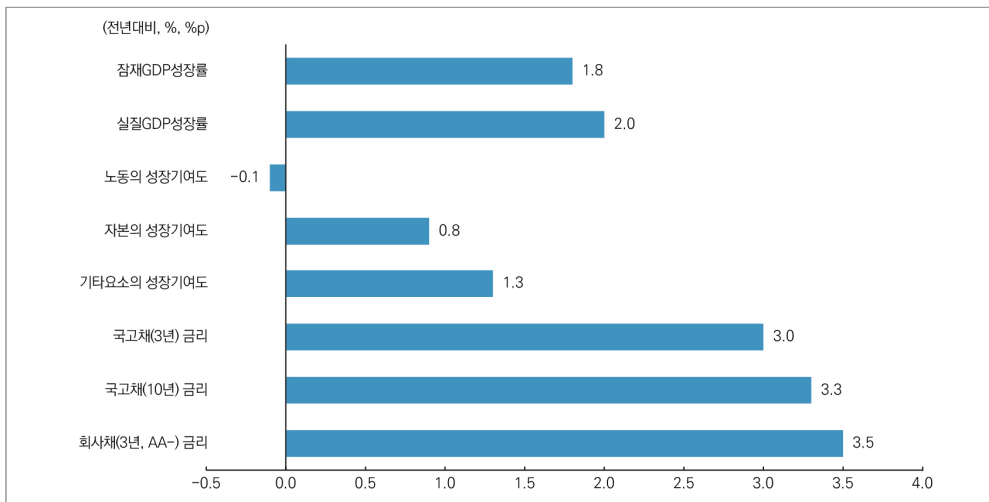
제1장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⁰⁵⁾

1.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026년 잠재성장률은 2025년 9월의 전망치와 동일한 1.8%로 전망하였다. 2026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각 생산요소의 기여도는 노동과 자본이 종전 전망치와 동일한 -0.1%p와 0.8%p를 각각 유지하였으며, 기타요소는 1.3%p(0.1%p 상향조정)로 전망하였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환경과 생산 요소들을 이용하여 지속할 수 있게 경제가 성장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5년 이상의 중기 시계에서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 증가율의 실적치 및 전망치가 변화하게 되면,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경제성장 수준도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추정치도 변화하게 된다.

[그림 V-1] 2026년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실질 경제성장률 기여도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경제분석관(gskim01@assembly.go.kr, 6788-4670)

강은정 경제분석관(eunjungkang@assembly.go.kr, 6788-4680)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표 V-1] 2026년 성장부문 수정전망

(단위: %, %p)

	2025년 9월 전망(A)	2026년 3월 전망(B)	차이
잠재성장률	1.8	1.8	-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1.9	2.0	0.1
노동의 성장기여도	-0.1	-0.1	-
자본의 성장기여도	0.8	0.8	-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1.2	1.3	0.1
국고채(3년) 금리	2.4	3.0	0.6
국고채(10년) 금리	2.6	3.3	0.7
회사채(3년, AA-) 금리	2.8	3.5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3월의 2026년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2025년 9월의 2026년 전망치가 차이가 없는 이유는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총노동투입량 증가율 및 총생산자본스톡 증가율 등의 향후 5년 이내 중기 전망치가 2025년 9월과 2026년 3월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전망에서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가 2025년 9월 전망치에 비해 0.1%p 증가하였지만, 2027~2029년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였다. 또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총노동투입량 및 총생산자본스톡 등의 연도별 전망치도 2025년 9월과 2026년 3월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중장기적 경제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026년에도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였다.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는 각각 -0.1%p, 0.8%p로 2025년 9월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기타요소의 성장률 기여도는 종전 전망치에 비해 0.1%p가 높은 1.3%p로 전망하였다. 2026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먼저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축소되어 총노동투입량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0.1%p를 기록할 전망이다. 자본의 성장기여도 역시 AI·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자본의 한계생산

성 저하로 인해 전년 수준인 0.8%p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202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치 대비 0.1%p 상승한 1.3%p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는 경기의 회복세,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글로벌 금리와의 동조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수정 전망하였다. 2026년 국고채(3년), 국고채(10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2025년 9월 전망에 비교하여 각각 0.6%p, 0.7%p, 0.7%p 상향 조정되었다.



제2장 부문별 전망

제1절 잠재성장률

- 2026년 잠재성장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1.8%로 전망
- 총노동투입량 감소추세와 자본 투입량 증가세 둔화 반영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2026
2.0	1.9	1.8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노동투입량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생산자본스톡 증가율 둔화

2026년 잠재성장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한 1.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기타요소 등 생산요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게 달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총생산 증가율을 의미하며, 국민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기타요소 등 생산요소의 중장기적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키는 것은 노동, 자본, 기타요소 등 생산요소의 중장기적인 추세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따라서 노동, 자본 및 기타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은 잠재성장률의 상방요인이 되며, 감소시키는 것을 잠재성장률의 하방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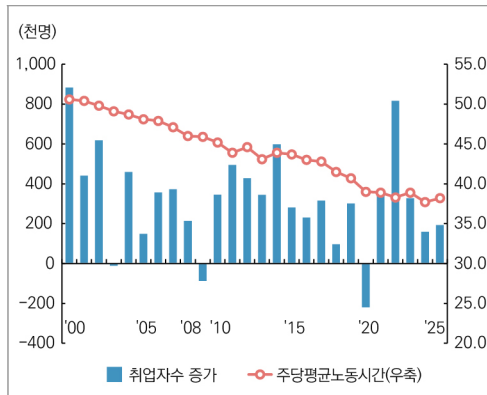
김경수 경제분석관(gskim01@assembly.go.kr, 6788-4670)

105) 잠재성장률은 실질GDP 및 각 생산요소 시계열의 통계적 특성을 활용하여 각각의 추세를 추출하고 이를 생산함수에 대입시켜 잠재GDP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노동, 자본, 기타요소 등 각 생산요소 투입량의 추세를 추출하여 이를 설정된 생산함수에 대입시켜 연도별 잠재GDP를 구하고, 이러한 잠재GDP의 연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로 나타낸다. 또한 잠재성장률의 변동요인은 노동, 자본, 기타요소(총요소생산성)별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계산한 후, 각 생산요소별 기여도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한다.

본 및 기타요소의 추세적인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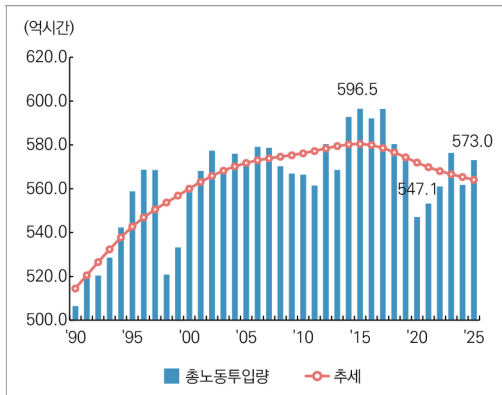
국민경제 전체의 총노동투입량의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주당평균근로시간도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취업자 수와 주당평균근로시간의 곱으로 결정되는 총노동투입량은 증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V-2] 취업자 수 증가 및 주당평균노동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시산

[그림 V-3] 총노동투입량 추이 및 추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시산

전체 노동투입량(L_t)은 취업자 수에 주당평균근로시간을 곱하고 다시 54주를 곱하여 계산된다.¹⁰⁶⁾ 이렇게 계산된 총노동투입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총노동투입량은 2015년 596.5억 시간을 정점으로 2020년 547.1억 시간까지는 감소하였고, 이후 2021~2023년에는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가 2025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조금 증가한 573.0억 시간으로 추정된다.

2021~2023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이후 종결과정에서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주당평균근로시간의 감소추세가 둔화되면서 총노동투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에는 취업자 수 증가(15.9만명)가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고 주당평균노동시간 추정치도 감소하여 총노동투입량이 전년 대비 감소(-0.27%)하였다. 반면 2025년은 취업자 수 증가(6.5만명)가 둔화되었지만, 주당평균노동시간 추정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총노동투입량이 2024년에 비해 증가했던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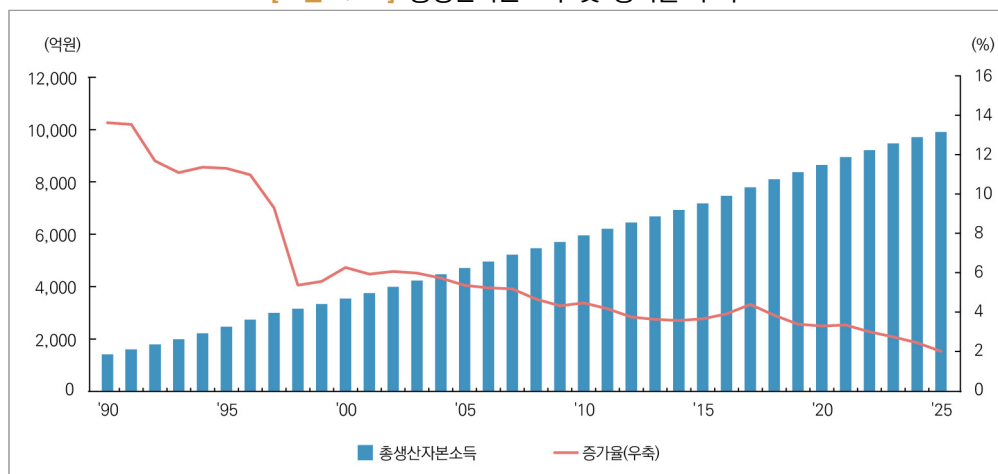
106) 노동투입량(L_t) = 취업자 수 × 주당근로시간 × (365/7), 취업자 수 = 15세이상 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1-실업률)

추정된다. 2026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주당평균노동시간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총노동투입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된다. 2026년은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25년에 비해 소폭 축소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여 총노동투입량이 2025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6년 잠재성장률이 2025년에 비해 하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노동투입량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하방압력,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는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추세는 경제성장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취업자 수의 변동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의 변동(감소)과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총생산자본스톡으로 측정된 총자본투입량은 절대수준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스톡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5년과 2026년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2026년의 자본스톡증가율이 2025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6년 잠재성장률이 2025년 대비 하락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및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증가는 총생산자본스톡과 잠재성장률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림 V-4] 총생산자본스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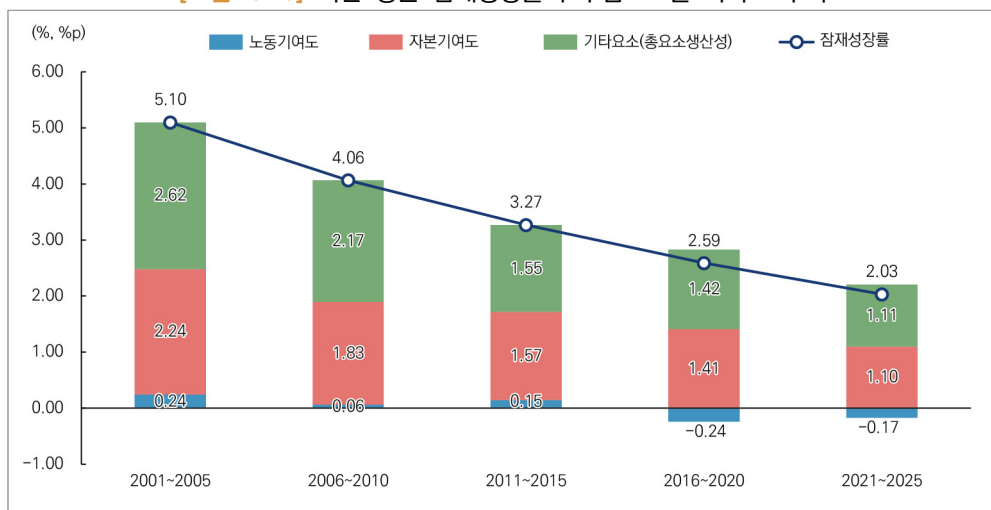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시산

마지막으로 노동과 자본 이외에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생산성 영향요인인 기타요소(총요소생산성)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2026년에도 계속되어 2026년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에 비해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혁신 및 R&D 등에 대한 투자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타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AI의 도입·활용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동일한 노동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는 기타요소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2026년 잠재성장률 전망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 AI의 도입·활용이 기타요소 및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는 않았으며, [BOX 9]에 향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과 기존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총노동투입량, 자본스톡증가율, 기타요소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각 생산요소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하락하거나 음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16~2020년 $-0.24\%p$, 2021~2025년 $-0.17\%p$ 였으며,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16~2020년 $1.41\%p$, 2021~2025년 $1.1\%p$ 로 하락하였다. 또한 기타요소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16~2020년 $1.42\%p$, 2021~2025년 $1.11\%p$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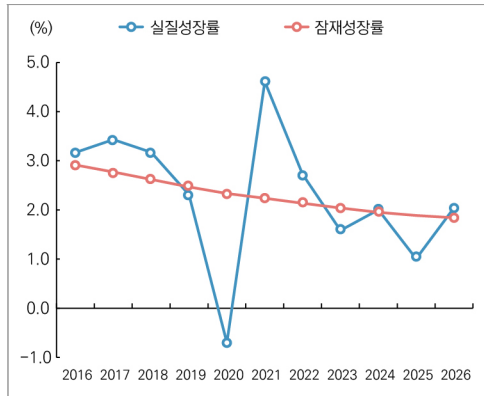
[그림 V-5] 기간 평균 잠재성장률의 투입요소별 기여도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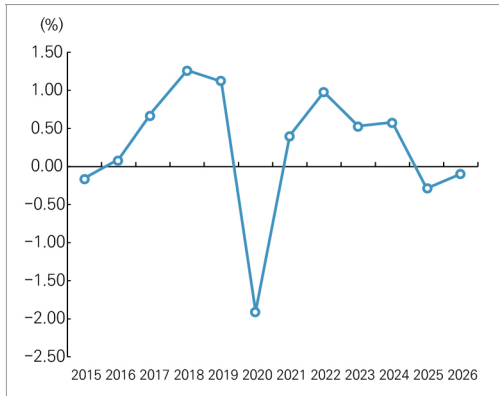
2025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1.0%, 잠재성장률은 1.9%로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2026년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잠재성장률의 전망치인 1.8%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6년의 실질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제 전체의 수요압력인 GDP갭은 소폭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⁰⁷⁾

[그림 V-6] 실질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시산

[그림 V-7] GDP갭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시산

107) GDP갭은 산출갭이라고도 표현하며, 잠재GDP 수준 대비 실질GDP 수준의 비율로 정의한다. GDP갭이 양(+)의 값이면 초과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반대로 음(-)의 값이면 총수요 부족에 의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물가 하락압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OX 9] AI가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AI가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의 방향성을 검토하여 본다.

AI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경로는 크게 「미시적 생산성 증가 → 거시적 생산성 증가 → (잠재)경제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생산성 증가와 거시적 생산성 증가는 각각 개별 기업 혹은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난다.

미시적 생산성 증가¹⁰⁸⁾¹⁰⁹⁾(ΔTFP_i)는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직무(task)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이는 개별 기업과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인한 직무의 효율성 증가는 크게 ①자동화(automation), ②업무 보완성(task complementarity) ③자동화 심화(deepening of automation) ④새로운 업무창출(new tasks)이라고 볼 수 있다.

거시적 생산성 증가($\sum_{i=1}^N \lambda_i \Delta TFP_i$, 여기서 λ_i 는 개별기업 혹은 산업의 비중)는 미시적 생산성 증가로 인해 전체 산업과 거시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AI에 노출되고 AI에 의해 보완되는 직무, 직업 및 산업의 비중을 토대로 거시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증가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생산성 증가와 거시적 생산성 증가를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AI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와 자본소득분배율 및 자본증가율을 토대로 경제성장 증가분을 구할 수 있다.($\Delta \ln Y$)

[AI의 도입과 활용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경로]

AI의 도입과 활용	미시적 생산성 증가	거시적 생산성 증가	(잠재)경제성장
산업별 국가별	ΔTFP_i	$\sum_{i=1}^N \lambda_i \Delta TFP_i$	$\Delta \ln Y$
	-자동화	-AI 노출 산업비중	$-\Delta TFP$
	-업무 보완성	-AI 보완 산업비중	-자본소득분배율
	-자동화 심화	-비용절감률	-자본증가율
	-새로운 업무창출		

108) Acemoglu(2024),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AI", NBER working paper

109) Brynjolfsson(2021), "The Productivity J-curve: How Intangibles Complement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021, 13(1)

AI가 생산성 및 잠재성장에 미치는 기존 선행연구들은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0.9~45%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AI에 대한 산업별 노출도(exposure index) 및 보완도를 계산하여 이를 토대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다시 생산성이 잠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Acemoglu(2024)는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잠재GDP를 0.9~1.6%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고, Goldman Sachs(2023)는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전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잠재GDP를 7%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Penn Wharton Budget Model(2025)은 AI가 향후 10년간 잠재GDP를 1.5%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로 한국은행(2025)는 AI가 초기균제상태에서 최종균제상태까지 이행하는 동안 잠재GDP를 4.2~12.6%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생성형 AI가 출시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생성형 AI와 같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의 로봇 AI와 같은 물리적 AI나 AI agent의 도입 및 활용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가 잠재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연구	잠재GDP 영향	기간	포괄지역
Acemoglu(2024)	0.9~1.6%	10년간	미국
Penn Wharton Budget Model(2025)	1.5%	10년간	미국
Oxford Economics(2024)	1.8~4%	8년간	미국
Mckinsey(2023)	2.4~4.1%	장기	전세계
Alonso et al.(2022)	4.7~19.5%	장기	미국
Goldman Sachs(2023)	7%	10년간	전세계
PricewaterhouseCoopers(2025)	1~15%	10년간	전세계
Aldasoro et al(2024)	20~45%	10년간	미국
한국은행(2025)	4.2~12.6%	초기균제상태 ~최종균제상태	한국

자료: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2026),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Great Divergence」, 한국은행(2025), 「AI와 한국경제」, BOK 이슈노트

참고로 AI가 생산성 및 잠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Acemoglu (2018)¹¹⁰⁾와 Aghion(2024)¹¹¹⁾의 방법론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I의 도입과 활용에 의한 생산성 증가의 측정(measurement)은 다음의 식 (1)과 같이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TFP) 성장률을 개별 산업별 TFP 성장률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Delta \ln TFP = \sum_{i=1}^N \lambda_i \Delta TFP_i, \quad \lambda_i = \frac{P_i Y_i}{GDP} \times cost \quad (1)$$

(1) 식을 AI의 도입과 활용으로 10년간의 생산성 증가로 변형하고 각 영향요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향후 10년간 TFP 증가분(TFP gains over 10 years)」

- = AI에 노출되는 업무(산업)의 GDP 비중 ①
- × AI를 활용하여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산업)의 비중 ②
- × AI로 인한 평균 비용 절감률 ③
- × AI 노출조정 노동소득분배율 ④

또한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잠재GDP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생산함수를 노동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식 (1)을 정리하면 다음의 식(2)가 된다.

$$d \ln Y = d \ln TFP + s_K \cdot d \ln K \quad (2)$$

여기서 s_K 는 자본소득분배율을 의미한다. 식 (2)를 10년간의 생산성 증가로 변형하고 수정된 형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AI로 인한 향후 10년간 GDP 증가율(잠재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다.

「향후 10년간 GDP 증가율(GDP gains the next 10 years)」

- = 향후 10년간 TFP 증가분
- + 자본소득분배율 × 자본스톡 증가분

110) Acemoglu(2018), "The Race between Man and Machin: Implications of Technology for growth, Factor Shares, and Employment", AER, 2018, 108(6).

111) Aghion(2024), "AI and Growth: Where do we stand?", working paper.

제2절 성장기여도

1. 2026년 전망

- 2026년 투입요소별 성장기여도는 노동은 -0.1%p, 자본은 0.8%p, 기타요소는 1.3%p로 전망

(전년대비 %, %p)

	2024	2025	2026
경제성장률	2.0	1.0	2.0
노동	-0.2	-0.1	-0.1
자본	0.9	0.8	0.8
기타요소	1.3	0.3	1.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노동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 총노동투입량 감소
자본	• 설비투자 확대	• 건설착공 부진 지속
기타요소	• 인공지능 및 디지털전환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대외 불확실성 확대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성장회계 모형(Growth Accounting)에 따라 각 생산요소(노동, 자본, 기타 요인)으로 분해하고 각각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0.1%p를 기록하며 감소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의 성장기여도 역시 전년과 동일한 0.8%p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는 2025년 0.3%p에서 2026년 1.3%p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요소별로 성장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동요인과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의 성장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노동투입량이며, 이는 취업자 수 증가세와 주당평균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2026년 노동의

강은정 경제분석관(eunjungkang@assembly.go.kr, 6788-4680)

성장기여도는 -0.1%p로 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취업자 수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데 기인한다.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0.6% 증가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노동 공급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¹¹²⁾를 지속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고용 부진¹¹³⁾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5년에 비해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1.0% 감소하며 노동투입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¹¹⁴⁾이 노동 현장에 점진적으로 안착하면서 실질적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동투입량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2] 노동의 실질GDP 성장기여도 전망

(단위: %p, %)

	노동의 성장기여도	노동투입량	결정요인 추이	
			취업자 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24	-0.2	-0.3	0.6	-0.8
2025	-0.1	-0.1	0.7	-0.8
2026	-0.1	-0.1	0.6	-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자본투입량(자본스톡)의 증감이며, 이는 총고정자본형성(투자) 규모와 기존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률에 따라 결정된다. 투자부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2025년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가 전반

112) 2025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4.7%로 전년(64.5%)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OECD(2025)는 한국이 인구고령화라는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OECD(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Korea"

113) '26.1월 청년 고용률 43.6% (전년동월대비 -1.2%p), '쉬었음'은 278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14)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워라벨+4.5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확대를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였다.

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6년에는 AI·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확대¹¹⁵⁾되면서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하방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 2026년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년대비 1.9%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투자의 양적회복에도 불구하고 자본스톡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지 않아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전년과 동일한 0.8%p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V-3] 자본의 실질GDP 성장기여도 전망

(단위: %p, %)

	자본의 성장기여도	자본스톡	결정요인 추이	
			총고정자본형성	감가상각률
2024	0.9	2.3	-0.8	4.5
2025	0.8	2.1	-3.2	4.6
2026	0.8	2.1	1.9	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성장회계에서 기타요소는 노동과 자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잔차로 생산요소 투입 외의 효율성(혹은 생산성)을 의미한다.¹¹⁶⁾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기타요소의 기여도도 0.3%p로 하락하였다. 반면, 2026년에는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이 높아지고, 기타요인의 기여도 역시 1.3%p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및 자동화는 향후 기타요소의 기여도를 높이는 주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실질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경우 이는 생산성 개선을 제약하여 기타요소의 기여도를 낮추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115) 글로벌 반도체 산업협회(SEMI)에 따르면 올해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팹(fab, 공장) 투자 규모는 350억달러(약 50.7조원)로 지난해 270억달러(약 39.1조원) 대비 29.6% 증가할 전망이다.

116)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기타요인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경기변동이나 대외 공급 충격 등에 따라 경기순응적으로 움직인다.

[표 V-4] 기타요소의 실질GDP 성장기여도 전망

(단위: %p, %)

	기타요소의 성장기여도	결정요인 추이	
		노동의 성장기여도	자본의 성장기여도
2024	1.3	-0.2	0.9
2025	0.3	-0.1	0.8
2026	1.3	-0.1	0.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절 금리

- 2026년 국고채(3년) 금리는 전년대비 0.4%p 상승한 3.0%로 전망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3.1	2.5	2.6	2.6	3.1	2.9	3.0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2026년 국고채(10년) 금리는 전년대비 0.4%p 상승한 3.3%로 전망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3.2	2.8	3.0	2.9	3.5	3.1	3.3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 2026년 회사채(3년, AA-) 금리는 전년대비 0.4%p 상승한 3.5%로 전망

(단위: %)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3.7	3.1	3.1	3.1	3.7	3.4	3.5

주: 음영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 동조화	• 산업 간 성장률 격차
• 외환시장 변동성 증가	• 노동시장 둔화

2026년 연평균 국고채(3년, 10년) 금리와 회사채(3년, AA-) 금리는 글로벌 중장기 금리와의 동조화, 산업 간 성장률 격차 등에 따라 각각 3.0%, 3.3%,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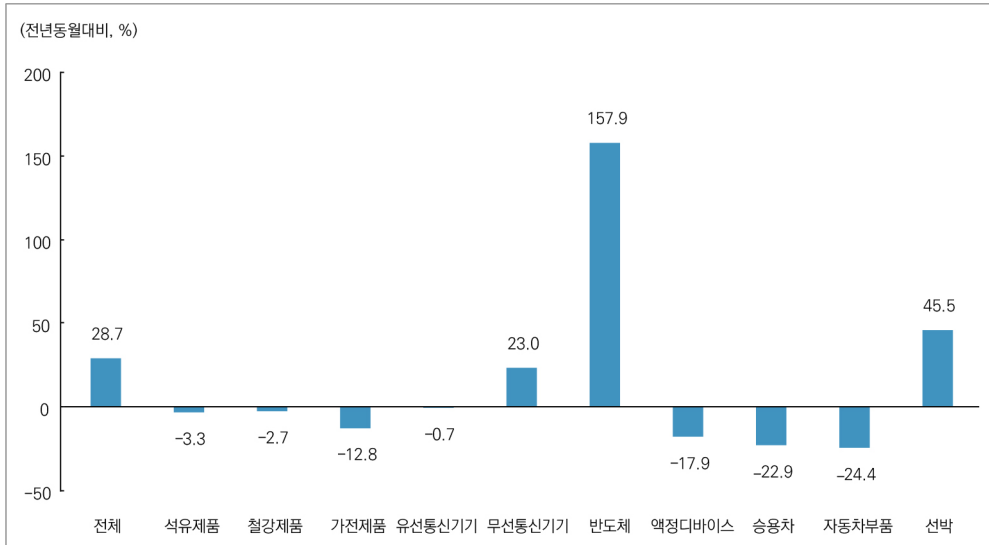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경기 개선 흐름 지속, 물가 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2025년 5월 2.75%에서 2.50%로 인하된 이후 2026년 2월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경기회복세 관찰, 중동 지역 긴장 확대, 유가 상승 등에 따라 한동안 관망세를 보이며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는 최근 글로벌 증장기 금리와의 동조 흐름, 외환시장 변동성 증가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5년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보였다. 2026년 들어서 금리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단기변동성이 높아졌다. 다만, 증장기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경기둔화로 전환될 가능성 등으로 상승 폭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하반기에 들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금리의 하방 요인으로 산업 간 성장률 격차, 노동시장 둔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 산업별 성장률의 격차가 존재하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6년 1월과 2월 수출액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33.8%, 29.0% 증가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석유제품, 철강 등은 수출이 부진하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6년 2월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57.9% 증가하였으나, 선박(45.5%), 무선통신기기(23.0%)를 제외한 다른 주요 품목의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실업률은 2024년 11월 2.2%에서 2025년 12월 4.1%로 상승하였고, 2026년 1월에도 4.1%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약화는 금리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 환경에 기초하여 2026년 국고채(3년) 금리는 상반기 3.1%, 하반기 2.9%를 기록하여 연간 3.0%로 전망되고, 국고채(10년) 금리는 상반기 3.5%, 하반기 3.1%로 연간 3.3%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회사채(3년, AA-) 금리는 상반기 3.7%, 하반기 3.4%로 연간 3.5%가 전망된다.

[그림 V-8] 주요 품목별 2026년 2월 수출 증감률



주: 수리일 기준

자료: 관세청

마지막으로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금리의 단기적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분쟁의 장기화로 높은 수준의 원유 가격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2026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의 변동성이 연말까지 높게 유지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6년 NABO 경제전망
(NABO Economic Outlook for 2026)

발간일 2026년 3월 27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SN 3022-7739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6-002147-10

ISSN 3022-773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